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13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24~925 1982년 9월 10일(금) 11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September 10 & 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김영규
편 집 인 이석현
인 쇄 인 박정서
광고국장 송광호

주최고 법원, "퀘백 언어법안은 위헌"
인권헌장이 『BILL 101』에 우선 판시

(몬트리얼)퀘벡주 최고 법원의 쥘르·데샤느판사는 8일 영어사용 학부모들이 퀘벡주로 이주해올 경우 자녀를 반드시 불어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 퀘벡주 법안 제101(Bill 101)이 캐나다 헌법의 인권헌장에 위배됨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교육에 관한 일부권한이 각 주 법으로부터 연방 헌법의 관할로 넘어감을 인정하는 첫번째 법적조치이다.

데샤느판사는 140여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퀘벡주민의 영어학교 접근을 제한하는 Bill 101보다는 캐나다 헌법의 새 인권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퀘벡주의 말썽많은 Bill 101은 주내 영어학교는 퀘벡주에서 영어로 교육받은 부모의 자녀만이 다닐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영어교육을 제한해왔다.

캐나다 헌법의 인권헌장 제23조는 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건 원하는대로 영어나 불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역사적 판결은 자녀의 영어학교 입학을 거절당한 학부모들과 퀘벡교육위원회및 두 몬트리얼 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데샤느판사는 Bill 101이 영어학교 제한이유로 주장한 "북미에서 불어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를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Bill 101을 정당화하려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퀘벡내 영어학교들은 9일 이 판결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는 캐나다 연방 최고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 확실하다.

한편 장·크레치엥 연방 법무장관은 "퀘벡주내 법원이 연방헌법의 소수언어 조항을 인정했다는데 대해 기쁘다"고 말하고 "이제야 말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거주지를 불문, 영어나 불어로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삼 강조한다"고 말했다.

크레치엥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로 영어사용 주민들이 퀘벡에 머물러 있도록 권장하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 퀘벡주민으로서 영어사용자들 때문에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퀘벡독립을 주창하는 르네·레벡의 퀘벡 분리당이 집권한 이후 많은 영어사용 퀘벡인들이 온타리오등 타주로 자본을 갖고 이주하는 바람에 퀘벡주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어왔다.

◆퀘백의 BILL 101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퀘백주 최고법원의 쥘르·데샤느판사.

아랍, 새평화안 발표
이스라엘 승인도 포함

(모로코의 라밧)중동지역에서 이스라엘국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 아랍·이스라엘간 분쟁종식을 위한 새 타협안이 8일밤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를 비롯한 아랍연맹 지도자들간에 합의됐다.

22개 아랍국중 20개국이 합의한 새 평화안에 따르면 아랍지도자들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중동지역의 이스라엘 국가승인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온 아랍국들이 타협안에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승인 문제에서 가장 강경히 반대를 고집해온 시리아도 대부분의 아랍국들의 압력에 눌려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아랍측의 새 평화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옵저버들은 아랍국들이 궁극적인 중동평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용의를 보여준 중요한 첫단계 진보라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아랍국들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은 67년 중동전 이후 차지한 모든 중동점령지에서 철수한다.

◆동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국 수립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회복한다.

◆예루살렘의 모든 종류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기구로 인정한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지역의 각 국경을 합법 보장한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국 건설및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는데 강력히 반대를 표명해왔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불도 한국역사 왜곡
교육개발원, 수정요청할듯

(서울)일본, 프랑스, 미국 등에서 발간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가 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 그 자료를 8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들 3개국에서 발간된 역사교과서및 참고서 중 479권이 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가중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364권의 역사책중 61권만이 동양사를 다루고 있고 한국사에 관해서 기술한 역사책은 한권도 없는 것으로 이 연구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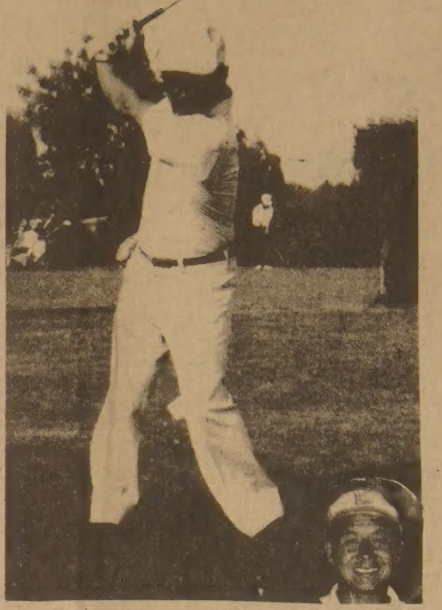
이에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서 내용을 보다 정밀히 검토한 후에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 3개국가에 대해 한국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7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육개발원은 39개국에서 발간된 2,616권의 교과서를 수거, 검토했으며 이들 국가중 35개국에 대해 586권의 교과서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골프경력 4년만에 금년도 최고의 골퍼로 선정된 정길수씨. 그는 지난 6월 천주교 대회에서 1등했었다.

최고의골퍼는 정길수씨
수퍼10대회 금년시즌 마무리

금년도 토론토지역 넘버·원 수퍼골퍼는 정길수씨.

정씨는 지난 5,6일 글렌이글 골프장에서 열린 한인골프협회(회장 김현모)주최 금년도 「수퍼10」대회에서 도합 164점, 평균 82점을 마크했다.

이기훈씨(무나미·트로피사장)와 원장호씨(체육회 이사장)는 165점 동점이었으나 마지막날 백·9 코스의 성적을 따져 이씨가 2위, 원씨가 3위가 됐다.

넷 1등상은 김태진(실협 이사장)씨에게 돌아갔다. 넷 2,3위는 계산상의 문제가 생겨 발표가 보류됐다.

작년 9월에 열린 수퍼10대회후의 각종 교민오픈대회에서 그로스로 10위 이내에 든 골퍼가 최종적으로 실력을 겨루는 수퍼 10대회는 금년이 3번째로 1회는 오석원, 2회는 박영철(부총영사)씨가 종합 162점, 평균 81점을 쳐 수퍼골퍼로 선정됐었다.

금년대회 참가유자격자는 65명이나 이번에는 44명이 참가했다.

섬머·룰이 적용되고 로우·핸디 골퍼들이 이용하는 블루·티(챔피언·티)를 쓴 이 대회에서 첫날은 날씨가 좋았고 둘째날은 바람이 불고 추웠으나 대체로 첫날 성적보다는 나았다.

김현모 골프협회장은 이날 "일반적으로 기술이 진보했고 에티켓도 나아졌다. 다만 흠이라면 아직도 골퍼간의 매너가 아쉬운 점이다"라고 평했다.

13년전 이민, 골프경력 4년의 수퍼·골퍼 정길수씨는 지난 6월 같은 곳에서 열린 천주교주최 오픈대회에서는 이번 성적보다 훨씬 좋은 74점을 기록, 챔피언이 되었다.

(정씨는 버링톤에서 캐네디안 음식점을 경영했으나 6월에 화재를 당했다.)

한편 이날 일부 골퍼들은 박부총영사가 대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스럽게 말했다. 이들은 "박부총영사가 선수권자(Defending Champion)로서 이번 대회에 하루라도 참여하는 것이 예의인데 이를 모두를 불참했다는 것은 골퍼로서 납득이 안가는 매너 라고 지적했다.

박부총영사는 대회 첫날에는 공무로 바빠서, 둘째날인 6일에는 교포 골프친목회의 초청을 받아 코스에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부총영사는 지난 8월 대사배쟁탈 골프대회에도 선수권자이면서 불참, 빈축을 샀었다.

◆82년도 톱·10
(점수는 2회 합계 그로스)

1위 정길수 164
2위 이기훈 165
3위 원장호 165
4위 윤여경 166
5위 박노욱 166
6위 고광남 167
7위 박상남 168
8위 최상수 169
9위 곽창수 169
10위 차선겸 172
10위 강태영 172

◆넷
1위 김태진 173, 69(2, 3위은 없음)
◆니어리스트 정용주
◆롱게스트 김만구

한국, F-5F 전투기 생산
미그21기보다 우세

(서울)한국최초로 국내 조립된 전투기가 9일 시험비행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일본, 대만에 이어 아시아지역에서 전투기를 자체생산하는 세번째 국가로 부상했다.

F-5F 타이거 II라고 불리어지는 이 한국최초의 전투기는 이날 전두환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공군 기지에서 성공리에 시험비행을 마쳤다.

음속의 1.6배로 비행할 수 있는 이 2인승 초음속전투기는 미국 노스롭사(Northrop Corp.)의 기술지도로 대한항공이 조립했으며 엔진은 삼성정밀공업이 지난 6월 미항공청으로부터 「제트엔진 3급」 자격증을 얻어 제작한 것이다.

F-5F 전투기는 각종 최신형 전자장치로 장비되어 있으며 현재 북한 공군의 주력기인 MIG-21보다 전투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이번 시험비행은 정부가 86년까지 항공기 국내생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후 8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시험비행을 참관한 전대통령은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및 문화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부문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더이상 경쟁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핵무기 댓수 실제 소련 능가」
국방정보센터

(워싱턴) 미국의 핵무기보유댓수는 정부의 통계보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소련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국방정보센터(CDI)가 밝혔다.

미국은 1만2천기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어 소련의 8천개보다 많은 양이라고 CDI는 설명했다.

그러나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대변인은 CDI의 보고를 아직 보지못해 논평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소련이 핵군사력에서 우월하다는 것은 핵무기의 숫자때문이 아니라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등 보유한 핵무기의 파괴력때문에 평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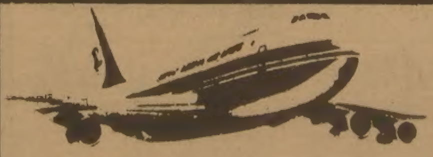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귀국선물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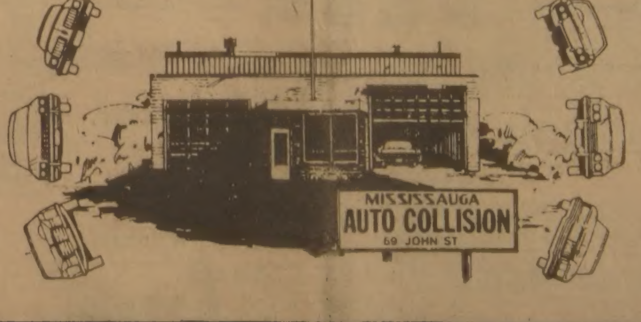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묵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년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안수일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10대 형제 은행강도미수

지점장 자택서 밤새 인질극

브램톤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형제가 한 은행지점장과 그의 6살난 딸을 인질로 삼고 은행돈을 털어 달아나려다 경찰에 잡혔다.

이들 형제는 케네디·로드에 사는 다니엘·피터(17)와 그의 동생 토드(16)로 다니엘은 무직이며 토드는 브램톤의 W.J.펜톤중학교 학생이다.

이들은 불법감금, 무장강도및 총기사용 공모죄로 기소되어 9일 주재판소에서 열리는 보석적부심 청문회에 출두한다.

이들 형제중 동생 토드는 8일 오전 6시50분 소지하고 있던 반자동권총을 버리고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체포되었으며 이에 앞서 38구경 권총으로 무장한 또 다른 혐의자도 브램톤의 쇼퍼스·월드에 위치한 몬트리얼은행 지점 밖에서 경찰에 잡혔다.

이들 형제중 형 피터는 7일밤 9시경 홀링톤·크레센터에 위치한 몬트리얼은행 지점장 그레햄·스레트리(36)씨 집에 침입, 스레트리씨와 그의 딸 사만티양과 옆집에서 놀러온 존·소머스씨를 인질로 잡았다.

그는 스레트리지점장에게 다음날 아침 은행에서 현금을 꺼내다줄 것을 협박했다.

차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웃집에서 놀러온 소머스씨가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되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를 석방,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집에 돌아온 소머스씨는 메트로경찰관인 이웃 로브·멕켈럼씨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필지역경찰에 연락됐다.

보고를 받은 필경찰은 특공대를 보내 스레트리씨집을 포위하고 이 집으로 통하는 도로를 완전 차단했으며 인질협상의 베테랑인 민완형사 레이·케이 경사가 아침 6시40분경 피터와 전화통화, 7시경에 자수시키는데 성공했다.

◆사람을 찾습니다◆

1년전 토론토로 이민온 최일순(21)씨를 찾읍니다.

◉연락처: 한국일보사 533-2361

이화여대 동창회

18일(토), 총회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회장 송복희)의 친목회 및 총회가 오는 18일(토) 하오 1시 공영희 총무댁에서 열린다.

주소는 20 Albion Ave.(2 Bloc N. of Danforth X W. of Victoria Park)

이대 동창회는 총회를 겸한 이번 모임에서 동창주소록 편집을 마감한다.

신규 주소 및 변경사항, 동창회관계 연락은 전화: 698-3778(공영희, Mrs. 윤) 536-4250(송복희, Mrs. 이)로 하면 된다.

이인수씨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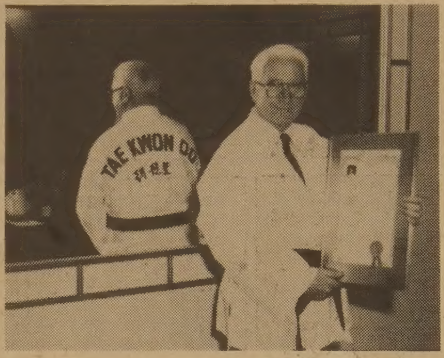
반석교회 집회

반석교회(2840 Weston Rd., Weston)에서는 전 사형수 이인수 집사를 강사로 초빙,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하오 7시30분부터 집회를 갖는다.

전 육사, 육군대학및 국방대학원 교수와 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및 특별보좌관을 역임한바 있는 이인수씨는 현재 평신도 전도단장과 새마을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출감후 5년간에 600여회의 집회인도를 한바 있다.

회장에 로이드·프랜시스

캐나다 태권도협회 정기총회



◆국회의사당에서 태권도협회 회장 재선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도복 입고, 단증을 보여주는 Dr. Lloyd·Francis 하원부의장.

(오타와 이태은지국장) 세계태권도연맹 캐나다태권도협회는 지난4일 몬트리올 소재 마운트호텔·케배룸에서 82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는 회장에 DR. Lloyd Francis(태권도 명예 초단) 국회하원 부의장을 재선하고, 각주별로 새로운 이사를 선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보고, 예산및 내년도 활동사항등을 중점토의했으며, 정관수정과 신규조항에서 사범자격을 세계 태권도연맹(WTF)의 규정대로 4단이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캐나다태권도협회의 정식 영문명은 「WTF Tae Kwon Do Association of Canada」이며 Canadian Olympic Association(COA)에 가입된 유일한 공인협회이다.

신임임원및 각주 이사는 다음과 같다. 임기는 2년.

이사장: 박주삼(토론토)
회 장: Dr. Lloyd Francis(오타와)
부회장: 홍성인(런던) 박종수(토론토)
사무총장: 이태은(오타와)
고 문: Ken·Robinson(보수당 연방의원)
이 사: (무순)

★온타리오-박주삼, 서정길, 박종수, 홍성인, 홍성판, 오충원, 정기태, 손명수, 김형철, 박성수, 켄-청, 놀만래핀, 정영수, 곽창선, 최영호, 이태은, 김춘태, 정영수, 닥터 로이드·프랜시스, 켄·로빈슨

★브리티쉬·콜롬비아-오영국, 권현택, 김길우, Denis·Chen,

★사스카추완-김성주, 하기성

★뉴·펀드랜드-Wayne·Simon

★노바스코샤-Charlie·Carabin

★매니토바-강주원, 이암, 조희용,

★퀘벡-윤오장, 이종수, Guy·Labatt, Ray·Nikiel

★앨버타-전덕기, 박지연, 이준재

미주한국문인협회 창립

20여 창립회원, "교포정신문화 밑거름"다짐

명예회장에 시인 박남수씨 추대, 문예지도 발행

(LA지사)재미한국문인들의 권익옹호, 친목도모및 연구·창작활동을 돕기위한 「미주한국문인협회」가 LA에서 결성되었다.

2일 하오7시 갤러리스쿨 프 아트 인스티튜트(265 S. Western Ave. LA)에서 20여명의 문인들이 참석,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을 본 「미주한국문인협회」는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수있는 한인 이민사회에, 정신문화를 꽃피우고 교포들의 정서생활을 보다 풍족하게 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기 위해』 한국서 문학활동을 하던 기성문인들과 이곳 매스컴을 통해 등단한 신인들및 이곳에서 문학적 소양을 쌓고 틈틈히 글을 써온 사람들로 돼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계간종합문예지 「미주문학」발간에 역점을 두면서 문학세미나, 시인·작가와의 대화, 시낭독회, 백일장, 본국및 외국 작가들과의 교류, 미주내 타지역(캐나다 포함)으로의 회원확대등을 계획하고있으며 「미주문학」 제1호는 10월중에 발간될 예정이다.

이협회는 이날 명예회장에 원로시인 박남수씨(프로리다 거주)를 추대하고, 초대회장에 송상옥씨(소설가), 부회장에 황영애씨(아동문학가)와 권순창씨(수필가), 사무국장에 김호길씨(시인)를 선출하는 한편, 이사장 김명환씨(영문학자), 부이사장 김병현씨(시인), 상임이사 전달문씨(시인)등 임원도 뽑았다.

이철수재판 보도

미 언론도 큰관심

이철수 무죄판결은 미국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모았다. 샌프란시스코지역 NBS-TV방송은 3일밤 11시 뉴스시간에 극적인 재판결과를 보도했으며 방청객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방영했다.

한편 오클랜드·트리뷴지는 4일 조간에서 『이철수씨 살인혐의 벗겨지다』라는 제목을 싣고 크게 보도했으며 「샌프란시스코·헤랄드·이그재미너」와 「크리니클」지도 5일 일요판에서 특집으로 보도했다.

이선희선수 2위

말레이 국제마라톤

(페낭=말레이지아)한국의 이선희 선수는 지난 25일 말레이지아의 페낭에서 벌어진 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38분54.6초를 기록, 2위를 차지했다.

538명의 각국 선수가 참가한 이 대회의 우승은 2시간24분56.8초로 골인한 일본의 시바·마사아끼에게 돌아갔다.

◆기 록

◉남자부=1)시바(일본)-2시간24분56초8, 2)이선희(한국)-2시간38분54초6, 3)마이크·우즈(아일랜드)-2시간39분41.9초, 4)빅토르·마르틴(말레이)-2시간41분02.4초.

◉여자부=1)윈니·영(홍콩)-2시간55분52.9초, 2)하세가와·요꼬(일본)-2시간55분53.2초, 3)아사이·에리꼬(일본)-3시간1분11.7초

◉장년부=1)데라자와(일본)-2시간48분15.2초, 2)안테니·그루어(홍콩)-2시간55분46.3초, 3)마이크·머피(영국)-2시간55분52.7초

샛별한글학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스카보로에 위치한 샛별한글학교는 9월11일(토) 가을학기 개강을 한다.

유치·초·중·고등 4개반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며 오전은 한글, 오후는 예능을 가르친다.

학교위치는 Woburn Collegiate(2222 Ellesmere Rd.)이며 문의처는 291-3479 또는 293-3149.

고도 산업 국

궤양발생높아

(보스턴)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급격히 늘고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지역에서는 발생률이 줄고있는 궤양질환은 「생산성에 대한 압박」이 그 원인이라고 의학자들이 밝혔다.

산업화되는 국가들에서 높은 궤양발생률의 지역분포를 분석할때 도시화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텍사스 메디컬 브랜치대학의 제임스·톰슨박사는 풀이했다.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2세대나 3세대까지도 생산성의 압박으로 인한 십이지장궤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는 말했다.

조영증, 베스트11영광

북미축구연맹서 선출

북미 프로축구계에서 활약중인 조영증(27)선수가 82년도 북미축구연맹(NASL) 베스트11으로 지난 4일 선정됐다.

NASL은 매년 시즌을 끝낸 뒤 권위있는 스포츠 전문지 (스포팅 뉴스 매거진)의 투표에 의해 가장 활약이 두드러진 선수 11명을 선정하는데 이번 수비수에서 조선수를 뽑았다.

과거 국가대표 화랑팀의 명 스토퍼였고, 주장이었던 조선수는 81년3월 미국 포틀랜드·팀버즈에 입단했다.

부지런하고 강인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그는 작년 시즌에는 위클리(주간) 최우수선수로 한차례 선정됐었다.

수비선수가 위클리·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힌 것은 드물며, 포틀랜드팀에서는 두번째여서 조는 크게 각광을 받았다.

그는 또 지난해 미국축구전문잡지 『킥』의 표지모델로 나오기도 했다.

NASL은 올해 「베스트 11」을 발표하면서 최고선수로는 뉴욕·코스모스팀의 FW 지오르지오·치날리아를 뽑았다.

치날리아가 베스트 11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6번째이며, 코스모스에서는 4명이 영광의 대열에 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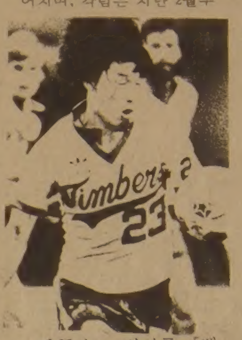
NASL에는 작년만해도 26개팀이 있었으나 올해는 재정적자와 팀 정비로 인해 14개팀으로 줄었다.

14개팀은 3개지구로 나누어지며, 각팀은 지난 2월부터 8월21일까지 32게임씩 연맹전을 가졌다.

연맹전에서 조선수가 속한 포틀랜드는 서부지구에서 14승18패(포인트 122점)를 기록, 8강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진출은 실패했다.

8강은 14개팀중 점수가 많은 순으로 가려내고, 8강전에는 3전2 선승제를 실시, 4강을 추려낸다.

NASL의 「82년도 전적」및 「베스트 11」은 별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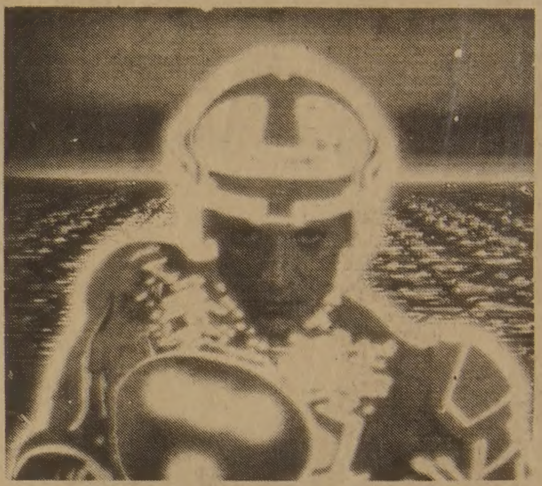


◆82년도 전미국 「베스트·11」에 선정된 조영증(수비)의 활기찬 모습 (미국「킥」잡지)

NASL'82전적

★표는 플레이오프진출팀

	승	패	점수
▲동부지구			
★코스모스	23	9	203
★몬트리올	19	13	159
★토론토	17	15	151
④시카고	13	19	129
▲남부지구			
★포트데일	18	14	163
★툴사	16	16	152
③탬파베이	12	21	115
④잭슨빌	11	21	105
▲서부지구			
★시애틀	18	14	166
★샌디에이고	19	13	162
★밴쿠버	20	12	160
④포틀랜드	14	18	122
⑤산호세	13	19	114
⑥에드먼톤	11	21	93



▲컴퓨터세계의 백마의 기수 트론이 프리스비 닮은 전자무기로 적을 쳐부순다.

새映画 트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보려는 월트디즈니사가 정성과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전자문명의 꽃같은 화려한 작품이다. 「Tron」은 인간의 두뇌가 만든 고도의 기술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보여줘 감탄하다가도 기계문명의 노예가 된 인간을 보는 것같아 섬찟하기까지 하다.

거대한 통신회사 엔콤(ENCOM)의 총수 메

高度電子 문명속 추격과 大決戰

이빗·워너는 한때 프로그램제작일을 보던 제프·브리지스의 프로그램을 훔쳐 비디오게임을 만들어 치부한 냉혈한. 그는 프로그래머들의 고안을 모두 자신이 독점, 이에 반기를 든 브루스·박슬라이트너와 그의 연인 신디·모건은 브리지스와 함께 이 음모를 분쇄하려한다. 그러나 어느날 밤 엔콤에 잠입 증거를 잡아내려던 이들은 레이저광선에 의해 컴퓨터안으로 빨려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 세명과 워너 그리고 메스터·컨트롤·프로그램(MCP)이라 불리우는 인간을 지배하는 컴퓨터프로그램간의 추격과 대결전이 벌어진다. 컴퓨터 안으로 흡입된 박슬라이트너는 트론으로 모건은 요리로 그리고 워너는 사크로 변신돼 꽃잎이 튀는듯 현란한 다툼을 벌인다.

빛의 자전거와 전류의 샘등 형언키조차 힘든 전자기술의 효과가 빛과 색[illegible] 향과 속도를 내며 어지럽게 펼쳐지[illegible] 운 미를 마구 뿌려댄다. 전자시대와 컴퓨터산업이 빚어낸 완벽한 기술문명의 정화라 할 이 영화는 그러나 기술이 너무 앞서는 바람에 여러 곳에 허점을 무수히 남겨놓고 있다.

그 내용이 지극히 빈곤한 것은 물론이고 출연진들도 영화효과를 위해 희생당한듯 연기다운 연기를 보여주지 못해 처량스럽게 보인다. 이것은 특히 출연진들이 얼굴만 보일뿐 온몸이 특수기술로 만들어낸 빛과 색채의 옷으로 둘러싸여져 얼굴과 몸이 따로 놀기때문.

컴퓨터만화영화인 「Tron」은 그 혁명적인 시각효과로 영화사의 한획을 그을것이 틀림없으나 기계문명에 찌들어가는 인간성을 생각하면 어른들의 비디오게임하는 모습을 보듯 어색하고 두렵기도 하다. 스티븐·리스버거감독, 등급 PG.

◆6백만불의 사나이 리·메이저즈와 이혼한 뒤 라이언·오닐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해온 파라·퍼셋(촬리즈·앤젤)이 최근 귀족부인이 되는 꿈에 젖었다 말았다.

오닐의 품을 떠나 이탈리아의 『우르바노·바베리니 공자』로 자칭하는 한 미남청년과 눈이 맞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알고보니 청년은 『이탈리아의 공자』가 아니라 애숭이 모델 아치 부송(20)군. 퍼셋은 다시 오닐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 다행.

映畵 E T

9월이돼도 熱風그대로

팬레터만 무려 1만여통 쇄도

"너를위해무엇이던지하겠다"

(뉴욕) 지난6월부터 시작된 영화 「E.T」의 열풍은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가라앉을 기세가 아니다.

제작자 스티븐·스피엘버그에게 날아든 팬레터는 무려 1만여통이 넘는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스티븐·스피엘버그랑 E.T(외계인)앞」이다.

내용은 정말 각양각색.

미시건에 사는 매튜·로쓰(4세)는 E.T.를 생일파티에 초대했다. 초청장은 『나의 친구 E.T.에게』로 되어있다.

일리노이주의 탈리아·글리머(5세)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간청했고 텍사스의 제임스·울슨은 『E.T.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간청했다.

E.T.신문스크랩, 캔디와 홈메이드「E.T.게임판」, E.T.만화책, E.T.의 흉무비등이 소포로 전달되는가하면 갖가지 솜씨로 그린 E.T.초상화가 E.T.팬클럽의 책상에 산적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그린 E.T.의 색깔은 브라운, 블루, 핑크등…그러나 눈만은 모두 푸른색이다.

이렇게 전국에서 날아드는 팬레터를 관장해온 E.T.팬클럽은 일일히 답장을 쓸수없게되자 E.T.에 관한 뉴스레터를 발간할 계획.

「E.T.의 컴뮤니케이터」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뉴스레터는 뉴욕에 본부가 있으며 우편주소는 일리노이. 갖가지 팬레터의 내용, 그림등과 답장도 실리게 된다.

『네생각을 안할수가 없단다. 마치 열병에 걸린것같아…』라고 호소한 폴·맥그래스의 편지등이 실린 이 뉴스레터는 1년에4번 발간될 예정이다.

E.T.팬클럽의 주소는 「E.T.FAN CLUB/P.OBOX Dept. 14/Mt. Morris, Ill 61054」다.

한글학교 학생모집 공고

쇼햄한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글학교 학생모집을 하고 있읍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35 Shoreham Dr.
(Jane × Shoreham Dr.)
York대학 뒷문 입구
등록시일: 1982[illegible]14일 오후6시30분~
모집학급: [illegible] 고급및 태권도
수업일시: 1982년9월21(화) 오후6시30분~9시. 매주1회
연락처: 663-1178 박승낙

쇼햄한글학교
교장 박 승 낙

한인 대학생회 동창회(가칭) 창립총회

회원간의 친목, 선후배간의 유기적 관계및 복합문화 구현에 기여등의 기치를 들고 한인대학생회 동창회(가칭)가 창립될 즈음에 있읍니다. 온타리오주내 대학에 1년이상 적을 두었던 모든 회원들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일 시: 1982년 9월25일(토) 오후7시30분
◎장 소: LIBRARY SCIENCE BLDG. 7층 LOUNGE (토론토대학교 중앙도서관 ROBART LIAB의 부속건물- ST. GEORGE ST.과 SUSSEX ST.의 교차지점)

창립준비위원장: 김의명
창립준비위원:
GUELPH U: 윤주석, 고정화
HUMBER U: 김희체
MCMASTER U: 김의애
OCA: 문안나
RYERSON C: 전병혜
WATERLOO U: 이성기
WESTERN U: 박현주
YORK U: 강찬영
U of T: 전봉수·오춘상·김의명·이영웅·이덕재·김태형·이병룡·이학수·이재용·장 영·최기한·박성수

연락처: 김의명(422-3706) 장 영(928-2840) 고정화(622-5176)

벧엘교회

바자회에 초청합니다

일 시: : 1982년 9 월25일(토)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장 소: 벧엘교회
395 OLD YONGE ST.
(Yonge & Hwy 401)
품 목: 공예품, 수예품등
음식류: 빈대떡, 각종 떡종류, 김치, 고추장, 된장, 어리굴젓, 가재미 식혜, 무말랭이 등등
식당메뉴: 육계장, 비빔밥, 우동, 잡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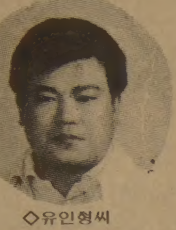
※벧엘교회에서 자랑하는 음식솜씨를 염가로 제공하오니 꼭 들려 주셔서 맛보세요. 그외에 재미있는 프로와 경품이 있읍니다.

벧엘교회 여전도회 문화부

〈유인형수필선〉 ①

뒷 동 산

유 인 형


◇유인형씨

◆필자소개 : 〈여동원수필선〉의 뒤를 이어, 〈유인형수필선〉을 싣습니다.
수필가로서 캐나다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에드몬톤에 살고 있는 유씨는 지난79년1월1일, 캐나다한국문협 공모 제2회 「신춘문예」에 수필「사냥꾼」당선으로 이땅 문단에 데뷔. 첫 수상집〈에드몬톤의 불꽃〉을 출판.

뒷동산으로 간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언덕이다. 집뒤에 있는 이 언덕에는 몇그루의 소나무가 자란다.

때로는 솔잎을 따서 씹어본다. 송진냄새 속에 뻐꾸기 울음이 들려오는 것같다. 달밝은 이 밤에 인기척하나 없이 고요하다.

산이 없는 곳에 살다 보니 언덕만 봐도 반갑다. 산악인의 감각으로는 변화없는 평원이 싱겁기 짝이 없다. 가파른 암석의 절벽도 있고, 폭포도 있어야 하는 건데, 어디를 보나 거기가 거기다. 싱겁고 허전하다. 가로막는 게 없으니 아우성칠 이유도 없다.

소나무 밑에 팔베개를 한 채 누워본다. 달빛이야 어디를 간들 변할 것인가. 저렇게 밝은 달밤에는 두견새도 울고, 부엉이도 울었다. 거기엔 신비로운 희열과 고독한 허무가 있어서 좋았다. 산촌의 뒷동산은 언제나 야금야금 씹어먹는 행복의 요람지이다. 밤나무 숲길로 올라가는 뒷동산에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었다.

이맘때쯤에는 쓰르라미와 매미가 운다. 풀숲에서 여치를 잡아다 밀짚으로 만든 집 속에 넣고 달콤한 낮잠을 자곤 하였다. 한여름 밤의 훈향과 선정적인 냄새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밤소나기가 자주 스쳐간 후 낙수물소리가 산뜻하게 들려온다. 무엇 하나 성감에 들뜨지 않게 하는 것이 없다. 황홀한 저녁노을과 싱그러운 풀꽃냄새는 지금도 남아있다. 수시로 변하는 뒷동산의 색채와 바람의 온도는 식욕을 북돋아 주었다. 뒷동산은 표현할 수 없는 산냄새로 가득차 있었다.

황토흙과 슬픈 사랑과, 그리고 또 사치스런 빛깔이 녹아서 배어든 넋들인 것같다. 그러한 산에서 태어나 산속을 뛰어다니며 살다가 무뚝뚝하고 밋밋한 평원으로 나오니 영 맛이 없다.

넓어서 탁 트인게 좋긴 하지만 산악인들에겐 별로 감격이 없는 것같다. 이곳엔 조급할 것도 없고, 자포자기의 분노도 없다. 짓눌림도 없고, 죽여라 살려라 하는건 더군다나 없다. 그래서 자유의식이 발달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높고 낮은 수직적인 감각보다는 평등의 수평감각이 앞선 것이 자연에서 받은 영향일까.

어떻든 뒷동산은 마음의 비밀이다. 무심히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설레임이다. 함박눈이라도 펑펑 쏟아지는 날엔 먼 암자에서 예불드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적막한 골짜기마다 하얀 물감으로 뒤덮이던 그 빛깔은 지금도 새롭게 남아있다.

뽕잎을 따러 뒷동산으로 가는 뽕밭에 가면 누이가 수줍어하곤 하였다. 까만 오디를 한움큼 따서 주던 선머슴 때문이었을까. 이제는 오디가 한참 익어가고 있겠구나. 칡덩쿨 사이로 산나리가 부끄러워하겠구나. 나비와 벌도 날아오지 않는 곳에 어쩌자고 피어났던가.

조촐한 도라지꽃은 외롭지만 담백해서 좋았다. 아침이슬에 젖어있던 파아란 도라지꽃이 요란스런 이곳의 화초보다는 훨씬 순박하고 말고!

밥 훌리는 착한 사람들의 밑반찬이 되어 주던 산도라지. 떠돌이 삶에 지쳐서 언제인가 돌아갈 곳이 있다면 역시 뒷동산이 아닌가 싶다.

「이곳을 뒷동산이라고 부르자!」

「뒤-도-산이 뭐야, 대디?」

혀 꼬부라진 발음의 아이들이 알 턱이 없다. 솔잎을 두어개 따서 씹어보는 내 모습이 야만인으로만 보이는 게 아닐는지 모르겠다. 꿈의 숲도 없이 자라나는 텔레비존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준단 말인가?

「뒤-도-산에 안가겠니?」

「아빠 이상해. 거기 가선 슬리핑해!」

그만둬라. 뻐국이도 안 울고, 새하얀 꽃들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고요한 달밤에는 뒷동산으로 간다. 어수선하고 울적한 날일수록 산이 보고 싶은 것이다. 내일은 찰옥수수를 화단에 심어놔야지. 잔디밭 한쪽에 호박도 심어야겠다. 아마 아이들은 반대일 것이고, 침대생활에 익숙해진 마누라도 서양문화인다운 충고를 할 것이다.

그런데 쑤세미 씨앗을 어디서 구하나? 슬그머니 뒷동산의 소나무밑에 심어놓고 싶은데, 수수는 어떨까? 메밀은? 문명의 첨단에는 조촐하고 은은한 것보다는 콤퓨터의 위력만 있는가 보다.

오늘도 뒷동산으로 간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illegible] 사나이

<65>

때르릉… 기다리던 電話벨 울리자 그녀는…

어떤殺人 ⑫

『또 나가요?』

가정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문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가정부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다.

『난 너한테 감사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나는 잘 알고있어. 아마 우리처럼 마음이 맞는 집은 없을거야. 이번 달에는 월급도 올려야겠지. 정말 수고가 많아.』

2만원을 받아는 가정부는 월급까지 올려준다는 말에 어쩔줄을 몰라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1시쯤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줘. 집에 오기 전에 꼭 전화를 걸어야해. 알았지?』

『네, 알았어요. 집에서 무슨 일 하나요?』

『응, 그런 일이 있어. 넌 알필요 없으니까 마음 놓고 놀다가 와.』

『네에… 그런데 어디가서 무얼하고 놀지요?』

『극장 구경이나 가렴. 아니면 한경원 같은데 가든지.』

『에이, 극장은 싫어요. 창경원은 춥지 않아요.』

『백화점 구경은어때? 응, 그게 좋겠다. 가서 옷이나 하나 사입어.』

그녀는 만원짜리 한장을 더 집어주면서 처음으로 가정부가 밉살맞게 여겨졌다.

가정부를 내보내고 나자 10시가 지났다.

오누이는 굳은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빠,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글쎄다.』

두봉은 사나운 시선으로 맞은편 벽을 쏘아보았다.

그들은 뚜렷한 계획도 없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과했다.

『전화가오면 집으로 오게해요?』

『그놈을 만나려면 그수밖에 없지.』

『그다음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두봉은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계획도 없이 막연히 이리 오게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아요. 그놈은 무서운놈이에요. 보통사람하고는달라요.』

『……』

『오빠, 어떡하실거예요?』

『빚쟁이처럼 그렇게 따지고 들지마!』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벌떡 일어나 거실을 왔다갔다했다.

『난 널 도와주려고 왔지 해치려고 온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알면서 왜 그래? 혼자 할 수 있으면 해봐!』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두봉은 그 자리에 딱 멈췄다. 문자도 움직임을 멈췄다. 두사람은 동시에 전화통을 바라보았다.

때르릉

때르릉

전화는 두번 더 울었다. 귀를후려때리는 것처럼 아주 크게 들려왔다.

『어떻게 할까요?』

문자는 오빠를 바라보며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내가 시킨대로 해.』

두봉은 전화통 옆으로 다가갔다. 문자도 다가섰다. 전화통은 몸부림치고 있었다.

朴男 그림

〈시〉

울게 내버려 두십시오

김 말 희 (문협회원)

◆김말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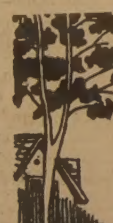
말이 없이 운다면야
내버려 두십시오.

흐르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또 발밑을 적신다 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뼈속에서 아이들이 놀고
살을 뚫고 나오는
천진한 웃음소리가 있기까지
내버려 두십시오.

소리 없이 운다면야
아아!
저 혼자 여물어가는
생의 깊은 밤인 것을……

간섭과 관심, 위로까지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울게 내버려 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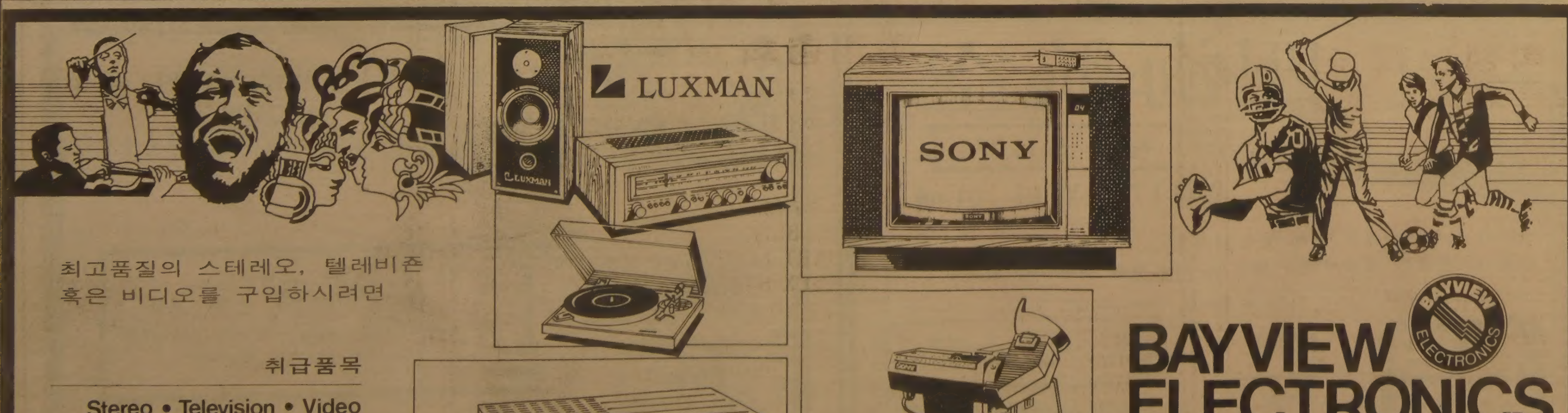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존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취급품목
Stereo • Television • Video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V.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땅값 56%오른 서울開浦洞 일대 「不動産투기지역」 告示

전국住宅거래 活性化
讓渡稅인상·轉賣금지는 안해

정부는 땅값이 최근 두달간 최고 56%까지 오르는등 과열투기현상을 빚고있는 서울江南의 開浦洞지역을 『부동산투기지역』으로 고시, 더이상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규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모처럼만에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킬우려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이나 일정기간동안 전매금지등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實態조사 나서… 다른 江南지역은 觀望

7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투입, 지난6일부터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투기가 일고 있다고 판단된 開浦지구에 대해 일차적으로 『부동산투기지역』고시를하고 果川지역등 나머지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관망하기로했다.

투기지역으로 고시되면 내무부싯가 표준액대신 국세청조사 기준가격에의해 세금 (양도세등) 이 부과돼 무거운 세부담을 하게되는데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인해 현재 투기지역으로고시돼있는 지역은 전국에한군데도없다.

국세청은 開浦지구를포함, 투기의 가능성이 있는果川, 蠶室, 大峙, 道林등 5개지역에 대해 서울지방청과 중부청산하기동조사반을투입, 실태조사와함께 세무자료 수집에 나서고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기획원, 건설부, 주택은행, 주택공사등 관계기관 실무자로구성된 4개합동조사반은 개포동과 반포동, 밤배동, 과천지구및 서울강북 기존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투기가 일고있는 개포지구의경우 7·3조치이후 8월까지 두달동안 상가대지가격이 56%, 일반택지가 42%, 상가건물이 45%, 아파트가격이 11%씩 오르는등 폭등현상을보였으며 나머지지역도 최고25%까지 값이 올랐다. 〈別表〉

또한 경제기획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6월말현재 2·3에 머물던 전국의 주택거래지수가 7월에는 2·4, 8월말에는 2·6으로올라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아파트 가격지수도 6월말 1백·6, 7월말 1백3·3, 8월말 1백6·3으로 상승, 값이 오르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전세가격이 주택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율로상승, 아파트의경우 8월말현재 지난연말대비 26·4%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투기우려지역부동산가격 ※坪당가격 (單位·萬원)

區分 / 地域	A·P·T 7·3以前	A·P·T 8月現在	A·P·T 上昇比	商街(建物) 7·3以前	商街(建物) 8月現在	商街(建物) 上昇比	垈地 商街 7·3以前	垈地 商街 8月現在	垈地 商街 上昇比	垈地 宅地 7·3以前	垈地 宅地 8月現在	垈地 宅地 上昇比
平均			107			122·6			121·3			122·6
開浦洞	109	121	111	253	366	144·6	64	100	156·2	31	44	141·9
蠶室洞	118	118	100	333	400	121·2	83	102	122·9	45	50	111
大峙洞	113	126	111·5	186	223	119·9	90	100	111·1	39	43	110·2
遁村洞	89	91	102·2	160	165	108·3	127	140	110·2	45	50	111·1
果川	112	123	110	400	480	120	470	570	121·2	400	500	125

濠洲웨일즈州 首相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7일상오 청와대에서 濠洲 뉴·사우드·웨일즈州의 네빌·랜首相을 접견, 환담했다.(사진)

派閥·人氣發言 없도록
全대통령, 民正議員에 강조

民正黨총재인全斗煥대통령은 6일『앞으로 極限대립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 黑白대립은 정치사회에서 膜을내려야하며 과거의 정당처럼 파벌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民正黨소속의원 다과를 베풀고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순방성과와 아울러 다가 오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대수롭지 않은일들을 政治問題化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하며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통해서 인기를 노리는것도 과거정치인의 나쁜 습성이기때문에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고 金瑢泰民正黨 대변인이 전했다.

全대통령은『私心없이 국가발전을위해 헌신한다면 잡음이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인기위주로 政事를하게되면 국가도 없게될것』이라고 강조하고『80년대는 인류의 위기시대이기때문에 정치지도자는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고 내일을 깊이 생각해야한다』고 밝혔다.

1週만에 44億4千萬원
獨立기념관募金 목표5백억원의 9%

汎국민적으로 벌어지고있는 獨立紀念館건립誠金은 募金개시한지 1주일만인 7일정오현재 모두 44억4천6백30만원이 募金된것으로 集計됐다.

이는 최종목표액 5백억원의 9%에해당되는액수이다.

李振羲문공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8월31일부터 시작된 독립기념관 민족금의모금상황을 이같이 보고하고 『각부처에서도 계속 관심을가지고 적극 협조해줄것』을 요청했다.

阿洲·加순방 歡迎 리셉션

全斗煥대통령은 7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중앙청중앙홀에서 열린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방문 귀국 歡迎宴에 참석,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환영연에는 3府요인, 政黨등 각계대표, 駐韓외교사절등 7백여명이 참석했다.

社會漫評

이렇게 할수도 없고…

地平線

강한 투지와 무쇠주먹으로 작은 巨人이라 불리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金泰式이 링에서 얻어맞아 腦硬膜下血腫으로 한때 위독했으나 수술경과가 좋아 회복세에 있다고 하니 불행중 다행이다. 하나 再起慾에 치우친 무리한 對戰부터가 문제였다는 후문이나 심판의 판정시비, 링사고등 뒷맛이 좀 쓰다.▼관객들에겐 스포츠레저에 그치지만 권투를하는 당사자들로선 생명의 위험까지 겪을수밖에없는 것이 권투다. 작은 거인의투지…하니깐 생각나는것은 영국의 플라이급 지미·와일드이다. 악착같은 투지의 복서로 시합을 7백번이나 치렀고 체중이 자기몸의 두배나 되는 선수를 꺾어 1916년에 세계선수권을 차지했다. 98번 KO승에 88번 연승의기록을 세웠으니 대단한 선수인데 지금도 살아 있다.▼또 권투가 얼마나 격렬한 운동인가를 말해주는 에피소드도 있다. 19세기때엔 맨손으로 권투경기를 곧잘 가졌다. 1887년 미들급 타이틀전은 법률로 금지되어있던 관계로 장소를 조용한바닷가에 마련해서 아침일찍부터 시합을 벌였는데 밀물이 들어와 무릎위로 물이 차오르자 링을 섬 깊숙이 옮겨 49라운드까지 시합을 계속시켰었다. 결과는 조니·레이건의 트레이너가 타월을던져 자크·뎀프시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다.▼나중에 알려졌지만 金泰式은 최근2년간 시합의 후유증으로 3번이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턱뼈에 금이 간 적도있고 두통증세와 현기증으로 입원했던 사람을 링에 다시서게한것이 무리였다는 평들이다. 필리핀의 바라바가 지난5월 서울에와서 권투경기끝에 뇌손상으로 사망한지 넉달밖에 안되는데 이번의경우 과연 건강진단을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시합의 판정을 잘못했다하여 심판자격을 정지당한 일은 프로권투계를 위하는 입장에서 깊이 반성돼야할 일이다.▼프로복싱의 사고율은 4%, 세계적으로 약 3백명이 지금까지 시합중 죽은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는 미국서만 한해 5∼6천이나 되는 모양이다. 우리둘레에서도 프로권투가 성행하는 만큼 선수들의 링사고는 남의 일만 같지 않다. 앞으로 프로권투에 로보트선수, 컴퓨터게임도 등장할 날이 오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생명의 존엄을 생각해서 권투시합에 조그만 위험이라도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執行委法案 승인
필리핀議會 대통령權限잠정引受 可能케

【마닐라=聯合】필리핀의회는 7일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경우 대통령권한을 정부의 집행위원회가 이양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잠정 승인했다.

의회대변인은 집권 신사회운동당이 제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법률안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공식방문길에 오르기전인 오는10일 공식채택될 것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기구로 발족된 이집행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와 각료등 10명의위원(정원15명)으로 구성돼 있다.

中共, 1人統治 금지
12全대회, 새黨憲 채택
個人崇拜 배격… 集團지도制로

【北京AP·UPI=聯合】중공은 6일 속개된 제12기 黨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에서 ▲1人통치금지·집단지도체제 ▲개인숭배금지 ▲부패일소 ▲권력남용척결 ▲중공최고기구로서의 黨중앙위원회의 위확인 ▲黨중앙규율위원회 권한확대 ▲顧問위원회신설 ▲黨주석제폐지·黨總書記制채택 등을 골자로한 10章50條의 黨憲을 채택, 지난 66~76년간 文化革命의 잔재를 청산하고 毛澤東이 행사했던것과 같은 절대권력행사를 제도적으로 봉쇄했다.

12全大會의 대변인인 周魏峙는 이날 人民大會堂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 당내좌파들의 과오를 바로잡은 10章50條의 당헌이 1천5백45명의 대의원들에 의해 채택됐다고 발표하고 대의원들은 또한 당수 胡耀邦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앞으로 5년내로 경제·사회적 기강및 당무처리방식의개선을 촉구한 胡의 연설내용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선출될 총서기가 黨을 이끌게되나 새로운 黨중앙위원회가 胡耀邦을 총서기로 선출할것으로 예상된다.

메아리없는 「IMF對坐」
터론토 世界銀行총회 爭點을 보면
빚더미開途國에 "원조를"
先進國선 "短期高利 차관써라"
국제金融 질서붕괴 危機感에 암울한 분위기

海外경제

6일 캐나다의 터론토에서 개막된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IBRD)37차 연례총회는 예년에 없이 암울한 분위기다.

지난1일 멕시코의 은행국유화조치로 대변되는 국제금융질서의 위기감이 회의장을 짓누르고 있다. 24개 開途國대표들은 총회에 앞서 예비회담을갖고 『선진국들이 開途國에 대한 원조를 늘리지 않는 한 세계금융질서는 붕괴될것』이라고 경고했다. 開途國들은 너나할 것없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있고 파산직전에 이른 멕시코경제는 氷山의 一角에 불과한 것이다.

開途國들의 外債는 81년말현재 4천6백50억달러. 그동안 연평균 6백억달러씩 늘어왔기 때문에 금년말에가서는 5천억달러를 넘어설것으로 예상되고있다. 外債위기는 南美, 東歐에서 특히 심각하다. 멕시코의 外債 8백10억달러는 개도국 최대규모. 브라질의 6백10억달러, 아르헨티나의 4백억달러등 中南美국가의 外債총액만도 전체 外債규모의 절반수준인 2천4백억달러에 이르고있다.

81년말현재 3백30억달러에 이르고있는 우리나라의 外債규모도 결코 적은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무국들이 상환능력을 잃고있다.

멕시코에서 코를 크게다친 서방은행들은 신규차관공여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했으며, 장기저리차관보다는 단기고리차관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려하고있다. 채무국들로서는 빚을 얻어쓰기가 더 어렵게 됐을뿐 아니라 부채의 내용을 惡性化시키고있다.

따라서 이번 IMF총회에서 1백46개회원국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백26개 開途國대표들은 현재그 폭증액을 고집, 개도국들의 요구에 동조하고있다. 그러나 키를 쥐고있는 미국은 IMF가 원조기관이 아니라면서 10~15%의 소폭증액을 고집, 개도국들의 의견을 같이했다.

시티·뱅크등 미국내 7개은행, 東京銀行, 도이치은행, 영국의 로이드은행등 14개은행대표들이 서방의 1백15개채권단은행을 대표하여 미국 맨해턴의 시티·뱅크건물식당에서 지난주 긴급 회동했다.

이들은 채권단은행중 어느 하나라도 자기채권을먼저 빼내려한다면 걷잡을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멕시코가 올해안에 상환해야할 원리금1백억달러의 상환을 3개월연기하기로 합의했으며 멕시코의 外換위기를 돕기위해 10억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IMF는 향후 3년에걸쳐 40억달러를 지원키로했으며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은 긴급차관 18억5천만달러를 제공키로했다.

빚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멕시코경제를 살려놓고봐야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봐주는것은 아니다. 멕시코는 세계제4위의 産油國이다. 아무리 기름시세가 없다고는 하지만 기름은 여전히 좋은 담보물이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開途國들에 이렇다할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들나라가 지금 거의 하나같이 원리금상환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방은행들은 부도의 연쇄반응을 두려워하고있다.

어찌보면 이같은 현상은 서방은행들의 自縄自縛이다. 70년대들어 3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도 70년대 하반기까지만해도 開途國들의 경제성장은 순조로왔고 外債의 원리금상환도 별 탈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79년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있는 선진국의 경기후퇴는 開途國들의 성장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수출부진으로 인한 국제수지적자의 확대, 높은 인플레와 실업률은 선진국경제는 물론 개도국들에 특히 타격이 컸다. 게다가 최근2년간 미국 달러화의 高金利는 開途國들의 外債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멕시코의 경우 高油價시대가 계속되리라는 잘못된 투자판단에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비롯된 것처럼 대부분의 開途國들도 성장욕구가 지나친나머지 과잉투자의 과오를 범해 지금의 外債위기를 맞고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外債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의 문제로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들은 開途國의 자원과 성장잠재력에 큰 담보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고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는 문제와함께 『방만한 경제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도움받기를 기대하지말라』는 선진국의 경고는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을만한 말이다. 【林鍾乾기자】

호르무즈封鎖 不考
이란議會議長 밝혀

【테헤란·런던·바그다드AP=聯合】이란은 自國의 석유 수출이 위협을 받는다면 페르시아만지역에서 『전쟁도 불사』할것이지만 호르무즈해협봉쇄는 계획하고있지 않다고 알리·하셰미·라프산자니 이란국민의회의장이 밝혔다.

美, 對蘇제재검토
波사태 壓力으로

【워싱턴AP=聯合】조지·슐츠 美국무장관은 5일 美정부가 폴란드에 대한 소련의 통제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기위해 현재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對蘇제재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슐츠장관은 이날 소련에 가스관장비를 공급한 이탈리아 국영회사가 美정부에 의해 거래기피회사로 추가 지정된지 몇시간후 CBS·TV의 「페이스·더·네이션」(국민과의 대화) 프로에 출연, 『레이건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이탈리아회사에 대해 취한것과 비슷한 제재정책을 고수할것으로 확신하지만 對蘇가스관 장비공급회사들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 제재조치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할수있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對멕시코 現金원조
西方銀行 중단조치
緊縮채택토록

【터론토UPI=聯合】서방중앙은행들은 멕시코가 새로운 긴축경제계획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기위해 멕시코에 대한 긴급현금원조를 중단했다고 국제통화기금 관계자들이 6일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국제결제은행(BIS)회원인 서방중앙은행들이 멕시코의 경제위기의여파로 정치소요가 일어날지모른다는 우려가 높아가고있는가운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출발 : 금요일 (매주1회)
◎도착 : 수요일 (매주1회)

四海航空

4 SEAS

왕복 $1,074

9월17일부터 판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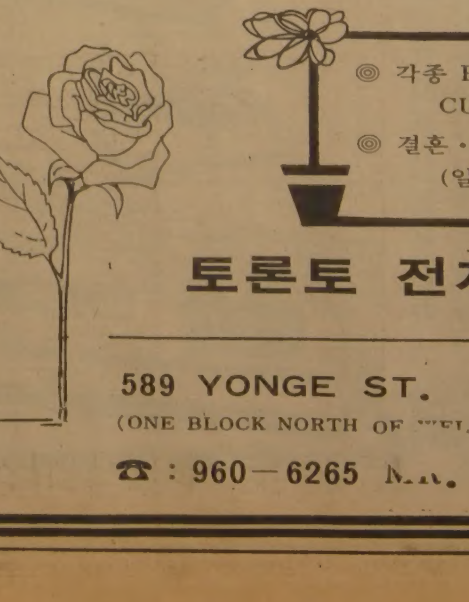
나이아가라 공항에서 출발(매주 금요일)
⊙돌아오실때는 시간제약은 없으나, 수요일을 택해야만 합니다
※( )은 ONE WAY요금이며 토론토를 제외한 지역은 US달라 요금임.

四海機構
FOUR SEAS GROUP

출발지점	대만	홍콩	서울
L. A	639(319)	639(319)	699(369)
샌프란시스코	649(339)	639(329)	699(369)
씨애틀	569(339)	679(359)	699(369)
뉴욕	799(399)	799(399)	499(869)
시카고	839(399)	839(379)	869(499)
토론토(나이아가라 FALLS)	1,074(564)		
	대만·홍콩·서울 요금이 같음		

토론토:596-6755
장거리 무료전화 : 1-800-268-9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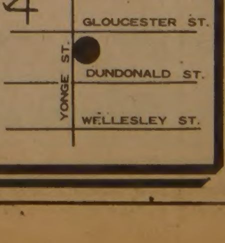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PLANTS, 어랜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장례·생일·파티등 화환전문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 : 960-6265 Mr. 김



武裝폴란드人 대사관(스위스 駐在) 占據

10여명人質…戒嚴해제 요구

오늘上午 時限… 自爆위협

스위스當局 波 요청땐 武力사용

【베른·바르샤바AP·UPI=聯合】「폴란드애국혁명군」으로 자처하는 일단의 무장 폴란드人들이 6일상오8시(한국시간 하오5시) 베른의 스위스주재 폴란드대사관을 점거, 외교관등 약10명을 인질로 잡은채 폴란드계엄해제등을 요구하며 만약 8일상오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되지않을 경우 인질들과함께 자폭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스위스의 ATS통신은 무장괴한들이 6일밤(현지시간) 약10명의 인질가운데 임산부1명을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이날밤 자정직전 대사관밖에 승용차1대가 도착, 대사관건물안에서 나온 한여인을 태우고 떠났다고 전했다.

姙産婦1명은 釋放

스위스방송은 2·3명의 폴란드人들이 대사관을 점거한지 4시간후 대사관에서 총성이 울렸으나 인질중 희생자가 났는지의 여부는 확인할수 없다고 보도했다.

스위스당국자들은 이들의 대사관점거가 장기화할것으로 예상, 무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나 폴란드로부터의 정식요청이 있을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과 전화로 접촉이 이루어진 한폴란드人은 자신을 「지휘관 비소키大領」이라고 밝히면서 『10명이상의 우리동지들은 모두 폴란드人이며 무장하고있다』고 말했는데 한 보도는 이들이 22·6kg의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있으며 그중 적어도 1명은 기관총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법무성의 울리히·후바커대변인은 대사관을 점거한 폴란드人들의 수가 『2명 이상』이라고 추정했으며 경찰소식통들은 『3명인것같다』고 말했다.

후바커대변인은 스위스연방정부위기관리반이 전화를 통해 범인들과 끈질긴 협상을 계속중이라 밝히고 그들의 요구조건은 ▲계엄령해제 ▲폴란드의 모든 정치범및 구금자석방 ▲폴란드 군사정권의 탄압중지 ▲강제수용소 폐쇄등이라고 전했다.

자칭 『비소키대령』이라는 42세의 폴란드人은 자신들의 대사관점거가 활동을 중지당하고있는 폴란드 자유노조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나 폴란드관영 PAP통신은 이른바 『폴란드 애국혁명군』이 자유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폴란드 국내외에 3천명의 대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질중 스위스주재 폴란드 대리대사는 포함돼 있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窓가의 한武裝괴한 폴란드출신의 일단의 무장괴한들이 6일 베른주재 폴란드대사관 건물을 급습, 13명의 인질을 억류한후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한남자가 대사관 창문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베른 6日UPI電送=聯合】

政治·經濟委 구성

아랍頂上회담, 中東평화안등 검토

【리야드·페즈SPA·WAM=聯合】 모로코의 페즈에서 6일 개막된 아랍정상회담기간중 정치위원회와 경제위원회가 각각 구성될것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간되는 알·리야드지가 6일 보도했다.

알·리야드지는 곧구성될정치위원회가 정상회담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우디의 平和案, 하비브·부르기바 튀니지대통령의 제안,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동문제해결안등에 관해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女性界 소식

東南亞서 패션발표 / 服裝기술협회

대한복장기술협회는 12일~17일 홍콩, 臺北, 방콕, 싱가포르에서 83년춘하를위한 남녀복 패션을 보여주는 「83 스타일 한국 첨단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성우, 이홍규씨등의 신사복 35점과 박상숙씨의 여성복 20점이 출품되고 현지의 찬조 출품도 있다.

王亂때 倭軍의「서울地圖」발견

종래의 14種중「最古」… 作戰用으로 쓰인듯

東京 한국연구원 崔書勉원장이 入手

東大門·南大門, 그림으로 表示

南山「나무산」, 북악산을「고무산」으로

1593년 임진왜란중에 일본군이 그린 서울지도가 발견됐다. 이지도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서울 지도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뿐 아니라 외국인의 손에 의해 그려졌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지도는 東京한국연구원 崔書勉원장이 일본서 입수한것으로, 최근 일본에 다녀온 국토개발연구원 金儀遠원장이 사본을 만들어 본사에 이사실을 알려왔다.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 옛서울지도로는 鄭尙驥·鄭敾이 그린 都城大地圖와 四山禁標圖, 首善全圖(奎章閣·작자미상 19세기중엽), 靑邱圖(藏書閣·金正浩 19세기중엽), 大東輿地圖(藏書閣·金正浩 19세기중엽) 등 14종이 있다.

이지도중에서 金正浩의 대동여지도 2점과 鄭敾의 都城大地圖등 3점 이외에는 대개 작자와 연대가 불분명하다.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18세기 중반무렵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것은 正祖때(1777년~1800년) 제작된 것으로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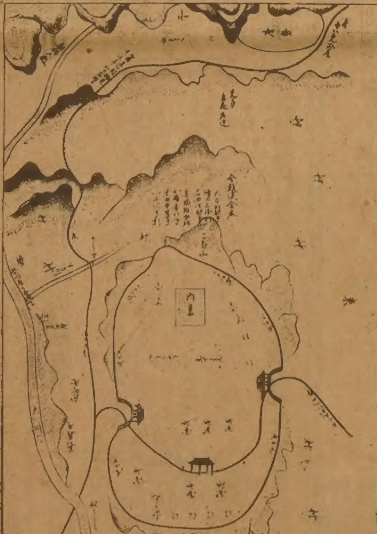
학계에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보는것은 鄭敾의 都城大地圖(서울市史편찬위원회 소장)와 四山禁標圖(서울市史편찬위원회소장)。 이 두 지도는 정확한 제작연대가 정되는 都城地圖(奎章閣)。 그러니까 새로 발견된 지도는 이들 3가지것보다 1백50년~2백년정도 앞서는 셈이된다. 그러나 이지도는 서울성안팎의 중요 지형지물과 일본군진지및 明軍과 朝鮮軍의 위치를 그려넣은것이어서 본격적인 지도라기보다는 작전지도로 보아야할듯.

이 지도는 임진왜란 당시 왜장 가또(加藤光泰) 휘하에 있었던 다까끼(高木貞友)라는 왜병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을때인 1593년1월26일 전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본 기후(岐阜)縣에사는 다까끼의 후손들이 보관해 왔었다.

붓으로 그린 이 지도에는 서울성내를 중심으로 景福宮을 「內裏」라 표기했으며 동대문·남대문·보신각은 그림으로 표시했고 성내의 길은 종로만을 그려넣었다. 동대문을 벗어난 길은 「오랑캐에의 길」이라 표기, 咸鏡道방면으로 가는 길임을 밝혔고 남대문을 벗어나 서남쪽으로 그린 길에는 「부산에의 길」이라 표시했다. 또 남대문을 벗어나 성곽을 왼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그린 길에는 「唐·平安에의 길」이라 써 넣었고 漢江을 「大川」이라 표시한뒤 하류쪽에 「이강·黑田長政·小早川隆景등 왜장들의 이름을 써넣었으며 唐海로 흐름」이라 써넣었다.

서해를 「唐海」라 한것이다. 또 섬 남쪽의 남산은 「나무산」, 북쪽의 북악산은 「고무산」이라 표기했으며, 성내의 마을은 「町屋」이라 했고 성밖의 마을은 「村」이라 표기해놓았다.

북악산 너머에는 「合戰幾…」이라 쓰고 그 옆에 大合衆部少·增田右衛門·石田治部少·生駒雅樂頭·加藤遠江守등을 그 위에 先手(선봉) 立花左近이라 적어놓았다. 그리고 그 옷무분 오른쪽에는 「唐勢」라 써 明軍의 위치를, 왼쪽에는 「朝鮮人數」라 써 朝鮮軍의 위치를 각각 기록했다. 유명한 碧蹄館싸움(1593년1월26일)을 전후한 양 진영의 대치상황을 그린듯 하다는 것이 金儀遠국토개발원장의 견해이다.



◇임진왜란때 일본군이 그린 서울지도。 성곽(타원형) 안에 경복궁(직사각형)를 그리고 동대문·남대문·종각은 그림으로 표시했으며 종로를 구불구불 그렸다。 왼쪽의 띠모양이 한강이고 북악산을 「고무산」이라 표기했다。

◇19세기 중엽 金正浩가 그린 大東輿地圖。 서울장안(가운데 원형)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漢江, 북으로는 三角山, 서로 鹽倉, 동으로 中梁(中浪)浦까지 포함되었다。 북악산은 白岳, 남산은 木覓山으로표시돼있다。

이지도를 본 임진왜란사 연구가인 許善道교수(國民大문과대학장·국사학)는 『벽제관싸움 작전의 대치상황을 그린것같다』며 金山·咸鏡道·平安道방면으로 가는길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지리파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리학자 李燦교수(서울大)는 『동대문·남대문·보신각을 그림으로 표시한것등 때문에 본격지도로보기는 어려우나 북악산을 「고무산」이라한것이 이채롭다』고 말했다. 李교수는 「고무산」에대해 당시 서울에서 북악산을 「곰산」으로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북악산을 「곰산」「熊山」등으로 불렀다는 기록이 없어 이문제는 앞으로 연구의 과제가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사편찬위원회 朴慶龍위원은 기록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북악산의 옛이름은 「白岳山」이며, 「拱極山」「面岳山」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熊」字가 들어가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文昌宰기자】

이軍 베이루트 南部 진입

헝가리·南예멘大使館점거

베이루트 외곽에 주둔중이던 이스라엘군이 6일 2천명의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이 레바논 민병대원들과함께 아직 베이루트 남부의 진지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몰아낸다는 구실을 내세워 휴전선을 넘어 베이루트 남부에 진입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목격자들은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남부베이루트의 이나지역에 진입, 아무런 저항도 받지않은채 그곳의 레바논주재 헝가리및 南예멘대사관을 점거했다고 전했다. 【베이루트AP=聯合】

對蘇 가스管禁輸 美재무, 再考용의

도널드·리건美재무장관은 6일 미국의 對蘇가스관건설장비수출금지조처를 무시하고 가스관자재의 對蘇판매를 강행한 西유럽국가들이 분쟁을 해결할방법을 마련할경우 美행정부는 말썽많은 對蘇금수조처를 재고할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리건장관은 이날 터론토에서 개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합동연차총회에 앞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리건장관의 이같은발언은 美행정부가 가스관금수조처에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전환할지모른다는 최초의 시사이다. 【터론토=AP】

外信안테나

西獨도 敎科書왜곡

美휠링大 렌敎授

서독의 새로운 역사교과서에는 나치정권의 유태인대학살을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美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대학의 월터·렌교수가 밝혔다. 렌교수는 오는83년에 간행될 서독의 역사교과서가 유태인대학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검토한결과, 종전보다 상당히 개선되기는했으나 아직도 유태인대학살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이를 옹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휠링(美)=UPI】

左翼동정 농민 3백명殺害

엘살바도르 산·빈센트지방

엘살바도르정부군은 최근 산·빈센트 지방에서 벌인 작전에서 좌익 게릴라에 동정적인 3백여명의 비무장농민을 살해했다고 현장에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말했다. 【산살바도르=AP】

테헤란 自動車폭발

6명死亡·60명負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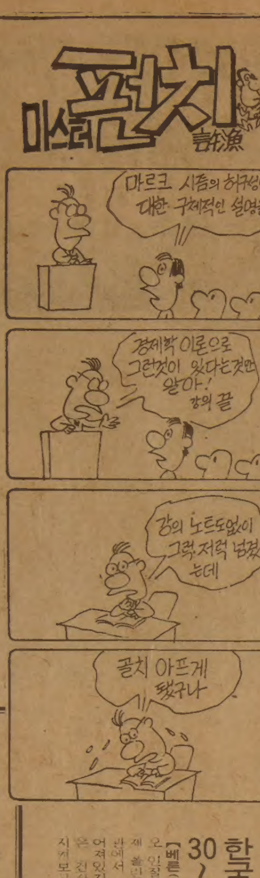
이란의 수도 테헤란번화가인 가이한街에서 6일 하오 폭탄이 장치된 자동차1대가 폭발, 6명이 사망하고 약60명이 부상했다고 이란내무성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사망자는 모두 행인들이라고 말했다. 【테헤란=AP】

말聯등 東南亞순방 아라파트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은 말레이지아가 PLO를 오랫동안 계속 지원해준데대해 사의를 표명하기위해 말레이지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PLO의 한지도자인 아마드·알·파라가 6일 밝혔다. 【콸라룸푸르=聯合】

한국大使館서 30~40m거리

【베른(스위스)=聯合】 6일상오 인질극이 발생한 베른주재 폴란드대사관은 한국대사관에서 불과 수십m밖에 떨어져있지않아 한국외교관들은 긴장속에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蘇에 유학생 보낼듯

中共, 20年만에 처음… 關係개선조짐

【東京=聯合】 중공은 20년만에 처음으로 소련에 유학생을 파견할 준비를 시작했다고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北京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北京대학에서 최근 발표한 대학원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입시는 소련또는 동구권 유학생 시험을 겸한다」고 명기돼 있음이 밝혀졌다고 전하고 이는 12全大會에서 밝힌 胡耀邦주석의 「對蘇관계정상화가능성」과 직접 관계되는 구체적인 움직임의 하나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중공은 지난 60년대초까지만해도 수천명의 유학생을 소련에 유학시켜 왔으나 중·소대립이 격화된 시기 62년 모든 유학생을 귀국시킨후 현재까지 對蘇유학을 전면 중단시켜 왔었다.

크렘린에 權力鬪爭

【모스크바AP·UPI=聯合】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75)의 12월은퇴설에 뒤이어 영국주간지 선데이·익스프레스는 5일 크렘린내에서 권력투쟁이 시작됐으며 선두주자는 前KGB(소련 비밀경찰)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중앙위원회서기인 유리·안드로포프(68)라고 보도했다.

최근 사망한 미하일·수슬로프의 뒤를이어 당최고이론가로 부상한 안드로포프는 당초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주목되던 콘스탄틴·체르넨코를 제치고 소련의 차기실권자로 유력시돼왔는데 KGB를 떠난이후 권력승계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한편 최근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이번 브레즈네프사임설의진원도 그일지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광고문의 533·2361

메아리

百里길

현대생활에서는 距離가 즉 時間이다. 두 지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자를 들고 재 보아서 몇m가 아니라, 실제 가보아서 몇분 걸리느냐로 나타낸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몇분 걸린다고 할 때의 감각이다.

그같은 距離=時間의 척도로하면, K군은 1백릿길을 통학한다. 같은 서울에서, 한高校學群안의 통학거리가 그렇다.

K군네 학교는 아침 8시40분에 수업을 시작한다. 그전 1시간은 자습시간이다. 상학시간이 7시40분인 셈이다.

K군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1시간20분이 걸린다. 단순계산으로 6시20분에 집을 나서면 된다. 그러나 이시간 버스는 몹시 붐빈다. 그보다는 6시쯤 떠나 버스 자리를 잡고 1시간쯤 아침잠을 보충하는것이 낫다.

그러자니, K군 어머니는 새벽5시에 일어난다. 예습·복습에 숙제까지 겹쳐, 자정지나 잠이든 K군은 눈을뜨자 마자 소반을 먹는둥 마는둥 달려나간다. 왕복버스 안에서 눈을 붙이지 않으면 도자란 잠을 보충할 길이 없다. 틈이 날적마다, K군은 어디서나 꾸벅꾸벅 존다.

K군은 지금 高1이다. 지난봄 고교진학때는 명문사립교에 배정이 되었다고 온 가족이 좋아 했는데 이모양이 되었다.

이런 사태는 K군이 越境입학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학교배정 컴퓨터가 실수를 한것은 물론 아니다. 城北區長位洞의 K군집에서 학교까지는 정확히 3·6km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리 정확하냐고? 택시·미터로 測定하니 그렇더란 얘기다. 그러나 엎디면 코가 닿을 이 距離를 버스가 한 시간걸려 달린다. 距離=時間척도로 40km는 될것이다.

미아리 고개를 넘는 K군의 통교길은 온통 지하철 4호선 공사장이다. 그리 넓지 않은 길을 몽땅 파헤쳤기 때문에 소형차량은 숫제 통행금지―. 노선버스만이 복공판 위를 비집고 다니지만, 찻길이 그렇게 더디다. 꼬리에 꼬리를 문 버스가 매연만 뿜어대는 굼벵이처럼 나아가지를 못한다.

마침 K군의 아버지가 친구라서 이런 푸념을 들었다. 그때는 서울시내 84군데에 지하철 공사장이 있는데, 거기라고―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고는 나도 놀랐다. 그나마 지하철 공사를 않는 구간은 전화공사를 한답시고 길바닥을 파헤쳐 차가 더욱 밀린다.

2년뒤에야 지하철 공사가 끝난다는데, 이래가지고야 아들놈 大入준비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라던 친구의 말에 수긍이 간다.

이같은 푸념을 옮겨서, 올림픽을 앞둔 서울의 지하철 공사를 나무라자는것은 물론아니다. 공사는 서둘러 해야한다.

그러나 매연과 먼지가 뽀얀 길거리에서 생각한 것은 이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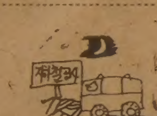
우리 행정의 한특징은, 名分만 있으면, 무작정 밀어 붙이는 것이다. 그에서 오는 서민들의 고통은 잠시 잊는다.

그 名分은 언제나 全體 또는 앞날의 이익이다. 그를 위해서 部分은 오늘의 불이익을 참아야 한다. 하지만, 名分은 어디까지나 名分이기 때문에, 마냥 그이익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그를 위해서 서민이겪는 고통과 견주어 요량하는 일이 없는듯이 보인다. 「大我小我論」의 가장흔한 盲點이 이것이다.

지하철 얘기로 돌아가보면, 지하철 1km당 土工費가, 개착식이면 1백억원, 터널식이면 1백10억원이 든다. 문제는 이 차액 10억원이 개착식 공사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상쇄하고 남겠느냐는 것이다. K군의 통학로는, 그에 대한 바른계산없이 공법을 결정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그런 지하철 공사장이 여기 뿐일까. 행정의 다른 구석에는 그런데가 더 없을까.

하긴 지금와서의 지하철공법논의는 뒷공론이나 다름 없다. 서울시로서 달리 보완할 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 아닌줄은 서울시도알아 주었으면 한다. 그런줄을 아는 서울시라면, 지하철 공사에 겹쳐 전화공사를 하도록 路面굴착을 허가하지는 않았을 테요, 섣부른 택시料金倂算制따위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공 82년 경로잔치 고

벌써 가을입니다.
본 한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어버이님들을 모시고 82년 경로잔치를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교민께서는 적극적인 후원을 바라오며, 더욱 물심양면으로 돕고자 하시는 분은 한인회 오간사(755—928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 9월25일 오후1시
장소 : 오리엔탈 팔레스
출연 : 서울 훼밀리 악단
민요가수—박청자, 가야금
장고등 특별출연.

주관 : 토론토 한인회
후원 : 총영사관
노년회
토론토 교역자협회
외환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KOTRA
실업인협회
캐나다한인총연합부인회
코리아타운 번영회
무역인협회
체육회 캐나다지부
88년 올림픽후원회
승공문화협회
동우회
호남 향우회
영남 향우회
한인신용조합

토론토 한인회장 박 인 순

日의 노오, 한국의 굿 영향받아

뉴욕 「세계 演劇과 祭儀」 심포지엄서 지적

美國의 뉴욕에서 열린 世界演劇과 祭儀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굿이 실연되어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또 일본의 노오(能)가 한국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웨너·그렌(Wenner Gren)財團 주최로 지난 8월23일부터 31일까지 9일동안 뉴욕市70번街에 있는 아시아회관에서 열렸는데, 아시아·유럽·아프리카·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등 세계전지역의문화를 조명해보려는 거시적이고도 야심적인 행사였다. 심포지엄의 진행방법은 한 지역의 전통적인 연극이나 祭儀를 먼저 무대위에서 실연하고난 다음에, 그 연기자와 학자들이 질의응답을 한후, 해당분야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의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과 일본·인도가 참가하고, 유럽지역에서는 헝가리·프랑스·벨기에, 아프리카지역에서 세네갈·북아메리카지역에서 캐나다와 미국, 남아메리카지역에서 브라질이 참가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 실연된 연극이나 제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한국의 굿, 일본의 노오(能), 인도의구티야탐(Kutiyattam)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세네갈의 요르바·드라머 (yoruba. drama)'남미지역에서 브라질의 움반다(umbanda)'북미지역에서는 미국 흑인의가스펠(Gospel)과 현대연극의 공간활용 방법 등이 각각 실연되었다.

8월 23일 하오8시에 이 심포지엄의 개막의식으로 한국의 굿이 실연되었다. 문명의 첨단을 달리는 뉴욕의 번화가 한복판, 아시아회관 8층 국제회의장에서 '재수굿'이 벌어졌다.

이 자리는 바로 東西文明, 특히 원시문명과 현대문명이 만나는 세기적 문명의 교차시가 되었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서방학자들의 푸른 눈동자가 바삐 움직이면서 비디오 카메라가 무당의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좇아갔다. 서방 학자들은 말로만 듣고 책에서나 읽던 샤먼이 바로 눈 앞에서 현실로나타나 굿을 하고있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듯한 표정들이었다. 굿이 끝나자 우리나라무당들은 「무감」(굿판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 참석자들에 무복을 입혀서 무당과함께 춤을추는것)을 했다. 서방학자들은 어느새 일제히 무복을 입고 굿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시작했다. 굿판은 문자그대로삽시간에 서양굿판이 되어버렸다. 몸을 비틀며 춤을 추는 사람, 악을 쓰며 춤을 추는 사람, 그런춤으로 굿판은 밤 11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문명의 탈을 벗고 참으로 수세기 만에 자연으로 돌아가 神과 만나는 신바람이 났었다.

◇한국 샤머니즘이 가장 부각되었던 뉴욕 「세계연극과제의」 심포지엄。한국무당과 세계학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춤을추고 있다。

여러 나라의 전통적인 연극이나 祭儀가 있는데도 한국의 굿이 특히 개막 축제로 선정부각된 데에는 다음과같은 이유가 있다.

한국의 굿이 갖는 광란적인 춤과 巫樂, 그리고 자유세계에서 북방 샤머니즘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있는 文化的가치등 巫俗의 중요성을 미국의 학자들과 이 행사의주최측에인식시킨현지美브루클린大學 연극학과 테레사·킴(金基子)교수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굿을 맡아서한 한국의 무당은 金錦花, 尹貞花, 서금옥3인이었다.

다음날은 印度의 구티야탐이 공연되고, 여기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구티야탐은 1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無言聖劇으로 본잡이 쾌화려했다. 이 구티야탐에도 서방의 학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들어갔다.

토의과정에서 구티야탐이 현대 無言劇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것이 논의되었다. 세째날은 日本의 노오가 공연되고 그공연을중심으로 토론이 있었다.

학자들은 노오의 神聖性을 들어 한국의 샤머니즘과 비교 논의했다. 한국굿의 춤과 음악이 일본노오보다는 빠른편인데 이런 굿 원래의 宗教性이 탈화되면서 儀禮化하여 일본의 노오로 정착되어 藝能化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주로 많이 제시됐다. 한국무당이 굿할때의 발떼임과 노오의 步行이 비슷한것이 그 근거로 지적되자 日本의 노오기능보유자 다까바야시 (高林)가 이를 인정했다.

노오의기반이 佛教라는서양학자의견해가 발표되자 李杜鉉교수가 샤머니즘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학자도 李교수의주장에 수긍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동양의전통연극과 祭儀가 깊은 관심속에서 거론되었는데 특히한국의 샤머니즘에관한 토론이 있을적마다 일일이 예증자료로 인용비교되어 어떻게보면

재수굿에 西方학자들 큰관심…巫服입고 춤도

한국샤머니즘 일색으로 진행된듯한 인상까지 들정도였다.

한국의 학자로는 李杜鉉교수 (演劇)와 필자 (祭儀측) 가 참가하였고 발표된 논문은 李교수의 「무당의原本的意味와 機能」, 「굿의 原本的 意味와 機能」, 「무당의 宗教·社會的 역할」등 3편이다. 미국의 인류학자들은 필자의 논문중에서 「思考의 原本」인 Arche-pattern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다. 앨런·로맥스와함께 과거 10여년동안 미국인류학계 지도급학자의 위치를 지켜온 빅터·터너 (버지니아大學) 교수는 동양에 그와 같은 이론이 있느냐면서 그것을 大이론이라고 했다. 회의가 끝나 헤어질때까지 틈만있으면 터너교수부부가 와서 Arche-pattern에 대한 이론체계, 접근방법, 활용된 자료등에 관해 자세히 물으면서 상세히 노트했다. 또 어떤 인류학자들은 내 이론체계가 M·엘리아드나 융의原型(Arcretype)과 어떻게 다른가 물어가면서 그차이점에 깊은관심을 갖기도 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무엇이든 서양의 방법과 이론을 통해서 보아야만 학문다운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통례처럼 되어있는데, 막상 그 본고장의 하나인 미국에 가보니 사정이 달랐다.

인류학자와 연극학자들이 모인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요지는, 인간의 생활 자체가 「사회적 연극」이라는 것과, 현대연극이 특별한 무대공간을 계속해서 필요로 할것이냐는 것에 대한 찬반의논의가 계속되면서 연극학이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는 「演劇人類學」이라는 요지였다.

미국의 인류학계와 연극학계는 그동안 印度·中國·日本에 대한 연구로 많은 자료를 모았는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경희대국문과교수·민속학】 金泰坤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4>

모자람과 넘침

그림 鄭駿溶

포만감 排泄하려는 찡찡거림이 苦惱인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었다. 시모기타자와(下北澤)공원에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꽉 들어차 있었고, 울창한 수풀이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 주었다. 숨막히는 매머드 도시의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운치 좋은 공원들을 도오꾜 시내 곳곳에서 만날수가 있었다.

지도리가후치에서 후루야마씨 (古山高麗雄)와 재회했다. 재작년에 서울에서 처음 만난 뒤로 오랜만에 가져 보는 반가운 대화였다.

후루야마씨는 아꾸다가와 (芥川) 상 수상자이며 일본문단의중진이다. 그는 일어판 문예지인 「韓國文藝」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일제강점시기에 신의주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국에서 중·고교 교육까지 받았다. 그의 이름만 보아도 그가 한국하고 맺은 인연이 어떤것인지를 짐작할수 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소년처럼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있는 후루야마씨는 겉보기엔 아주 숫접고 여린 성격에 섬세한 감각의 소유자만으로 보이나 옳지 못한 일엔 강경 발언도 서슴지 않는 정열적인 일면도 동시에 갖추고있다. 「諸君!」이란 잡지에 실린 「교과서문제를 어떻게생각하는가?」의 특집에 들어있는 그의글을 나는 보았다.

나는 후루야마씨와 함께 지도리가후치를 거닐며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한국하고 맺어 온 인연을 토대로 하여 한국관을 피력했으며, 그동안 부단히 전해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한국문학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진지하게 밝혔다.

나는 지도리가후치 안에 전몰자 위령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가족들과 함께 혹은 동료들끼리 공원에 놀러왔다가 군국주의의 한 상징물인 제단앞에 경건히 참배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는 착잡한 기분을 느꼈다. 내 바로 곁에는 군국주의에 참혹하게 희생당한 한국을 가장 따뜻한 이해의 눈길로 바라보는 후루야마 씨가 서 있었다.

도오꾜신문 출판국의 초청을받아 긴자(銀座)의 음식점에서 저녁을 들면서 간담회를가졌다. 영리를 떠난 순수한 동기로 내 작품집을 거푸 두권(「長雨」와 「黃昏의 집」)이나 출판하여 일본하고 처음인연을 맺게해준 곳이 도오꾜신문이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의 내용은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벗어나 먼 장래까지 염두에 두는것들이었다.

「週刊文春」의 무라다(村田耕二) 편집장을 만난 것은 방중이었다. 일본을 옮긴이는 최고 지성의 한 사람인 그는 우리말을곧잘했다.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느냐고 묻자 한국인 가정교사를 두고 배웠노라면서 그는 당시의에피소드를 밝혔다.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최초의 한국말입니다. 가정교사가 발음이 완전할때까지 자꾸만 그 말을 되풀이 훈련시키는 바람에 아주 혼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교사는 그때 자기 애인한테 실연을 당해 있었더군요. 나쁜선생 같으니, 헛헛헛…」

우리는 한일관계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장차 진정한 선린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인가를 이야기했다.

「나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40%밖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40%의 애정만 꾸준히 유지될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결혼이라고 말할수 있읍니다. 나머지 60%는 서로서로의 노력으로써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미래의 몫으로 아껴두고 너무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목표를 달성하려다가는 무리가생기고 그부작용이 커집니다. 양국의 서민들끼리 직접 만나서 오랜시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수 있을만큼 분위기가 성숙해졌을 그때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지낼수가 있지요」

무라다씨의 솔직한 견해는 내 귀에 긴 여운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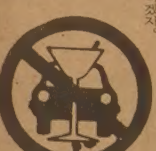
이튿날은 때마침 일요일이라서 도오꾜의 명물중하나인 하라쥬꾸(原宿)의 보행자천국을 구경하러 나갔다. 이른바 죽순족(竹筍族)을 보기 위해서였다. 미숙한 상태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 한다. 아무리 생리적 연령이 많은 어른일지라도 하라쥬꾸에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면 영락없이 정신적 연령이 낮은 죽순족으로 낙착되는 셈이다.

차량통행이 차단되는 하오 1시 훨씬 이전부터 하라쥬꾸는 인파로 메워 터질지경이었다. 나는 미리 가서 대기하는 동안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별의별 해괴한 모습의 젊은이들이 떼를 지어 물결처럼 휘쓸려 다녔다. 시원한 반나의 아가씨, 머리를 땋아 뒤통수에 길게 늘어뜨린청년, 모호크 인디언 스타일로 도깃날 모양의 머리털만 정수리에 피톡 얹은채 나머지는 면도로 빡빡 밀어버린 청년, 두송이의 커다란 붉은장미로 머리와 가슴에다 장식 힘을준 앳된 소녀, 열쇠꾸러미와 가위, 드라이버 따위 쇠붙이들을 번쩍거리는 비닐옷에다 장식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껄렁껄렁 쳇소리를 내며 인파속을 헤집는 사춘기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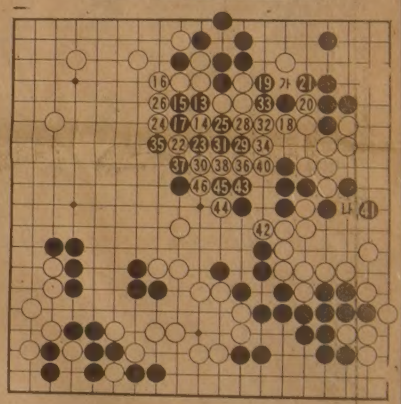
장갑차 모양의 미니버스가 거리를 질주하면서 스피커를 통하여 무척이나 격렬한 구호를 토해냈다. 일본 애국당의 캠페인이었다. 반소, 반중공, 교과서 수정 결사반대를 적은 애국당의 포스터들이 거리에서 수없이 눈에 띄었다. 광막한 국수주의자들의 애국심이란 대관절 어디만큼에서이성의 제동장치를 발견할수 있을까.

모자란다는 것도 문제지만 남아도는것은 더욱큰 문제일지도 모른다.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의富를 누리는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의 고민은 자기네인생에 너무 고민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짜배기 고민들만 겪어 나온 한국인의 눈에는 그들이 측은해 보일 지경이었다. 포만감을 배설하려는 찡찡거림이 진짜 고뇌의 몸부림일수는없다. 그것은 사람답게 살려는 몸부림하고 엄연히 구별되어야마땅하다고본다.

만약 죽순족을 우려하는반작용으로 자식세대를 군대식 집단조직의 구성원처럼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일본을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에 TV에서 나어린 소녀가 러시아워의 혼잡한 한가운데 서서 큰소리로 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부끄러움을 없애고 배짱을 기르기 위해서란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어찌 어린애일 수가 있고 인간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번의 교과서소동하고도 맥락이 닿는 어른들의 발상이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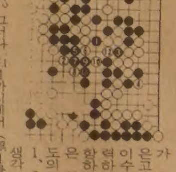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10譜 (1~146)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洪6단은 도무지 바둑이 풀리지않는다. 우하귀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으나 역전까지는 바라볼수가없다. 이러하여 黑13은 최후의 승부수였다. 그러나 盧7단은 이에대한 대책을 얻고있었다. 白14, 16의 맥점과 18, 20의 안전운행이 바로 그것이다. 黑23 때 白24로는 25자리를잇고 24의「가」에 끊는수를 맞볼수도 있었는데 우선 24, 26으로 기분좋게 조여붙이며 기세를 올렸다. 이근처 결과야 어떻든간에 속단할로 신나는 장면이다. 흑黑은 싸울수록 괴롭다. 흑히 黑29가 얄궂은 고비. 이 수로 강력하게 대항하려면 黑은 참고도의 黑1, 3이 생각된다. 그러나 白4까지에서 (黑4를 선착하게 되면 白이 죽는다) 黑5로 공격해도 白6이하 12로 살아나는 수가 있어서 잘 안된다. 또 黑35로는 36자리에 두어 白「나」때 黑37이면 온건하지만 도저히 5집반 덤을 낼수가 없다.



黑, 장렬한 玉碎

따라서 黑41은 일종의 옥쇄수단. 白42이하 46을 당하자 싹싹하게 돌을거두었다. 27, 39…이음. 【一凡】

한국일보 詩壇

合唱
(일본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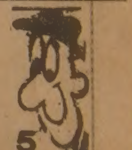
李青和

그밤
짐승스런 손으로 이 땅의 꿈꾸는 알몸
들을 처참히도 할퀴더니
이제와 그 피 엉긴 얼굴들을 장미꽃이
라고 보는 너의 눈은 무엇이냐.

그밤
별들도 소름이 돋아 구름 속으로 숨던
그밤
이 땅의 江山을 묶고, 하늘을 묶고, 마
지막 말(言)과 精神까지도 묶던 그 殺
氣어린 오랏줄, 그 오랏줄로 비단 목도
리를 만들어 한껏 멋을 내는 너의 모가지
는 또 무엇이냐.

감출 수 있으랴
결코 사람의 추억처럼 아름다울 수 없
는 그때 그밤의 기억에는
저 미미한 한 알의 모래마저 몸서리를
치는 이 땅인데! 이 땅인데!
네 무슨 마술인들 그 긴긴 발톱을 다
감출 수 있으랴.

보아라
그때 잿묵이 된 차돌과 무쇠는 다시
더 굳고 굳은 金剛石이 되어 빛나고 있음
을.
이제는 어느 기름불도, 철퇴도 한낱 부
질없는 유리 조각이 될 뿐이어늘
네 어찌 넋아 빠진 나막신을 신고 또
한 번 그밤으로 돌아가랴 하는가.


구독신청은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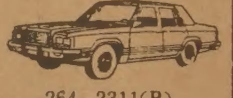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 537－3104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순 평양식 모밀냉면
TRADE MARK
JEAIL NAING MYON
제일냉면
BUCKWHEAT NOODLES
INGREDIENTS.
Buckwheat flour, wheat flour, corn starch, water, salt.
COOKING DIRECTIONS
1. Put buckwheat noodles into boiling water and boil about three minutes.
2. Remove from heat and rinse 1 or 2 times with cold water, then drain.
조 리 법
1. 적당량의 끓는물에 본 냉면을 넣어 약 3분간 더 끓인다.
2. 끓인 냉면을 찬물에 1～2번 잘 헹군다.
NET WT. 1 LB(453g)
(Yield: 3-4 servings.)
PRODUCT OF CANADA

순평양식 모밀냉면

(카나다에서 직접생산 판매중)

본 냉면은 순 모밀로 만들어져 그 구수한 맛은 다른 어떤 냉면과도 비교 할수 없을 것입니다.
모밀냉면 애호가여러분들의 많은 애용있으시기 바랍니다.

※시내 각 한국식품점에서 판매되고 있읍니다.

O & K TRADING CO.
238 Woodsworth Rd. Will. Ont. M2L 2[illegible] ([illegible] × 웨스리)

낮털이 強盜소행 추정

尹양行跡에 의문…周邊수사

校長부인 被殺사건

속보=서울道峰區水踰5洞 교장부인 崔玉珠씨(49)집강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낮털이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큰것으로보고 水踰洞일대의우범자및동일수법전과자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펴는한편 사건 당시 崔씨와 함께 있던 수양딸 尹成淑양(23)의 진술과행적에도 의문점이 있어 尹양의 주변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있다.

경찰이 이사건을 금품을 목적으로한 단순 낮털이의소행으로 보는것은▲崔씨집이 인적이드문 주택가 골목안에 있어 뜨내기낮털이의 범행대상이 되기쉬운점▲尹양이 목격한 범인과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20대청년이 사건발생직전 崔씨집일대를 배회하는것이 목격됐고▲범인이 털어간 피해품이 카메라2대반지목걸이등모두1백여만원에달하는점등 때문이다.

한편경찰은▲尹양이최근5년동안 전혀내왕이없다가갑자기 나타난점▲尹양의 상처가 숨진 崔씨에비해 전치2주가량으로 가벼운점▲의식을 잃은체하고 쓰러져있었다는 진술에비해서는 범행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목격했고 또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점▲尹양의 그간의 행적이불분명하고 자신의 주변에대해 입을 다물고있는점등을 들어 尹양의 행적과 주변인물에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있다.

尹양은 지난2일 상경해 서울城北區下月谷2洞의 이모 金모씨(38)집에 있으면서 부산에서 사귄 남자관계를 털어놓으며 자주 우는등 고민해온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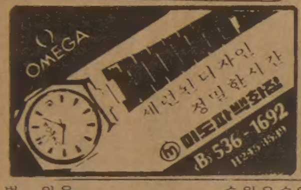
경찰은 이에따라 尹양의연고지 부산에 형사들을 보내 尹양의행적과 3년전부터 최근까지 동거해온 裵모씨(28)의 사건당일 행적에 대해 수사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현장 정밀감식결과 崔씨집뒤뜰에서 부엌으로통하는문의손잡이가 부서져있는것을 발견하고 범인이 崔씨집담을뛰어넘어 부엌문을 통해 침입하려다 문이 안에서 잠겨있자 열려있던 현관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안방 장롱과 건넌방양장에서 일제캐논카메라2대, 악어지갑에든 현금2~3만원, 자수정·백수정·산호·인조진주반지등 반지4개·인조보석목걸이8개·루비넥타이핀 1개등 1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간것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이 당초용의자로 지목했던 숨진崔씨의 친척이며 전과자인 文모씨(28)와 간자장2그릇을 배달했던 중국집종업원 許모군(18)등2명은 알리바이가입증돼 혐의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수사를 지휘하고있는 서울시경은 현장감식단계에서부터 감식반원과 수사간부외의 사람의 현장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비디오카메라까지 동원해 사건현장을 수록하는등 본격적인현장보존과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瑞山서도 3명숨져

擬似뇌염 앓아… 郡內 환자40명

【瑞山】충남瑞山내에서 의사뇌염증세로앓아오던 3명이숨졌다。

7일 군보건소에따르면 국모양(8)과 최모양(16)등 2명이 지난1일 고열에 구토를 일으키는등의 사뇌염증세를 보여 瑞山도립병원에 입원,가료중 지난3일 각각 숨졌으며 김모군(7)도 같은증세로 지난달28일 같은병원에 입원,가료중 지난5일 숨졌다는것。

이로써 瑞山군내에서는 이날 현재 모두 43명의 의사뇌염환자가발생,이중3명이숨지고40명이앓고있다。【聯】

淸州서도 1명사망

【淸州】지난1일 의사뇌염증세를 보여 충남대 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이던 전모양(15)이 6일밤 11시께숨졌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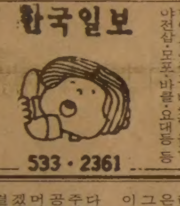
類似 軍需品단속

국방부, 물통·바클·야전삽등 대상

국방부는 7일 군수품및 유사군수품의 제조및 판매행위를 일제히 단속키로했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내무·법무·상공부·관세청등 5개부처 합동으로 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를 구성,오는22일까지를 계몽 자진반납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이 지나면 유사군수품을 제조·판매업소는 물론 개인이 착용소지하고있는 유사군수품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단속자는 색상과 외형이 군수품과 비슷한 물통·야전삽·모포·바클·요대등등 산장비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자진반납기간중 관계기관(헌병대·경찰관서)에 반납하는 품목에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馬山서 陵발견

가야時代 王陵추정

【馬山】경남馬山市合城洞合城고려고분군에서 왕릉으로보이는 대규모의 능1개가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끌고있다.

6일하오 마산대 사학과학술조사단(단장 박동백·마산대박물관장·45)에의해 合城고려고분군이 있는 지점 맞은편의 해발30m 야산능선 숲속에서 발견된 이능은 직경25m, 높이 3m의 큰능으로 가야시대 馬山昌原지방에 도읍지를 정했던 골포국의 왕릉인 것으로 추정되고있다.【聯】

國債보상 영수증

大邱서 처음發見

【大邱】日帝의 침략이 시작될무렵 大邱를 중심으로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의 헌금영수증이 처음발견돼 大邱시는 이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하는한편 선열공원의 기념탑에도 새겨넣을계획이다.

이 영수증은 7일 이운동의 발기인중 한사람이었던 故金允蘭씨의 손자 金溶씨(45·大邱시東區新岩洞131의6)집에서 발견됐는데 액면 1백원에 光武2월21일자로 발행된 것이다.

이 영수증은 당시 大邱에서 徐相敦·金光濟·金允蘭(일명 炳淳)등이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기로 발기하고 1907년2월21일 이 운동의 추진체로 民議所를 설치한날 모금된 5백원중 金允蘭이 제3호로낸 섬금에 대한것。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조선에대한 강제차관 1천5백만원을 미끼로 우리나라를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할때 이빚을 갚기위해 大邱의 유지들이 발기한 헌금운동으로 거족적인 호응을 얻어 高宗도 담배를 끊고 헌금하기도 했다。【聯】

書店街에 日本소설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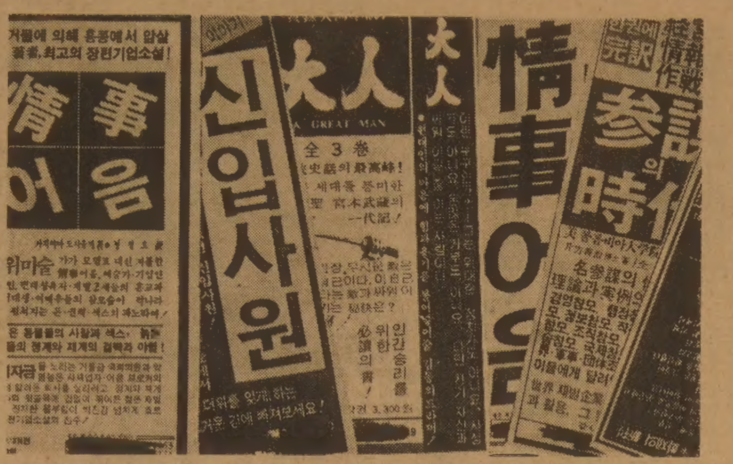
거의가 3流 通俗物… 中毒현상 빚어

日本역사 美化한 戰爭物도

煽情的…젊은층 好奇心자극

歷史歪曲보다 무서운「정신歪曲」우려

불황인 서점가에서 일본소설이 계속 베스트 셀러다. 선뜻이해가 가지않는 현상이다. 수준이 높은 학문서적이나 순수문학이라면 혹 몰라도 일본의 3류 통속소설이 잘팔리고 있는것이다. 이 소설류중에는 심하게말해 일본역사나 2차대전의 식민침탈을 미화, 장본인인 일본인들을 영웅화한것까지 있고, 이미이를 선호하는 중독현상이 우리독서계에깊이침투해있는 실정이다. 일제로 부터 나라를 되찾은지 반세기가 가까운데 아직도 정신문화에 막대한영향을 미치는 출판물이 이처럼 왜색에 젖어있는데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일본의 역사왜곡 보다도 더 무서운 「정신왜곡」의 계속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저질 「倭色문화」를 그대로 담고있는 번역출판물들의 광고。자라나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일본 정신문화의 찌꺼기를 옮겨 줄지도 모를 우려를 갖게한다.

이같은 현실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은 문화권인데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소설류를 손쉽게입수,번역 출판할수있기때문에 빚어지는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값싼번역료로 하루나 이틀사이에 벼락치기로 출간할수있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저작권 협회에 가입이돼있지않은 것을 이용,해적판을 출간해도 아무런 클레임을 받지않기때문에 출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는것이다.

또 영리에만 급급한 일부 출판사와 이들 출판사로부터 무더기로 쏟아져나오는 책들을 거리낌없이 무정견, 무비판하게받아들이는 독서문화풍토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된다.

한출판전문가에 의하면 지난81년 한햇동안 우리나라에서 모두 5천9백95만4천여부의 도서류가 출판됐는데이중의 3분의1정도가 번역서이고 번역서의 대부분이 일본출판물이란 것。

최근 서점가에서 꾸준히팔리고있는 책들도 거의전부가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내용을 일본국내에서도 3류통속 소설로 꼽히는 것들이다。

「여자가 바다를 느낄때」는 원작자가 18세소녀로 여자의 성적성장과정을 심리적으로 묘사했으나 그표현이지나치게 적나라해 낯뜨거울정도다。또 「늦여름의 연인들」「아침 또 아침」「꽃뱀의외출」등도 모두 같은류。

鍾路2街의 J서점의 한관계자는『이들 책을 사가는사람이 대부분 30대안의 젊은이들』이라면서『글 내용이 진하고 우리의 윤리의식과는 다른 일본적풍토,윤리에대한 파괴에 호기심을갖고 이책들을 구입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또 光化門의 K문고의 경우 최근「신입사원」과「유혹의 나날」이란 책이 잘 팔리고 있는데 저자 가와가미 소오군(川上宗薰)은 일본의 대표적인 음란소설작가。

이밖에도 서점가에서 전집류로 꾸준히 팔리고있는것은 豊臣秀吉·德川家康을 주인공으로 일본전국시대를그린 역사소설「대망」등과 태평양전쟁을 그린「2차대전」「일노전쟁」등의 전쟁물, 일본전통의 무사도(사무라이)를 그린「미야모도 무사시」와「大人」등 무협소설류。

이들 책은 대부분 은연중 일본역사를 미화하거나 주인공들을 영웅화 한것으로 책을읽고나면 한국에 직·간접으로 피해를 줬던 일본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결과를 낳는다。

또 최근에는 회사경영과 섹스를 적당히 믹스한「××경영」집등이 번역 출판계에 붐을 이루고있다。

이에대해 과거 일본문화를 경험한 50대이상의 장년들은 일본서적을봐도 일본을 어느정도 알고있기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을 거의 모르고 자란 젊은이들사이에 일본출판물에 접하는 사람이 늘어나 젊은이들의 정신문화에 왜색이 알게 모르게 침투될우려가 크다고 지적。

일본 번역물에대한 나름대로의 규제가있어야 할것이라고 입을모으고있다。

작가 朴泰洵씨는『일본의 작품들이 감상적이고 어휘의 표현등이 감칠맛이있으며 미세한부분까지 재미있게 꾸며져 우선 읽기에는 좋다。그러나 정신문화의 맥이 전혀 다른 우리가 아무런 비판의 구석없이 일본물을 그대로 번역해 출판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문화의 찌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것과 같으므로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물론 우리의많은 독서인구를 수용하지못한 작가들도 이번기회에 반성해야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젊은 작가의 한사람은『출판인들이 문화적 공공성을 외면한다면 출판인자신들이 담연히 책장사로밖에 전락해버리는 과오를 저지르는것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짓일뿐이다』고 출판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李鍾九기자】

埋立工事싸고 收賂

認可청탁받은 全南道廳공무원 拘束

【光州】전남도경수사과는7일 공유수면 매립공사준공인가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남도청 농림국 농지과직원 申鉉福씨(37)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珍島군청 건설과 직원 曺모씨(35)등 관계공무원 4~5명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申씨는 珍島郡郡內面 珍友농산주식회사(대표 俞光老)가 지난78년 시공,81년6월에 준공한 珍島郡郡內面德柄지구 4백4ha의 공유수면매립공사 과정에서 동회사 총무 金大淳씨로부터 준공인가를 빨리해달라는 부탁을받고 지난해3월27일 현금5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공사기간동안 6회에 걸쳐 1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聯】

語學교육 注入式탈피

문교부「初中高校 교수학습」改善키로

문교부는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중 국어와 영어과목의 교수및 평가방법을 현재의주입식교육과 객관식평가에서 듣기,말하기,쓰기등의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바꾸기로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주요골자로한 「초·중·고교교수학습방법및 평가방법의 개선책」을 마련,7일 열린 전국시도교위 학습지도관계 장학관및 연구관회의에서 시달했다。

이 개선책의내용을보면 초·중·고교의 국어 과학(자연)체육 음악 미술및 영어과의 교수 학습방법및 평가방법을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을 지양하고 ▲이론중심및 지식위주에서 실험실습 실기중심으로 전환하며 ▲창의력과 사고력및 탐구능력을 배양해 응용력을 발휘할수있도록하고 ▲지식편중의 평가에서 다양한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고루 터득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한편 문교부는 올해부터 매년1회씩 전국 초·중·고교의 학년,학급,학교,시도교위별등 4단계 수학경시대회를 열기로했다。

이는 학생들의 수학에대한 학습의욕과 흥미를 길러 장차 우수한 수학자및 과학자가 되도록해 수학및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해서이다。

화물선海氷號침몰

東支那海서…승무원 모두 救助

【東京】東支那海上을 항해중이던 한국화물선 海氷號(3천7백80톤)가 6일하오 침몰했으나 승무원27명은 모두 구조됐다。

일본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울산을떠나 필리핀으로 항해중이던 海氷號는 6일상오9시15분께 오끼나와(沖繩)縣부근 2백km해상에서 갑자기 침수하기시작, 구조를 요청해왔다。

구조요청을 받은 제11관구해상보안본부(那覇소재)는 순시선과 비행기를 급파했다。고무보트로 부근해상을 표류중이던 승무원27명전원은 부근을 항해중이던 화물선에 의해 구조됐다。그러나 海氷號는 하오1시20분께 침몰하고말았다。이해상보안본부는 승무원들로부터 사고경위를 청취하고 있으나 침수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않다。【聯】

教課능력별 班편성

道內5個校에 확대

慶北教委

【大邱】경북도교위는 지금까지 安東高와길원여고등 2개교에 한해 시험운영해온「교과능력별」반편성 운영을 2학기부터 도내5개교에 확대실시하기로했다。

7일 도교위에따르면 지난1년반동안 실험연구한 결과 각학생의 과목별 능력에따라 반을편성해 운영하는것이 학습지도에 효율적이라는 결론을얻고 이번 학기부터 安東高·길원여고·金泉중앙고는 1학년을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安東여고는 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국어등 3개과목을 실시하며 大邱시내의 大邱高도 이방식을 채택키로했다。

도교위는 내년부터 적용학교를 더늘릴계획이다。【聯】

麗水 햅쌀출하로

一般米값 내림세

【麗水】요즘 전남 麗水시내에 햅쌀이 출하되면서부터 일반미값이 내림세를 보이고있다。

7일 麗水시내 양곡상들에 따르면 지난8월 하순까지 80kg들이 일반미 1가마에 7만5천원하던 것이 9월에 들면서부터 1가마에 2~3천원이 떨어져 7만2~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는것。

麗水市館門洞 K미곡상주인 金모씨(51)는 이같이 일반미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것은 햅쌀이 출하되기 시작한데다가 지난달 하순께 값이 싸고 질이좋은 정부미 60kg들이(가마당 2만9천4백원)가 대량으로 방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堤川 우회도로着工

4億들여 年內완공

【堤川】충북堤川지방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우회도로가 올해안으로 개통을 보게됐다。

7일 堤川市에 따르면 오는10일께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건설중인 堤川시 花山洞제1로터리부터 東峴洞까지 1천1백m의 도로개설과 2천2백m의 하수도시설을 연내로 완공키로했다는것。

공사가 끝나면 그동안 堤川시내 중심가를 통해 堤川~丹陽간을 운행하던 시멘트수송용 대형트럭등 각종 화물트럭들을 이 우회도로로 운행하게해 폭주되어오던 堤川시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된다。

고스톱과 뇌물

「눈먼 돈」뿌리친 金永鎔순경

서울江南경찰서 金永鎔순경(39·사진)은 얼마전 상관의 꾸지람을 받았다。『보고를 태만히 했다』는게 그 이유였다。하나 꾸짖는 목소리에「격려의 뜻」이 담아져 있었고 金순경의 얼굴위로 멋쩍어하는 웃음이 흘렀다。무슨 꾸지람 이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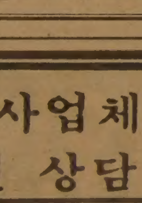
金순경은 지난1일 상오11시께도박신고를 받고 江南區三成洞AID아파트를 급습했다。洪모여인(39)등 3명이 판돈20만원짜리 고스톱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을 연행하려는 순간 洪씨가 옆방으로 이끌고가더니 현금10만원과 수표등 50만원을 내밀며『사무실에간 남편이 알면 끝장이니 봐달라』고 애원했다。두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다。金순경은 아무말없이 그돈을 洪씨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이 타일렀다。

『아주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주머니가 저에게 돈을 건네주려하면 죄가 더욱 커집니다。뇌물공여죄가 되는거지요。그러나 아주머니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하지는않겠습니다。대신 모든일을 돈으로해결할수있다는 생각일랑 이순간부터 버리십시오』

세여인은 金순경의 타이름에 고개를 숙였고 경찰서까지 순순히 동행했다。

"돈이면 다 된다는 風潮 한심"



金순경은 약속대로 뇌물공여부분은 없었던것으로하고 도박죄로만불구속입건했다。

분명히 그는 뇌물공여죄로 세여인을 처리하지 않았으니 직무를 유기한셈이 되었다。

金순경의 이같은 업무처리태도는 함께 현장에 갔던 동료에의해 경찰서내에서 소문이 났다。

물론 동료는 그를 요샛말로「密告」한것이 아니었다。자신의 책임아래 탄력성있게 법을집행하는 자세에 감동을 받고 의도적으로「宣傳」을 한셈이었던것。상관은 일단 金순경을불러 보고 태만을 나무랐고 그는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뒤돌아서는 金순경의 어깨를 상관은 두들겨주고있었다。

경찰관은 정말 힘든 직무이다。그는 현장에서 홀로 결정하고 홀로 집행하고 홀로 책임을지는 고독한 공무원인 것이다。

16년동안 순경으로 일해온 그는 3년전에야 겨우겨우 장만한 15평짜리 아파트가 전재산인 서민공무원。1남3녀의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한달 한달이 엄게넘어 가지지않는 가난속에서 산다。

그러나 그는「눈먼돈」을 원치는 않는다。【韓基泰기자】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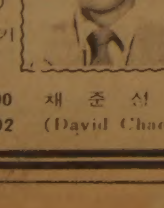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워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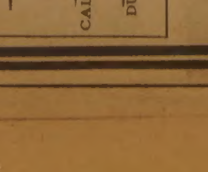
전화 (B) (416)497 8900 채 준 석
(R) (416)633 7892 (David Cha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September 7 - September 18		SPECIAL
Dare Peg Top Candy	12x1.29	$ 9.60
Allen's Fruit Slice Pops	48x10¢	3.16
McCormick's Marshmallow Brooms	24x30	4.69
Cadbury Reg. Chocolate Bar	36x40	9.99
Cadbury Thick Chocolate Bar	36x55	13.75
Hershey Reg. Chocolate Bar	36x40	8.49
Rowntree Reg. Chocolate Bar	36x40	9.99
Neilson Reg. Chocolate Bar	36x40	9.99
Lowney's Reg. Chocolate Bar	36x40	9.99
Life Saver's Candy	24x30	4.55
Bubble Yum	18x30	3.00
Mo Jo	400x2 for .5¢	5.59
Gobstoppers	24x25	3.95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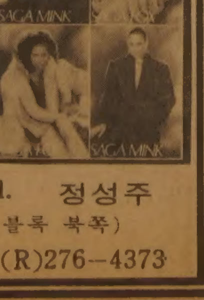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UP TO 40

저렴한 가격 40% 까지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사원들은 내가 사기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아량이 없다는거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바로 그 말 때문에 자넨 해고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210>

미리 온 아이 ⑬

그렇게 나간 일환이는 그날 밤 돌아오지않았다。아이를 무참하게 욕보인 일환이에 대한 앙심때문에 하룻밤쯤 그를 안보는 게 차라리 편했다。

그러나 일환이는 그 다음날도, 다음 다음날도 돌아오지 않았다。아기를 혼자 기르는 게 나을것 같은 생각은 여지없이 흔들렸다。그가 아기를 팔삭동이라고 매일 구박한다고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illegible] 일환이가 돌아오지 [illegible] 한달 가까이 [illegible] 오목이 [illegible]

자가 더 [illegible] 일환이가, 나는 [illegible] 주인과 인척 남자가 [illegible] 일환이의 행방을 먼저 수소문해 낸 것도 안집여자였다。수소문한 데도 없었다。일환이는 여전히 보일러가게에 잘 다니고 있다니 집에만 일부러 안들어오는 모양이었다。그것을 알아낸 안집 여자는 더욱 노발대발했다。

「아아니、이것들이 이제 보니 연놈이 짜고 우릴 골탕 먹이려는 속셈아냐? 너희가 정 이렇게 못되게 나오면 우리라고 생각 없을까? 계집하고 새끼만 남겨놓으면 우리가 못끌어낼 줄 알지만 흥 사람 잘못 봤어。」

이런 막말로 하루도 안거르고 성화를 댔다。방을 안내주려고 계획적으로 남자가 몸을 피한 걸로 짐작한 모양이다。

그런 북새통에도 아기는 젖 잘 먹고 조금씩 사람 꼴이 박히기 시작했다。얼굴의 주름이 퍼지고 황달기가 가시면서 제법 고운 혈색이 돌고 아무렇게나 놓였던 이목구비가 제 자리를 잡고 또렷해졌다。

아기의 얼굴이 사람다와지면서 아울러 개성이 뚜렷해지는걸 오목이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아직 아이는 누구를 닮았다고도 할수 없었다。왠지 앞으로도 그럴 것같았다。깨지기 쉬운 알처럼 두루뭉수리로 애매할 적과는 달리 아이는 어딘지 고집스러워 보였다。벌써부터 나는 나일수밖에 없다는 다부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오목이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지난생을 스친 어떤 한부분에 대해 간절히 애착했다고 해도 그게 아이의 생김새와 관계가 있는건 아니었다。

씻기거나 배 불리 먹여 놓은 아이가 [illegible] 잠들면 그녀와 아기 사이엔 아름다운 크리스탈(晶)이 낮게 드리워졌다。[illegible] 갇힌 황홀한 크리스탈 [illegible]。

그렇게 되면 [illegible] 벌레들이 [illegible] 기는 소리조차 [illegible] 행복한 날의 그정결한 시간을 [illegible] 흔들던 감미로운 바이얼린의 선율처럼 울렸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등을 사이에 두고 그윽하게 마주보던 인재의 얼굴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만나도 못 알아볼 것처럼。

그녀가 즐겨 환각하는 건 인재의 얼굴이 아니라 지난날의 어느 순간 그녀의 몸을 빌어 지나간 행복이었다。그 [illegible] 없이 짧은 행복은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그녀는 다만 몸을빌려주었을 뿐이었다。악귀(惡鬼)나 악령이 아닌、떠도는 행복이 잠시 그녀의 몸을빌어 머물렀을뿐이었다。다시 그 행복을 불러들일 주문(呪文)을 그녀는 알지못했다。

그녀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것일뿐 인재가 아니었다。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부도덕하다는 생각이 없었다。그녀는 자신의 몸을 빌어 지나간 행복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몸을 빌어 태어난 아가에 대한 애착을 [illegible] 혼동했다。

◇해변의 美女 미스아메리카 선발대회에 하와이州대표로 참가한 게일 토머스양이 뉴저지주 아틀랜틱시티의 한해변을따라 조깅을즐기고있다。【아틀랜틱시티(뉴저지州) 6日AP=聯合】

海外토픽

개와日人출입금지

★홍콩곳곳에 나붙어

옛날 중국 상해시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사이에서는「개와 중국인은 상종치말라」는 말이 유행했으나 현재 홍콩거리에는「개와 일본인 출입금지」라는 간판이 곳곳에 나붙어 있다고。홍콩의 주요상거래지역에 있는 전기부품상이 이같은 반일간판을 내걸자 홍콩의 주요일간지가 이를 표지사진으로 게재、최근 일본의 교과서왜곡사실에 대한 홍콩주민들의 노골적인 반응을 명백히 했다는것。또한 몇몇 택시운전사들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승차거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홍콩=[illegible]】

마르코스、딸擁護

★이제어른 생활결정 權利

페르디난드·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은 지난해 토미·마노톡이라는 스포츠맨과 비밀결혼식을 올려 갖가지 풍문을 자아냈던 자신의 딸 이메양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할 권리를 갖게됐다고 옹호하면서 그녀는 언론의 표적이 아니라고 주장。

마르코스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메양은 필리핀대학에서 법학공부를 계속하기위해 일부 공직을 사임했으나 중요직책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마닐라=AP】

레이건夫妻 선물

★英윌리엄 황세손에게

레이건 미국 대통령부처는 얼마전 찰즈 영국황태자 부부사이에 태어난 윌리엄 황세손에게 영국의 왕위계승자에 대한 미국의 공식선물로서 고급의자를 선물했다고 백악관이 6일 발표。

높이64㎝의 화려한 치펀데일풍의 이 의자는 낸시여사가 손수 고른것으로 지난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 버킹검궁에 전달됐는데 관세만 7백50달러(약 55만원) 였다는것。【워싱턴=UPI】

日、우산끝 무디게

★치명적인武器化 방지책

강력한 범죄예방책으로 권총소지를 금지하고있는 일본은 이번에는 우산을 유사시에 치명적인 무기가되지못하게했다고。일본 우산제조업자협회와 경찰은 최근 東京에서 일어난 운전기사들간의 살인사건에서 우산이 살해도구로 사용된점을 감안、이에대한 예방책으로 치명적인 우산끝을 무디게하기로 결정했다는것。【東京=AP】

자유중국「勝戰鼓」고장

◇홈인…홈인… 自由中國—日本대전。2회초 중전적안타로 진루한 自由中國의 4번 趙士強(左)이 5번 陽介人의 보내기 번트로 3루에 진출, 6번 江泰權의 라이트 희생플라이로 홈인、선제점을 올리고있다

異變…뼈아픈2失策 日에 역전패 2:3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전승팀이없는 혼란과 이변속에 대회 4일째를 맞았다。2연승으로 단독선두를 달리던 自由中國은 7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日本과의 경기에서 역투하던 에이스 郭泰源이 8회말 연속3안타를 얻어맞고 포수 [illegible]과 중견수 陽介人의 뼈아픈 2실책으로 2―3으로 역전패당했다。

和蘭、伊에 12·11 신승

한편 네덜란드는 서울운동장 경기서 이탈리아를 연장 10회말 3번 우르바너스의 결승 솔로 홈런으로 12―11로 신승했다。

이로써 한국·自由中國·日本·네덜란드가 각각 2승1패로 공동선두로 나섰으며 이탈리아가 2승2패로 중위그룹을 이루고 있다。

◇제4일전적

◆서울운 <10회연장>

이탈리아	208	000	001	0	—	11
네덜란드	201	020	303	1	—	12

▲홈런=로마노(4회·이탈리아) 우르바너스(1회·2점·10회·네덜란드) ▲안타=이탈리아 9—14 네덜란드

◆잠실구장

자유중국	010	010	000	—	2
일 본	000	001	02X	—	3

▲안타=자유중국 5—8 일본

중간 성적

팀	승	패
한 국	2	1
미 국	1	2
일 본	2	1
도미니카	1	1
파나마	1	1
자유중국	2	1
이탈리아	2	2
호 주	0	2
캐나다	1	2
네덜란드	2	1

鐵壁…한국守備

中盤戰세계야구 우승高地 눈앞에 보인다

최소失點에 최고의防禦率

攻擊선 약간"흔들" 美·加에도 뒤져

한국야구 첫우승의 꿈이걸린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는 7일로 대회중반의 고비에 접어들었다。

첫판에서 복병 이탈리아에게 고배를 들었던 한국은 강적 美國과 네덜란드를 연파하고 7일 팀을 재정비、대망의 우승고지점령에 대비하고 있다。

1패의 부담을 안고있기때문에 앞으로 남은 6게임이 하나하나 우승과 직결되는중요한 게임이다。

한국팀이 예상하고있는 최대고비는 8일 벌어질 自由中國과의 대전。

최종일인 14일 日本과의 폐막전도 결승이나 다름없이중요한 경기다。

한국은 3게임을마친 현재 팀타율 3할2리、팀방어율 1·08、득점 14점、실점 3점을 기록하고 있다。공격에서는 도미니카、自由中國、캐나다、美國보다 뒤지는 5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수비면에서는 최소실점 최고의방어율 무실책으로 호조를보이고 있다。

베스트나인중에서도 신예 韓大化가 5할의 팀최고타율로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張孝祚、李海昌、金在博、趙城玉、李碩揆등 6명이 3할이상의 좋은 타격을 보이고있다。

美·日·한국 3파전으로 전망하던 일반의 예상을뒤엎고 自由中國은 뜻밖에 폭발적인 타격으로 정상을 노리고있다。쾌조의 2연승을 거두며 단독선두를 질주하고있는 自由中國은 팀타율3할4푼8리、팀방어율 4·50으로 [illegible] 승부를 결정하고있다。

선두타자 林華章는 5할、4번趙士強은 5할5푼6리、江泰權과 [illegible]은 6할의타율로 공포의 타선을 이루고 있다。

수비에서는 다소 뒤떨어져 실책4、실점11、방어율4·50을 기록。

日本은 두게임을마친 현재 팀타율2할5푼4리、팀방어율 2·12를 기록、예상보다 저조하다。그러나 선두타자 고바야시는3할3푼3리、하위타자인 7번 미야자끼는 경이적인 8할의타율을마크、日本의 저력을 보이고있다。

日本역시 한국과비슷한 스타일로 착실한수비에 바탕을 두고있어 한국에게는 까다로운 상대다。

한국이 대적할 또하나의 어려운상대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도미니카。도미니카는 두게임에서 3할6푼1리로 최고의 팀타율、20점의 최고득점을 마크했다。반면 실책 3개、실점 11、방어율 5·29로 수비에서는 수준이하。

뜻밖에 돌풍을 일으키고있는 이탈리아는 한국·日本을 눌러 2승1패를 기록、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3게임에서 5득점、5실점、타율2할1푼3리、방어율 1·44、실책6개를 기록、실력보다는 행운으로 2승을 올린셈이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파리니·로마노등 위력적인 속구와 변화구를 구사하는 투수진과 타율 3할의 구기아나、4할의 오리지등으로 찬스를 놓치지않는 결정력을가졌다。【方錫崎기자】

◇팀중간성적 (6일현재)

팀	게임	득점	실점	타수	안타	홈런	타점	타율	실책	방어율
自由中國	2	19	11	69	24	3	18	·348	4	4·50
한 국	3	14	3	96	29	2	12	·302	0	1·08
이탈리아	3	4	5	89	19	1	4	·213	6	1·44
日 本	2	9	4	63	16	0	9	·254	2	2·12
파나마	2	8	8	70	19	0	6	·271	2	5·00
도미니카	2	20	11	72	26	4	18	·361	3	5·29
네덜란드	2	6	16	55	14	0	5	·255	4	7·88
캐나다	3	20	35	112	36	3	19	·321	5	10·80
美 國	3	15	7	99	30	2	12	·303	4	2·25
濠 洲	2	5	21	57	12	1	4	·210	9	6·60

헤비級 趙容徹우승

유도선수권大會

제21회 전국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겸 美國오픈유도선수권대회 파견선발전이 7일 1백97명이 출전한가운데 여의도 유도회관에서 열려각체급우승자를 가려냈다。이날 헤비급준결승전서 柔道大의 趙容徹은 韓榮吉(한양대)을 누루기 한판으로 제압한 후 결승서도 安永振(쌍룡)을 누루기 한판으로제압、우승했다。

한편 하프헤비급서 고교신예 白長基(비봉고)는 1회전서 李炳鉉(쌍룡)、2회전서 具滋龍(비봉고)을 각각 눌러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노 인 들

온타리오주 재산세 보조신청

온타리오세금보조금은 65세이상 주민이부담한 도시세금, 학교및 물품소비세및 가장 난방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가구당 최고 $500 까지 주는 세금보조금은 1년에 두번 지급된다.

81년도 신청서에 따른 82년도 제1기분은 지난봄에 지급됐다.

수입성은

수입성은 세금보조금신청서를 각 해당자에 발송했다. 해당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 반송해 주어야 혜택을 받는다.

82년 1기분을 받은 사람은 신청서를 배달받는다.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서를 정확히 기입하고 다시 검토해서 틀림이 없도록해야 수입성이 빨리 처리, 수표를보냄. 특히 다음에 유의할것.

● 한해 전체의 세금
● 신청서에 반드시 서명할 것.
● 결혼상태나 주소가 바뀌었으면 해당란에 기입할 것.

수입성은 11월초 부터 정기적으로 세금 보조금 수표를 발송한다.

주의사항

●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못 받은 유자격자는 수입성에 연락할 것.
● 금년7월~12월 사이에 65세가 되는자는 83년 초에 신청서를받는다.
● 82년도에 만65세가 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도분 전액을 받는다.
● 82년도중 온타리오주로 이사했으면 이사한 날자를 따져 지급받는다.
● 연방정부의 노년연금(OLD AGE SECURITY)혜택자는 아니더라도 주정부 보조금 유자격자라면 신청서를 받는다.

양로원이나 요양원같은 세금면제 주거지에 사는 자는 세금보조를 받지 못한다. 만일 82년중 세금면제 주거지로 입주했으면 날자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비세(세일즈·택스)보조

12월3일 수입성은 $50씩의 소비세 보조금을 노인들에게 보낸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여러나라 말로 답변해줌)

● 토론토 965－8470
● 국번 807번 지역 교환양을 불러 지너스 8－2000요청
● 기타지역 1－800－268－7121

편지 보낼곳 : Ontario Tax Grants for Seniors, Ministry of Revenue, Guaranteed Income and Tax Credit Branch, Queen's Park, Toronto, Ontario M7A 2B3.

Ontario Ministry of Revenue
George Ashe Minister
T.M. Russell Deputy Minister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平生교육」制度化한다

政府,「社會敎育法案」정기國會 제출

大學·매스컴 參與의무
私設학원·도서관등도 開放

모든 국민이 평생을통해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받는것을 뒷받침해주기위한 사회교육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6일「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교육을 국가적으로 조정하고 균형 발전시킬수 있는 조정기구의 신설 ▲전문요원의 양성과 배치 ▲대학등 각급학교의 사회교육참여의무화 ▲사설학원·도서관등의 사회교육시설로서의 인정등을 골자로한 사회교육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문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쳐 확정한 사회교육법안은 전문10조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총칙과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전문요원 ③사회교육시설 ④학교및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⑤부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요 골자별로 보면 국가적으로 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위해 문교부에「사회교육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의효율적인 실시를위해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사회교육 협의회」를 설치, 산하사회교육기관을 적절히 통제감독케 한다.

또한 학교안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시켜 대학을 의무적으로 해당지역의 사회교육에 참여케하고 초·중·고등학교는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입시계학원, 어문및 교양학원 등 모든사설학원과 국·공·사립도서관·박물관등의 시설을 교육기관 (사회교육)으로 인정, 교육기관에 상응한 운영을 하게한다는것.

이에따라 종전 영리를목적으로하던 사설학원들은 상법상의 법인체가아닌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에 적합한 각종 세제상의 특혜와 아울러 종사자에대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했다.

또 모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전문요원의 양성과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경비를 보조해야하며 산하기관의 단체또는 시설·사업장에도 국민들에게 평생을통해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적극 장려하는것을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일정한 규모(대통령령에의해규정) 이상의 사회교육단체또는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 진행과 기획·분석등 지도업무를전담하는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두고 전문요원의 지위와신분은 법에의해보장토록했다.

이법안은 또 모든 학교의 도서관과 박물관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없는한 사회교육을위해 개방해야하고 신문방송·잡지등 대중매체는 운영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그매체를통해 사회교육에 기여토록 규정하고있다.

이법안은 각시·도교육위원회는 사회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민정신 교양에 필요한 일정범위의 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도록 그시정을 명할수있고 이를 이행치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처한다는 것이다. 【李鍾九기자】

民正議員에 茶菓會 全大統領

民正黨총재인 全斗煥 대통령은 6일하오 청와대綠地園에서 民正黨소속 국회의원들을 위해 다과를 베풀고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巡訪결과등에 관해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載灐 대표위원등 民正黨소속전의원과 간부등 1백44명이 참석했다.

◇ 全斗煥대통령이 民正黨소속의원들을 청와대綠地園으로 초치, 다과를 베풀며 환담하고있다. 바른쪽 두번째부터 李載灐 대표위원, 王相殷중앙위의장, 權翊鉉사무총장.

阿洲건설진출 적극支援

정부次元서 2백억弗시장개척

정부는 해외건설수출의 확대와 시장다변화를위해 앞으로 아프리카 각국에대한 초청외교와 시장분석 건설공사受注활동을 더욱 강화하는한편 관련업계에대한 강력한행정지도및 각종지원책을 마련중이다.

6일 건설부는 全대통령의 아프리카순방을 계기로 對아프리카 건설분야 진출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우선 이번순방때 합의한 각국 건설사업에 한국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부터 정부차원에서 적극지원, 매듭짓기로 했다.

건설부는 아프리카지역과의 건설외교강화를위해 1차로 이번 순방4개국의 건설관계장관을 연내에 한국에 초청키로하고 내년에는 나이지리아 20명을비롯, 가봉 세네갈 케냐등에서 10명씩 모두 50명의 기술자를 한국에 초청, 3개월간 무상으로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통령순방을 계기로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부자新수도건설사업을 비롯해서 도로공사등 13건에 21억달러규모 ▲케냐는 케냐사범대학 신축공사 (2천만달러) ▲가봉은 트란스가보네 횡단철도 3공구공사 (8억달러) 및 오웬도항만확장공사 (2억2천만달러)등과 ▲세네갈의 10억달러규모 하천유역개발사업등 모두 41억달러규모공사에 한국업체가 참여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었다.

中共主席폐지 總書記로

黨·국가構造개편… 鄧小平체제 구축

【北京AP特約=本社】 중공당주석 胡耀邦은 5일 공개된 연설에서 중공이 올가을부터 대대적인 당·국가구조개편에 착수하며 뒤이어 4년간에 걸쳐 지방各省의 毛澤東주의자들을 숙청하고 3천9백만전당원들의 재등록과 일부 노령당원들에 대한 강제은퇴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胡는 또 그가 현재 맡고있는 당주석직이 소련식에 따라 당을 조직하게 될 앞으로의 대대적 당구조개편작업과정에서 폐지, 총서기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胡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1일의 중공당 제12기 전국대표대회 (12全大會) 개막일에 나온 것이나 5일에서야 비로소 관영 신화사통신에의해 공개된 것이다.

홍콩의 中共업저버들은 중공의 가장 영향력있는 실권자 鄧小平은 현재 北京에서 진행중인 12全대회및 오는11월열릴 예정인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전체회의를통해 신설될「국가중앙군사위원회주석」을 스스로 맡고 자신의 심복인 당주석 胡耀邦을 신설될 당「總書記」에 앉혀 당의 제반문제를 관장케하며「國務院」(내각)은 역시 그의 심복인 수상 趙紫陽에게 계속 맡겨 사실상 黨·政·軍의 대권을 자신의 한손에 쥐는「제2의 毛澤東」지위를 굳히려하고 있다고 풀이하고있다.

社說

注目되는 中共의 變貌
—「黨優位」변질한 12全大會를 보며

半世紀를 지배해온 毛澤東 思想은 中共에서 스러지기 시작했다. 毛澤東 시대의 中共政治무대 主役들은 후퇴하거나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中共 權力의 새 核心으로 등장한 鄧小平의 實用主義派勢力은 이제 그 陣容을 강화하면서 思想·作風·組織面의 당내 不純을 대대적으로 숙청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中共의 새「整風」에 대한 外部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흘이란 異例的으로 긴 日程아래 지난 1일부터 北京 人民대회당에서 개막된「中國공산당 제12차 全國대표大會」는 이런 中共내부의 일대 轉變을 차근히, 그러나 高潮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 나가고 있다. 鄧小平은 첫날의 開幕연설을 통해 이제부터 中共은「社會主義현대화」의 깃발을 앞세우고 實用主義노선을 邁進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社會主義현대화란 독특한 이념을 毛思想과 교체시켜 中共의 낙후되고 침체한 經濟를 다시 일으키고 文革과 4인방으로 조성된 內部 分裂요인들을 除去하며 국민의 정신적 活氣를 불러일으킬 政治理念體系로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것이다. 黨의 새 主軸이될 胡耀邦주석은 보고연설에서 中共의 開發과 發展을 위해「自由經濟」를 토대로 今世紀말까지 中共을「세계經濟大國」으로 만들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새경제 건설로 中共을 強國化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한것이다.

中共의 60년 政黨史를 점철해온 權力암투, 分派, 造反, 奪權, 整風, 整理등 갖은 激動이 12全大會를 고비로 깨끗하게 청산되리라고 단정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鄧과 그가 이끄는 實權세력이 政治권력의 1인집중이나 黨으로의 편중을 반대하고 있어 權力개편에서 오는 마찰은 과거 보다는 덜할 전망이다.

鄧은 이번대회를 통해 黨機構를 정비하고 지도부를 대담하게 개편하여 胡耀邦—趙紫陽의 雙頭체제가 착근할수있도록 정지작업을 마무리지을 모양이다.

대회에 회부된 黨憲개정안은 權力의 1인집중을 막고 적절히 안배할것을 고려하여 黨主席제를 폐지하는대신 黨총서기제를 부활시키기로 하였다. 胡耀邦은 5일 공개된 연설을 통해 黨을 집단지도제로 운용키 위해 總書記制를 둘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黨指導部의 개편과 병행하여 3천9백만 全黨員에 대한 재등록을 실시함으로써 毛澤東主義의 잔재세력을 철저히 排除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또 中共은 黨總書記등에 黨의 중추세력을 결집하는 한편 老壯층은 黨요직 일선에서 은퇴시켜 새 諮問委에 흡수하고, 종래 黨이 통괄하던 軍部도 黨軍事委를 폐지, 새憲法에 의해 설치될 국가중앙軍事委서 전권을 쥐도록 개편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국가서는 으레「黨우위」의 원칙이 견지되고있는데 鄧체제하에서 行政府, 軍部에대한 黨의 우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극히 주목된다.

하지만 實用派세력은 12全대회를 계기로 당권은물론, 行政府나 軍部까지도 장악할게 틀림없다. 강화된 그 권력을 배경으로「社會主義 현대화」를 위한 4大 현대화(농·공·기술·국방)계획을 강력히 밀고 나갈 참이다.

특히 中共은 經濟발전을 위하여 西方側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할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鄧小平이 다짐한 開放정책이나 胡耀邦의「自由經濟」토대 확립선언은 다함께 毛思想의 敎條的 桎梏에 얽매어 經濟가 發展치 못했던 전철을 밟지않으려는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하나 아직도 中共은 社會主義체제를「기본제도」로 못박고 있다. 鄧의 등장후 제한적으로 말단 단위의 生産責任制와 利潤制를 시행하고 일부「재산私有」까지 허용하였지만 그 모두가 어디까지나「제한적」인 것이었다. 新憲法案도「計劃경제」를 근간으로 삼고「市場조절」을 보조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공의 새「자유경제」는 계획경제에 발이 잡혀 있는것이다.

그렇다 하여도 實用派政策은 中共을 이 새로운 면모를 갖게할것은 틀림없을듯하다. 이른바「開放」이나「西方의존」이 어느정도의 것일지는 속단할수 없지만 어쨌든 폐쇄의 장막을 벗으면서 西方사회와의 協力관계가 보태져 갈것은 불가피한게 中共실정이며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變化추이를 주시하며 우리로서 對應에 유념하는바 있어야 하겠다. 그속에 우리와의 關係개선을 위한 가능성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533-2361

記者의 눈

李喆洙와 人權

『李喆洙는 결백하다. 철수·리를 석방하라』 60만 재미동포의 호소는 마침내 육중하게 닫혀진 司法의 문을 열었다. 그동안 많은동포들은 다만 교도소밖에서 그와 수난을 함께한 囚人이었다. 괴로움을 함께했다는 感傷때문만은 아니었다. 李喆洙와 진실을 말할기회를 잃었고 법의 불평등한 적용을 항변할 수단을 갖지못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뒤부터 그의 救命운동은 행동을 동반하는 힘을 얻었다.

李喆洙의 무죄評決은 그러나 한자락 뼈아픈 교훈을준다.

미국은 해마다 최소한2만명의 우리동포를 이민으로 꼬박꼬박받는 나라다. 떠나는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 이민은 또 國勢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있는가하면 두뇌유출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하지만 두뇌유출이 걱정되는 사람을 정도면 모두 별준비없이 떠나도 잘적응해서 살사람 들이다. 문제는 자주 거론되는「문화의 충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다.

李喆洙—그는 미국인과 결혼한어머니를따라12살때 미국으로 건너간 소년이었다. 그의 어머니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와 얼마나 딴판의 고장으로 어린아들을 데리고가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평범한 어머니였다. 우리사회 인습상 배타성때문에 주로 주한미군을 남편으로 맞이한 여성들은 우리나라에서조차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통칭 5만여명의 한국여성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빈약해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李喆洙사건은 이와 事案은 다르지만 미국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못해서 비롯된 비극이다.

영어는 못해도 좋다. 자신의 결백을 대신 주장해줄 통역을 법정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李喆洙는 알았어야 옳다. 동양인들은 앵글로系사람들의 얼굴을 얼핏보아 구별해내기 어렵다. 그와 꼭같이 백인들이 동양사람들의 얼굴을 구별하기 어렵다. 문화 역사 인종적 차이에서 나오는 그런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할수 있었더라면 법관은 한번더 진상을 주의깊게 규명했을지도 모른다.

옥중살인도 그렇다. 만인이 법으로 평등이지만 아직도「동양인은 모두 죽여버리란」는 백인 나치당갱단도있는 나라란 것을 알았어야 했다. 李喆洙는 그白人갱단이 적수멕시칸, 마피아단에게「우리가 얼마나 잔혹한가」본때를 보이기위해서 儀式살인의 대상으로 점찍힌 불운한 소년이었다.

제2사건은 그祭物이 되기를거부하고白人의칼을빼앗아저지른 정당방위였다. 그러나 그는 살인하였으므로 사형선고까지받았다.

기왕에 미국에 이민할 사람의 숫자를 추정할수 있다면 단기해외여행자들이나 마찬가지의 소양교육만으로는 안된다. 힘이 아닌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수있는 준비를갖추도록해서 그들을 보내야 할것이다. 【金炳武기자】

신규貸出 中斷상태

5개市中銀, 강력通貨 환수책따라

지난 8월18일부터 대출을 강력히 억제해온 5개시중은행은 9월들어 당분간 대출을 억제하라고 또 다시 각점포별로 지시함으로써 신규 중자금 사정은 대출금상계와 겹쳐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6일 금융계에의하면 5개 시중은행은 韓銀의 통화환수 방침에 따라 본점영업부와 각 지점에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신규대출을 일체 중지하도록 재차 시달했다.

韓銀은 다가오는 추석자금, 추곡수매자금방출등 자금 성수기를 앞두고 통화증가를 억제키위해 시중은행에 대출을 거듭촉구했으나 대출이 계속늘어나자 시중은행에 대해 지준부족을 일으킬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歪曲즉각 是正촉구

日교과서집필88명

【東京=聯】일본의 사회과교과서 집필자들은 4일하오 도쿄시내 이찌가야(市谷)사학회관에서 간담회결성대회를 갖고 한국·중공등에서 문제삼고있는 교과서검정내용의 즉각 재수정을 위한 조직적인운동을 펴기로 결정했다.

일본교과서집필자 약8백명중 88명이 참가한 이날 사회과교과서집필자 간담회 결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한국의 3·1독립운동이「폭동」으로 왜곡된 경위등에 언급하는가운데 문부성이 이부분의 왜곡을 집필자들의 자율적판단에 맡겼다고 계속 주장할경우 공개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会漫評

온겨레가 한푼씩…

地平線

다섯살 이상의 미국사람 10명중 1명은 집에서 영어를 쓰지않는다. 지난 4월에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2천3백만명. 이중에서 약 절반인 48%가 스페인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52%에 속하는 사람중에는 물론 한국계 이민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영어를 모른다는 사람은 13%였다. 87%는 영어를 잘 하지만 안쓴다는 얘기다▼미국은 지금 80년만의 이민홍수를 맞고있다. 80년도의 합법적인 이민은 80만8천명(추정) 이것은 1900년대 10년간 연평균과 거의 맞먹는 숫자다. 게다가 한해 50만에서 1백만명 정도의 불법입국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합법적인 이민의 경우 50년대까지만해도 60%가 넘던 유럽계가 뚝 떨어지고, 아시아가 41.4%(79년)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민을 더많이 받아들여야할 것으로 생각되고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지난 8월에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의 출산율이 떨어져 20년안에 노동력기근이 닥칠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그래서 15년안에 이민의 문턱을 낮춰야된다는 논쟁이 일것이고, 이런 상황을 내다본다면 지금 이민정책을 풀어야 될것이라고 주장했다▼70년대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계 이민은 성장률로 따지자면 가장 급속하게 늘어난 선두주자라고 할수있다. 70년에는 아시아계 이민 가운데 한국계가 약 20%, 75년엔 이민가운데 멕시코·필리핀계에 이어 3위, 76년이래 해마다 평균 3만명이 건너가고있다. 그래서 80년8월현재로 약46만의 한국계 이민이 있을것으로 짐작되고있다▼한국계 이민의 특징에 대해 金環東교수는 가구주와 부인의 60%이상이 대학을 나오고, 3분의1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몰려 살고있다는것을 들고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들이『상당히 고립된 소수민족집단으로 상대적 고립과 격리의 상태를 벗지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그는 한국계 이민들의 정치적참여가 거의 눈에띄지않는다는 것을 들고있다▼오랜 투쟁끝에 재미동포 이철수씨의 살인누명이 벗겨졌다. 스무살때 살인범으로 붙잡혀 스물 아홉살이 돼서야 재심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다.「고립된 소수민족」이 5년가까이 끈질긴 법정투쟁끝에 편견을 뒤엎은 것이다. [illegible]은 한국계 이민사에서 길이 남을 감격적인 순간이다. 또한 무엇이건 노력하면 된다는「가능성의 사회」에서 한국계 이민들이 어떻게 살아갈것인가를 가르쳐준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오전10:30~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일보
우리고장의 健全한 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WALK-A-THON (보행마라톤)

불과 10여년 이민역사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한 한인사회는 "우리 부모는 우리가 모신다"는 전통적인 우리의 미덕을 이 사회에 보여주는 과업에 착수할 때를 맞았읍니다.

현재 토론토에는 2천명에 달하는 노인분들이 있고 이중 상당수가 여러 너싱홈(Nursing Home)에서 음식과 언어에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읍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이런곳에서 여생을 보낼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읍니까? 이같은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계획하고 모금을 위해 보행 마라톤(Walk-A-Thon)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면 큰 도움 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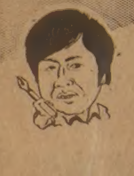
▲때: 1982년 10월2일(토요일) 아침9시30분
▲곳: 써니부룩 공원 축구장(Eglinton×Leslie St.)
▲참가신청 배부처: (1)양로원 건립 위원회
나상선 851-5735, 송인문 881-5590, 이학현 463-6334, 최상수 656-0867
(2)한인 YMCA 536-1166(Mr. Kim) (3)한국일보사 533-2361
(4)민중신문 537-3473 (5)코리언저널 757-8000

대회고문: 이규현 주 캐나다 한국대사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
HON. L. GROSSMAN 온타리오주 보건부장관.
HON. F. DREA 온타리오주 사회부장관
대 회 장: 박인순 토론토 한인회장
진행위원장: 천중환 한인 양로원 건립 위원장
진행위원(무순): 김창열 차선경 유영갑(R)송인문 조덕남 최동주 나상선 강준남 한승권 이학현 유영갑 박경태 김명규 이병권 나영삼 유영린 심태섭 송남성 신영식 최상수 김인환 장연탁 김이열
후원단체(무순): 토론토총영사관·한인회·한국노년회·캐나다한국외환은행·온타리오 실업인협회·재캐나다대한 체육회·코리아타운 번영회·동우회·한인YMCA 와이즈맨클럽·라이온즈클럽·간호협회·한인교역자회·무역인협회·한인골프협회·벡커경영인협회·맥스경영인협회·한일은행·한인신용조합·대한부인회·조흥은행·한국일보·민중신문·코리안저널

한인양로원 건립추진위원 위원장 천중환
Korean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Phone: (416)826-6664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3>



庶民과의 對話

그림 鄭駿溶

되새겨본「가까운것과 먼것」… 無知와 淳朴性에 놀라

아침에 눈을 뜨자 호텔 복도에 나가서 자동판매기에 동전 두 개를 넣고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아무리 눌러도 내가 원하는 2백엔짜리 오린지 주스는 나오지 않았다. 기계로부터 동전을 되돌려받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동전 백원짜리가 섞여 있지 않은가. 기계녀석은 내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녀석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 씁쓸한 기분이었다.

밤을 너무 흘려서 목이 컬컬했다. 시원한 맥주라도 사서 마실까 하고 밖으로 나갔다. 늦은 밤거리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뜸했고, 상점들도 거개가 문을 닫았다. 낯선 곳을 한참 헤매다가 작은 가게를 만나 깜짝 반가왔다.

『깡통맥주 네개 주시오』

나는 서툰 발음의 영어로 지껄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인인 키 작은 노인은 짧은 영어도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다시 손짓으로 깡통 모양을 그리고 그걸 마시는 시늉을 해보였다. 그러자 노인은 대뜸 희색이 만면해지면서 『미루꾸』 하고 우유를 내놓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노인은 다소 실망한 기색을 나타내며 다른 걸 꺼냈다. 갖가지 주스와 청량음료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캔맥주를 주느라고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이때 술에 해당하는 일본어가 문득 떠올랐다.

『사께!』

그 소리를 듣고 노인은 미안하다며 손을 비빈 다음 어두컴컴한 길거리 한구석을 가리켰다. 자동판매기였다. 달려가 보니 맥주도 판매중이었다. 동전을 구하기 위해 나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친절한 그 노인은 지폐를 동전으로 바꾸어 주면서 한국인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인은 온 얼굴에 주름살을 잡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인사를 하고 나오다가 얼핏 뒤돌아보니 노인은 나를 위해 잔뜩 끄집어낸 깡통들을 주섬주섬 챙겨 정돈을 시작하고 있었다.

캔 비어를 노인이 알아듣지 못했고, 그것의 일본식 발음이 비루라는 점을 내가 잠시 까먹은데서 비롯된 한 토막 삽화였다. 이처럼 미세한 차이로 노인과 나는 한바탕 북새를 떨어야만 했다.

호텔방에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청소부 아줌마가 들어왔다.

『소제는 괜찮아요』

나는 일본말로 어색하게 말했다. 소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아줌마는 그 말을 지금 소제를 시작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달리 해석했던지 원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을 옆에 두고 막무가내로 침대 시트를 갈아끼우기 시작했다. 내 일본어 실력으로는 더이상 아줌마를 말릴 재간이 없어 나는 잠깐 쉬기로 작정했다.

『영어인가요?』

막 담배를 피워 무는데 아줌마가 탁자 위의 원고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영어의 알파벳과 한글의 모양이 사돈의 팔촌만큼도 닮지 않았다고 믿고 있던 나로서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어입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탁자로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일일이 한글의 획들을 더듬어가며 뭐라뭐라 쉴새없이 중얼거렸다. 아마도 처음 보는 한국어가 무척 신기하다는 뜻인듯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소설가입니다』

아줌마는 다시 한번 신기해 하였다. 출판때문에 왔느냐고 물어서 나는 그렇다고 대꾸했다.

『나리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다섯시간 걸립니까?』

『아니오, 두 시간 걸립니다』

아줌마는 세번째로 놀라는 표정이었다. 계속해서 빠른 말씨로 지껄이는데 그중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그럼 오끼나와보다 훨씬 더 가깝군요』 하는 이야기가 고작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村老나 부녀자들이라도 서울과 도오쿄간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잘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일본어를 가리키며 영어냐고 묻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거라고 믿는다.

다이어먼드 호텔의 칠층 담당아줌마. 그녀는 나에게 거의 감동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무지와 순박성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일본에 와서 나는 매일매일 많은 유명인사와 지식인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지식인도 그녀만큼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이제 잠시후면 그 아줌마가 또 내방을 소제하러 올것이다. 각국의 손님을 맞으면서 그녀는 어느날 불쑥 파푸아 뉴기니의 문자를 손가락질하며 소련어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가까운 것과 먼 것과의 관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과의 차이에 관해서 나는 곰곰 생각하고 있다. 먼 것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 모르는것을 알려는 노력이 두 나라의 서민들 간에 얼마나 있었는가. 남은 여정을 통하여 나는 이름없는 일본의 서민들과 되도록자주 부딪치고 싶다. 그들을 만나는 동안에 이제껏 지식의 세례로 관념적인 쪽으로만 이해하려 했던 일본관에 생생한 숨결과 땀내를 불어넣고 싶다. 지식인 대 지식인끼리의 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민대 서민의 대화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기 때문에 저지르는 허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맹목은 다 같이 한일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장애요소일 것이다.

원래 내가 생각했던 이 글의 제목은「세 사람의 日本人」이었다. 한국 동전을 잘못 투입한 내 실수를 꼬집은 일본의 자동판매기를 나는 소설적으로 의인화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일본의 자동판매기는 일본인일수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은「두 日本人」으로 하는 것이 백번 옳다.

메아리

地圖

지난번에 길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못다 말한 것이 있다. 地圖의 문제다.

택시를 타고 밤에 어떤집을 찾아가는데 도저히 찾을수가 없다. 뺑뺑이를 돌다가 파출소로 갔더니 소관지역이 다르다면서 다른 파출소로 가라고 한다. 다른 파출소에서는 용케 그집을 알고 있어서 약도를 그려 준다. 이약도를 가지고 집을 찾기는 찾았다. 택시요금을 내는데 운전사는 대기료를 내라고 한다. 대기는 무슨 대기를 누가 시켰느냐? 아까 길바닥에서 차를 세워 여러번 길을 묻고 파출소를 두군데나 들러서 시간을 버리지 않았느냐는 것이 운전사의 대답이다. 아니 길 묻는 것도 대기냐, 그리고 길을 묻은 사람은 운전사냐 손님이냐, 손님이 길을 빤히 알면 버스를 타지 비싼 요금내고 택시를 타겠느냐, 길을 모르니까 집을 찾아 달라고 택시를 탄다. 주소를 주고도 집을 못찾고 헤매는 것은 운전사의 잘못이다, 길을 물어 가야 한다면 그것은 운전사가 묻는것이지 손님이 묻는것이 아니다, 운전사가 길 묻느라고 시간을 버렸는데 어째서 그시간값을 손님이내야 하느냐, 운전사는 길을 모른것은 손님이지 어째서 자기냐고 대든다. 운전사 당신은 왜 지도도 한장 안 가지고 다니느냐,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 길을 쉽게 찾을것이 아니냐, 지도가 없어서 헤맨것이 손님잘못이냐? 그러자 운전사는 지도? 지도가 뭐요? 하며 마치 무슨 뜻모르는 외국어 낱말이라도 들은듯한 얼굴표정을 짓는다. 대관절 대기료는 얼마를 달라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주시오다. 알아서가 얼마냐, 계산표도 없다면 무슨기준으로 대기료를 달라는 것이냐 했지만, 결국은 정식요금외에 몇푼을 보태줄수 밖에 없었다.

지도없이 차를 모는것이나 계산표 없이 대기료를 받는것이나 이것은 주먹구구의 세상이다.

돌아서서 생각하니 운전사를 나무랄 일이 아니다. 지도를 왜 안가지고 다니느냐고 했지만 지도가 있어야 가지고다니지. 서울시내에 택시도 많고 자가용차도 많은데 시내지도를 가지고 있는차를 한번도 보지못했다. 정부 지도 대행판매소인 중앙지도문화사에 가보면 서울시내 지도는 한장으로된 관광안내도 말고는 90장으로된 5천분의1짜리 地番지도뿐이다. 차를 모는 사람들이 무슨 地籍조사를 하러다니는것이 아닌바에야 90장에 15만원씩이나하는 커다란 지도를 사가지고 좁은 차안에서 펼치고 다닐수는 없는노릇이고, 또 관광안내도는 略圖에 지나지 않는다. 운전사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이 어느길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수첩용 지도같은것이 있어야하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것이 없다. 略圖와 地籍圖만있고 地圖가 없다.

지도없이 차를 모는것은 海圖없이 배를 띄우는것과 같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예사가되었고 남의집을 찾아가면서 물어물어 헤매는것이 당연한것처럼 되었다. 자가용차는 자꾸 늘고 길은 자꾸 새로 생기는데 거리의 地圖는 발달하지 않는다. 大東輿地圖를 만든 金正浩는 지도를 판각하여 大院君에게 올렸다가 기밀누설의 혐의를받고 투옥되어 옥중에서 죽었다. 그후손들이라서 지도라면 질겁인가.

우리나라 도시에 지도가 없는것은 그런 질겁때문이아니라 길에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도를 열심히 그려 골목마다 다 표시해봤자 지도를 들고있는 현위치가 지도위의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면 지도는 있으나 마나다. 이 지점을 가르쳐주는것이 길 이름이다. 길 이름이 없으니까 지도만들 생각을 않는다.

올림픽을 연다고해서 세계적인 대도시가 되는것이 아니다. 올림픽을 여는 대도시치고 차가 지도를 안가지고 다니는 곳은 서울뿐일것같다.

金聖佑 <編輯委員>

全斗煥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1년동안교환교수로 강의를 하다가 돌아온 朴東奎교수(서울大·문학평론가)의 기고를 통해 캐나다의 文化·생활실태를 알아본다. <편집자 註>

「캐나다 생활1년」서 보고 느낀것

"正直과 水平의 나라"

公衆질서는 놀랄정도

朴東奎 (서울大교수)

광대한 캐나다의 한도시 터론토에서 지내는 동안 사상, 문화등 지식체계의 캐나다전체에 대한 이해보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의 첨예한 표출부분에서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관심을 가져보았다. 그것은 우리와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구체적 증거가 되기때문이었다.

어느날 터론토시내 가장 번화한 거리인 베이백화점근처에 한 남루한 청년이 목에 푯말을 걸고 앉아 있는것을 보았다. 푯말에는 다음과같이 쓰여있었다. <나는 너무나순수하고 지적인 시를 쓰기 때문에 팔리는 시집을 만들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는 장정이 엉성한 시집을 보도에 펼쳐놓고 몇달러의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는것이었다. 어디서나 시인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할때 쓴 웃음이 나왔지만, 나는 이 청년을 통해 그들의 정직성을 볼수 있었다. 그것은 가난하기에 시를 쓰는것이 아니라, 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때문에 아직은 가난하다는 똑똑한 자기선언의 몸짓과 길거리에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정직의 용기를 본것이다.

이 정직의 파장은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구조의 끝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누구나 은행에 가서 몇분의 수고로 돈을 꿔올수 있다. 이를 착실히 갚아나간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꿔보지 아니한 훌륭한 자립인보다 훨씬 신용있고 유능한 인간으로 평가하는 제도같은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정직은 피부에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연장되어 있는 것이었다. 잠시 주인이 없는 남의 자동차를 찌그러뜨려놓고 도망가기 앞서서 종이에 자기집전화번호를 적어 차창에 꽂아놓고 가는 정직성, 그것은 사회구조를 신용사회의 틀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정직성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에는 수평의 인간관을 찾을수있다.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적 인간관의 한 형체를 이상으로 삼는다는 이념적 자세가 아니라, 누구나가 피부로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것이다.

캐나다의 국가체제가 미국과는 달리 사회주의제도를 가미해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철저히 하여 안경과 치아만을 제외하고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는 점등이 수평적 인간관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내 강의를 듣는 한 학생이 우리 집에 놀러왔을때 뒤꿈치가 다 떨어진 양말을 신고도 한국식으로 신발을 벗고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가끔 교수의 어깨를 툭툭치며 강의가 재미있었다고 얘기하는 학생을 만날 때면 스스로 멋적어하는 자신의 마음속에 대등한 인간관계에 익숙한 그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추운 겨울 영하 30도이하의 길에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한사람의 새치기도 없이 차례대로 버스에 오르고 일단정지표지판이 선 네거리에서 먼저 온 순서대로 하나하나의 차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평적 관계는 가족제도, 교육제도에도 그대로 맥이 닿아 있어서 학예회에 가면 가장 못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화려한 격려의 박수를 쳐주고, 줄도 안맞고, 대사도 제대로 외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들도 이런 발상의 파장이리라 생각된다.

정직함과 수평적 인간관의 교직을 통한 그들의 일상생활양식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지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해온 인간성에대한 새로운 시야를 지녀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루종일 달려도 산이 없는 평원, 아무리 눈씻고 보아야 하얀 눈들판이 보이는 망망무재의 넓은 대륙에서 한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교섭과정위에 무엇이 가장 귀중히 다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는것이다.

한국에서 건너간 교포들이 캐나다사회에 정착하고 그들이 집도 사고 가게도 운영해 나갈수 있었던것은 캐나다의 넓은 대륙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찾을수있는 정직과 수평적 인간관에서 연유하여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일해온 것때문임을 확인할수 있었다.

고향을떠나 이민온 우리 교포의 거친 손을 잡고, 서로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정직과 수평적 인간관계에 동의할수 있었다.

파란 한줄기 굵은 선을 이루는 지평선 저끝의 나무숲에는 쓰러진 나무가 거름이 되고있는 풍요보다도 오히려 도움을 청할때면 언제나 손을 내미는 이웃이 부러웠던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한국일보 詩壇

들꽃 한송이

朴文在

소음속의 도회지
白病院 경유 버스속
南山 기슭 교각을 지나
그橋脚을 스턴트·맨 처럼
버티고 서 가는 들꽃 한송이。

至嚴한 분을 뵐 때 처럼
全身 찌르르 心琴 울리는
대낮의 感懷、그충격의 대단함이여。

우리야 보통 사내로
세월에 기대어 보통으로 살아 가지만、
저렇듯 눈부시게 우리를 적시는 거
또는 한동안 우러르게 하는
無名의 들꽃 한송이。

세상의 일
모두 저 속에 들어 있어
매연 속에서도
홀로 의젓한、
지극한 模範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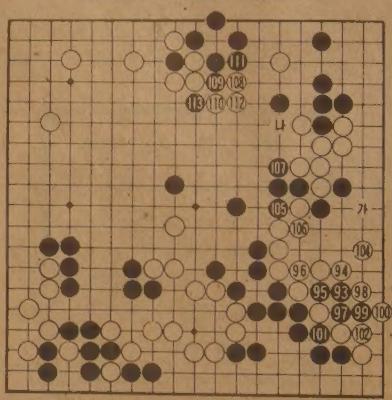
실로 오랜날
우리 나자렛、예수의
莊嚴한 發顯이여。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제14기 名人战 3次予選 決勝

第1局 第9譜93~113 (각4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洪鍾賢



黑93의 급소를찔린 盧7단은『그럴줄 알았다』며 고개를 : 설렌다. 어떻게 응할것인가. 12분동안 판세를 두루살피더니 白94쪽을 막았다. 『白94로는 95자리를 꽉 이어도 무방할것같은데 白은 이곳을 약간당하더라도 여전히 유리하다고 판단한모양』 이라는 趙南哲8단의 해설。즉 말해서 白94는 안전책으로서 이하 白104까지 필연이다.

하지만 귀쪽의 손실은 의외로컸다. 이로인하여 전체형세가 극도로 미세해진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盧7단은 적이 긴장했다. 洪6단은 절호의찬스를 맞이했다.

마지막 승부처

여기서 선수를 잡고 黑105、107。이제는 黑「가」로 수상전하는 수마저 노리게 되어 여태껏 열세에빠졌던黑은 한가닥 광명을 발견하고 활기를 띤다.

盧7단은 더이상 유약하게 다룰수가 없다. 黑이 제컨디션을 회복하기전에 맥을 끊어야한다.

이리하여 감연히 白108로 급소를찔러 여기서부터 치열한 공방전은 발발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부터가 이바둑의 하이라이트、피차간 한치도 물러설수없는 접전끝에 한쪽이 白旗를 들게되는것이다.

우선 黑109에서 111은 절대。白112는 113의斷點을 드러내어 좀 과한것같지만 白「나」로연하는수를보고있다。그러나 결국 黑113으로 승부처에 도달했다. 103…이음。【一凡】

◇하늘을 날고 싶은 91歲 할머니

해마다 생일이되면 새로운것을 해보이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美國밀워키에 거주하는 91세의 메입·볼링크 할머니가 최근 생일을 기다리다못해 대형 고무풍선타기를 미리 해보이고있다. 그녀의 92회생신은 10월15일이다. 【밀워키(美위스콘신州) 4日AP=聯合】

레바논에 하비브街

★PLO撤收공로 인정

베이루트市의회는 5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베이루트 철수를 실현시킨는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필립·하비브 미중동특사의 공로를 기리기위해 이도시의 한거리를 필립·하비브 가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하비브특사는 지난3일 귀국에앞서 레바논 정부가주는 훈장을 받은바있으며 오는22일 베이루트에 다시 돌아오는대로 베이루트 명예시민명부에 오르는 영광을 누릴것으로알려졌다. 【베이루트=AP】

海外토픽

테니스靴훔쳐 체포

★워터게이트事件의경비원

지난72년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을 최초로 탐지해냈던당시의 경비원 프랭크·윌즈씨가 최근 테니스화 한켤레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가 5일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일자리가없는 윌즈씨는 지난 1일 15살난 아들과 함께 한백화점에 들어갔다가 테니스화를 훔친혐의로 체포됐었는데 윌즈씨는 워터게이트사건이후 증언관계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어거스타(美조지아주)=AP】

密酒먹고 41명숨져

★印度 추수기 祝祭농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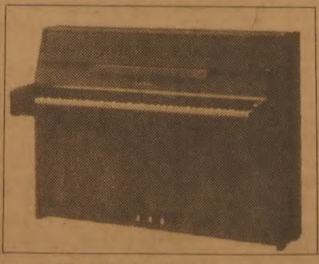
최근 인도남부 게랄라주에서는 추수기를 맞아 축제를 즐기던 농민들이 불법제조된 밀주를 마신후 적어도 41명이 사망하고 3백명이상이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일부는 중태라고 인도의 PTI통신이 4일 보도。

인도에서는 매년 밀주로인해 수천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명 또는 전신마비로 고통을 받는 사고가 발생한다는데 이번 사건은 3백25명이 사망한 작년의 사고와 2백80명이 목숨을 앗긴 78년사태이래 최악의 밀주사고라는 것. 【뉴델리=AP】

The 5th Anniversary Specials ★기 간 : 9 월 1 일~9 월30일

본사에서는 개업 5주년기념으로 올갠및 피아노 할인대매출을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및 신형 up right 피아노는 음악인들에게 인기리에판매중에 있사오니, 1 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 겠읍니다.

대표 윤 호 섭 올림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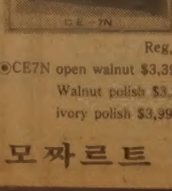
DX80 〈Reg〉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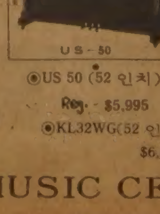
DX90 $1,8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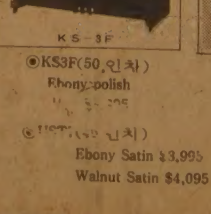
DX100 $2,395-REG
DX200 $2,995-REG

DX300 $3,4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Reg.
⊙CE7N open walnut $3,395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US 50 (52 인치)
Reg. $5,995
⊙KL32WG(52 인치)
$6,495


⊙KS3F(50 인치)
Ebony polish
[illegible]
⊙[illegible] 인치)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 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두꺼비 안의섭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白凡후에도 誠金대열에

獨立기념관建立 金信씨一家 回甲宴사양 큰뜻 本社에

◇金信씨

독립기념관을 우리손으로 짓는데 정성이 크고 작음이 있을수없다。 기념관건립성금을든 발길이 한국일보사접수창구에 줄이어 오고있다。 上海임시정부주석으로 일제하 독립운동의 큰별이었던 白凡 金九선생의 외아들인 金信씨(61·전교통장관)와 자녀들이 6일2백만원을 본사에맡겨왔다。 17일 환갑을맞는 金씨는 자녀들과 의논, 환갑잔치를 위해 모았던 경비와 얼마간의 돈을 독립기념관건립에 바치기로했다는 것。 金씨는 『제1공화국때우리세대가 진작 했어야 할일이었는데 못했다』면서 『이번사업은 민간이 주동이되어 더욱뜻이깊고 기회가좋으며 국민의 호응이열화같아 말씀직스럽다』고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성금을 전한 金씨의 아들 金揚씨(30)도 『독립운동가의후예로서 더큰힘이 못되는게 미안하나 이운동엔 과거의 성과에 관계없이 참여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7旬讀者는 億臺땅 내놔

祥明女師大 교직원 전교생·용돈아낀 國校生도

서울東大門區淸凉里洞미주아파트7동1303호에 사는 朴昌源씨(76)는 자신이 가지고있는 전재산인 경기金浦군일대 땅 2만3천여평(싯가1억상당)을 한국일보를 통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朴씨는 고향인 황해도開城에서 3·1만세운동때 소년으로 참가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동안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던중 독립기념관 건립운동이 실효를 거두게돼 기꺼이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기쁨을 감추지못해했다。

서울 祥明(상명)여자사범대학(이사장 裵祥明) 교직원 학생이 5백23만원을 헌납했고 尹宣化양(11·사진 서울鶴洞국교4-5)이 독립기념관 건립성금으로 10만원을 소년한국일보에 기탁했다。

尹양은 2학년때부터 부모와 친척이준 용돈과 심부름값등을 저금해온것을 이날 가져왔다며 『담임선생님의 말씀처럼 비록어린이지만 나라에 보탬이될수있는 길을 찾게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祥明女師大학생대표가 성금 5백23만원(裵祥明이사장 2백만원, 교직원73만원, 학생 2백50만원)을 본사에 기탁했다。

◇尹宣化양

달러박스를 잡아라

매머드國際회의 誘致서둘러야

수천명씩와 씀씀이도 커 政府차원서 적극 競爭을

우리나라 관광체제가 달러박스인 매머드 국제회의유치에 미흡하다。 큰 국제회의에는 한꺼번에 수천명의 외국인이 참석하고 참가자들이 대개·별도의 관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일반적으로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특급관광자원으로 꼽힌다。 이점에 일찍부터 착안한 구미각국은 물론 동남아 각국까지 정부차원의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뒷전에 밀려있다。

대소 5백여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있어 어느나라보다 여건이 좋은 셈인데도 적극적인 유치 체제가 돼있지 않은탓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관광공사에 「국제회의부」가 있어 활동해왔으나 지난8월기구를 감축하면서 「국제회의과」로 격하시켜버린등 이분야를 등한히 하고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건수와 외국인참가규모를 보면 77년51건에 5천34명, 78년 57건에 9천8백47명, 79년 94건에 2만1백84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년 89건에 1만1천5백84명, 81년 82건에 1만2천1백93명으로 차차 줄어들고있다。

79년실적이 월등히 높은것은 당시 파타(PATA)총회(외국인2천명)라이온스회의(6천명) 등 대규모 국제회의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8월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약사회의에 1천여명의 외국회원이 참석, 눈길을 끌었는데 서울개최가 확정된 대규모국제회의를 보면 오는9월21일부터 열리는 국제여성협의회에 6백명이 내한하며 또 11월2일부터 열리는 JC국제회의에 5천명의 외국인이 참석하게된다。

더우기 내년9월에는 세계최대의 관광회의인 아스타총회(ASTA)가 서울서 개최돼 1백20개국에서 약7천명이 몰려오며 또 세계인삼심포지엄에 1천여명의 외국관계자가 참석할예정이며 84년도에는 세계최대 금융회의인 IMF총회가 서울에서열려 외국의 은행장급이상 금융인 4천명이 한국을 일시에 찾는다。

따라서 내년 아스타총회로 국내에 떨어질 달러는 항공료를빼고도 7백만달러(50억원)는 될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있다。

국제회의참가자는 정부고급관리, 기업가, 협회대표, 학자, 전문가등 그나라지도층들이기때문에 국가홍보에도 큰역할을하며 일반관광객유치에도 큰몫을 하게된다。

한국은 가입하고있는 5백여개 국제기구를대상으로 열바퀴 국제회의를 유치할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기업가회의와 의사단체회의는 알짜달러박스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잠재력에비해 국제회의 유치여건은 다져지지않고있다。 현재 1천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회의는 세종문화회관(약4천석) 쉐라톤호텔(1천7백석) 신라호텔다이내스티룸(2천4백석)장충체육관 잠실체육관을 회의때마다 개조해 쓰고있으나 회의전용시설이아니라 불편하기 이를데없다。

내년 아스타총회와 84년IMF총회에대비, 새로건립중인 힐튼호텔에 4천석규모의 회의장을 만들고 있으나 마닐라 국제회의센터는 4천8백명이 들어갈수있는 회의장과 5천명수용규모 연회장을 겸비해 아시아에서는 완벽한 시설로 유리한 유치활동을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국제규모전용회의장을 짓는것이 국제회의 산업의 관건이 되고있다。

회의장 못지않게 시급한것이 국제회의 전담부서。

관광공사에 있는 국제회의과가 명맥을 유지하고있으나 다소의 정보를 모으고 개최측에 자문하는 이상의 활동을 벌이기에 힘이 달리는 실정이다。

【金首宗기자】

國校교장부인 대낮被殺

20代복면強盜 칼에… 패물 털려

중상입은 수양딸이 申告

서울敦岩국교

◇대낮 강도살인현장。 姜교장의부인 崔씨는 안방입구 문턱에 엎드려숨졌고 尹양은 안방화장대부근에 실신해있었다。 현장감식반원이 안방에서 응접실로 나오고있다。

◇대낮에 복면강도의 칼에 찔려숨진 崔玉珠씨。

6일 하오2시30분께 서울 道峰區水踰5洞519의1서울敦岩국민학교 교장 姜澤中씨(54)집에 20대 복면괴한이 침입, 姜씨의부인 崔玉珠씨(49)를 과도로찔러 숨지게하고 姜씨의 수양딸 尹成淑양(23·서울城北區下月谷洞)에게 중상을입힌뒤 안방장롱등을 뒤져 카메라2대와 패물등을 털어달아났다。

범인은 이날열려있던 현관문을통해 들어와 안방에서얘기를 나누고있던 崔씨와尹양에게 과도를 마구휘둘렀는데 崔씨는 아랫배에 세군데를찔려 그자리에서 숨졌고 尹양은 오른쪽팔과 등에3군데를 찔렸다。

尹양은 칼에찔린후 의식을 잃은채하고 쓰러져 있다가 15분쯤뒤 범인이 달아나자 112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姜씨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尹양은 이날 낮12시께 姜씨집을 찾아와 하오1시께 근처 중국집(龍宮)에서 간짜장 두그릇을 시켜 먹은뒤 안방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1m75cm가량의 푸른색 점퍼와 검은색 하의 차림의 범인이 얼굴에 푸른색 천으로된 복면을 하고 과도를 들고 현관에서 뛰어 들어왔다고 말했다。

崔씨와 尹양이 놀라 미처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있는 사이 범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있던 崔씨가 일어서려는 순간 과도로 아랫배를 마구 찔렀다는것。

범인은 다시 바깥으로 달아나려는 尹양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찔러 쓰러뜨렸다。

범인은 그뒤 안방장롱을뒤지다 응접실로나가 화장실에서 손을씻었고 약5분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를 뒤졌다。 이어 다시 건넌방과 안방을오가며 장롱등을 다시 뒤진후 달아났다。

尹양은 범인이 대문을닫고 나가는 소리를듣고는 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를받은 경찰이 현장에도착했을때 尹양은 수화기를손에든채 쓰러져 의식을 잃고있었다。

경찰은 姜씨집을 미리 범행대상으로 택해 근처에서기회를 노리던 범인이 담을넘어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범인이 姜씨집의 2남1녀(여대1년·고1·중2)가 모두 등교해 낮에는 숨진 崔씨 혼자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인이 강도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말을 일체 하지않은 점, 두눈과 입만을 남기고 복면을 한 점등을 보아 강도를 목적으로 한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점도 수사하고있다。

경찰은 이에따라 숨진 崔씨의 친척 尹모씨(23세가량·서울城北區鍾岩洞)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중이다。

姜씨집은 고급주택가의 골목끝에있어 평소 인적이 많지않은 곳이다。

姜씨집은 대지60평에 건평50평의 2층양옥으로 아래층에는 崔씨가 숨진 안방과 문간방등 4개의 방과 응접실, 부엌, 화장실이 있으며 2층에는 방2개가 있다。

경찰은 이날 현장감식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족적 2개를 응접실에서 찾아냈다。

尹양은 5년전에 이모의소개로 姜씨집에서 가정부로일하다가 최근에 그만두고집에서 쉬고있었다。

崔씨의 남편 李교장은 3년전 華溪국교 교장으로 있다가 敦岩국교 교장으로옮겨왔으며 부부사이에는 3남매를 두고있으며 현재 살고있는 집에는 지난 76년도에 이사와살고있다。

「大學院대학」계획蹉跌

서울大 學部학생 定員늘어

서울대가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중인 「대학원중심의 연구대학」안이 계속되는 학부신입생의 정원증가때문에 큰 차질을 빚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權彛赫서울대총장은 6일 대학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학부학생의 정원증가로 인해 화급한 당면과제인 교육시설난과 교수난을 해결하다보니 일시적으로 대학원중심대학의 계획에 차질이 오고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權총장은 그러나 『서울대는 대학교육의 수요를 외면할수없다』고 밝혔다。

權총장은 또 학생과외활동이 방과후나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보다 더 활성화 되어있는 외국의 예를 들면서 『앞으로 학생과외활동의 위축이없는 방향에서 그 운영계획을빠른시일내에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擬似 장티푸스 群山 21명앓아

【群山】전북群山시에 의사장티푸스환자가 집단 발생, 보건당국이 긴급방역에 나섰다。

6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시내 東興南洞 김모군(10·군산풍문국교3년)등 이동네 17가구의 6~15세어린이 21명이 고열, 복통, 두통, 식욕부진등의 증세로 앓고있다。

이 동네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최모군(군산풍문국교 3년)이 처음 이같은 증세를 보였으나 감기로 알고 자가치료를 해왔는데 며칠사이에 이웃 어린이들도 같은 증세로 앓기시작했다。【聯合】

2명 숨져 慶北 뇌염증세로

【大邱】6일 상오 9시30분께 大邱市中區東山洞 계명대부속 동산기독병원에서 뇌염증세로 입원중이던 박현옥양(9·경북 永川郡 琴湖邑元基洞)과 경북대부속병원에 입원가료중이던 이기철군(7·경북 義城郡 點谷面尹岩2洞)이 숨졌다。【聯合】

광부2명 壓死

和順 地下5百m 炭더미에

【光州】5일하오7시께 전남和順郡寒泉面午陵里 삼성탄광 신3갱 5백m 지하에서 채탄작업을 하던 광부 朴俊明씨(34·和順郡道谷面大谷里378)와 李在春씨(36·和順郡綾州面貫永里395)등 2명이 무너져 내린 탄더미에 깔려 숨졌다。【聯合】

떠내려온 北傀地雷 터져

해변서 어린이숨져

【江華】북괴가 해안지역에 설치했다가 조수에 밀려떠내려온것으로 보이는 대인지뢰가터져 국민학생 1명이숨졌다。

5일하오 3시30분께 경기江華郡喬桐面鳳韶里 문학산밑 해변에서 이마을에 사는 전광복양(11·화동국교4년)이 물가에 떠있는 나무상자(가로25cm 세로7cm 높이5cm)를 주워뚜껑을 여는순간 폭발물이 터져 그자리에서 숨졌다。

전양은 이날 마을친구3명과함께 인근 문학산에 도라지를 캐러가다 해변에서 나무상자를 주워 뚜껑을열다 변을당했는데 친구2명은 앞서가 화를면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조사를 끝낸뒤 이폭발물을 북괴측의 대인지뢰로 단정하고 북괴가 해안지역에 설치해둔것이 조수에 밀려 남쪽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고있다。【聯合】

트럭 곤두박질 20代 1명 숨져

【春川】5일 새벽 2시께 강원 三陟郡 道溪邑 속칭 비화리 국도상에서 관동운수소속 강원7아1237호 4·5톤 복사트럭(운전사 홍성열·19)이 운전미숙으로 전복, 조수석에 타고있던 박성갑씨(29)가 숨졌다。

사고가 나자 운전사 홍씨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4시간뒤인 상오5시께 사고지점으로부터 1㎞떨어진 야산에서 목을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聯合】

鐵길 사고 3명 숨져

【春川】9월들어 첫 휴일을 맞은 4일과 5일 이틀동안 강원도내에서 3건의 열차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5일 하오2시50분께 강원 春城郡南面江村里앞 철길에서 술에취해 철길을건너던 김상기씨(53·南面 白楊里)가 서울청량리 동차사무소소속 춘천발(서울행) 제281호 특급열차(기관사 박명래·54)에 치여 숨졌다。

▲4일하오11시40분께 三陟郡道溪邑馬橋里5班榮州앞 철길에서 北平기관차 사무소소속 北平발道溪행 제1584호 화물열차(기관사 이형열·40)가 술에취해 철로에 누워있던회사원 최석철씨(36·道溪邑馬橋里)를 치어 숨지게했다。

▲이날 하오5시50분께 太白市鐵岩2洞8統8班앞철로에서 榮州발江陵행 榮州기관차사무소 소속 제7585호 완행열차(기관사 김승수·42)가 철길을 무단횡단하던 이정호군(7·철암국교1년)을 치어 숨지게했다。【聯合】

아랍人되어 돌아온屍身

三普배너號 사망船員 뒤바뀌어

【釜山】지난달 9일 이란의 반다르·호메이니항에서 피격된후 침몰해 사망한 三普해운소속 三普배너호 선원 서진수씨(36·부산東萊區安樂洞245)의 시체가 아랍계통의 시체와 바뀌채 돌아와 유가족들에게 또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시체는 4일 하오 5시께 金浦공항을거쳐 金海공항에 도착한후 부속의료원시체실에 보관됐는데 이날 가족들이 시체를 확인한 결과 서씨의 시체가 아닌 아랍계통 사람의 시체인것으로 밝혀졌다는것。【聯合】

13년과 14일

광부 裵大昌씨부인 文順基씨

"이제 다시는…"「땅위의 삶」渴求

광부 裵大昌씨의 부인 文順基씨(36·사진)에겐 남편이탄광속에매몰됐던 14일간이 광부의 아내생활 13년보다 더 길었다。 하루 하루 살이 마른다는것은 두말할것도없고 광부의아내 13년에 말라가던 눈물이 그나마 바닥이났다。

文씨가 남편의 매몰소식을 들은것은 지난달 20일상오9시께。 19일밤11시께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돌아오지않았다。 동네로 수소문하러 나갔다가 소식을 듣고 그길로 탄광으로달려갔으나 매정한 갱구만 말없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때부터 文씨는 남편이 구조될때까지 14일간을 마루에서 지새웠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했다。 처음 8일간은 밥한술 입에 넣을수가 없었다。

이때처럼 원망스런 때가 없었다。 남편을 갱으로 들여보낸 자신이 13년은 기쁨보다 아픔으로 응어리진듯했다。

文씨는 삶을 에는 아픔을 이번까지 두번째 겪는다。 지난80년 8월 남편裵씨는 근무를 마치고 인차를 타고올라오다 인차를 연결한 핀이 빠지는 바람에 수십m아래로 나동그라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이때 文씨는 『광산촌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사건후 2년만에 남편은 갱속으로 다시 들어갈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굶고 앉아있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적거리는 구조작업은 숨을 막히게 했고 아빠의신발을 보기가 고통스러운듯 국민학교다니는 아들이 마루밑에있는 『아빠의 신발을 치워달라』고 할때는 차라리 가슴에 못을 박는듯 했다。

文씨는 지난3일 하오 남편의 수의라도 손수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나갔다。 철지난 삼베값을 묻는 文씨에게 가게주인은 『금방 탄광에서 담요를 사갔다』며 남편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그순간 文씨는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젠 다시는 남편을 갱속에들여보내지 않겠읍니다…』

文씨는 지난5월 남편 裵씨가 따놓은 운전면허증을 만지작거리며 자꾸 중얼거리고 있었다。

【太白=朴珍烈기자】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불붙은 한국」 和蘭주물러

11-0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3일

金在博·李海昌 회심의 투런홈런
對美戰선 宣銅烈 三振15개 뺐어

【仁川구장서 속행된 제27회세계야구선수권대회 3일째경기서 金在博·李海昌의 2점홈런등 장단 13안타로 네덜란드에 11-0, 7회 콜드게임승을 거두고 2승1패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두차례 경기서 부진했던 金在博은 이날 2회초 투런홈런을 날려 체면을 유지했으며 4번 張孝祚도 4타석 2안타, 2포볼, 선제타점을 올려 오랜만에 강타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仁川구장에는 1만여 관중이 모여 한국팀을 응원했다. 한국은 5일 우승후보로 꼽히는 호적수 美國과의 대전서 신예 宣銅烈의 쾌속구로 기록적인 15개의 3진을 빼앗아 5회말 3번 李海昌의 역전결승3루타로 2-1로 승리했다.

宣銅烈(고려대2년)은崔東原·金始眞·任昊均등 선배 베테랑을 제쳐놓고 등판, 9회동안 美國의 강타자33명을 상대로 5안타, 1회타, 2四死구, 1실점으로선방, 세계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한편 6일 서울운동장서열린 경기서 2連敗의 美國은 8번 동의 5회초 3점홈런, 1번 프랭크의 1회초 선제솔로홈런등 19안타를 퍼부어 濠洲를 14-4, 7회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첫승리를거두었다. 파나마는 이날 잠실경기서 강호 도미니카에 3-2로 이겨 파란을 일으켰다.

한국-네덜란드

한국은 對日本전에 대비, 감춰두었던 비밀병기 吳泳日(仁荷大)을 선발로 내세웠다. 吳泳日은 전날 파나마에 6-5로 승리, 기세가 올라있던 네덜란드를 5회까지 산발3안타, 무실점으로 막으며 역투했다. 한국은 1회초 2번趙城玉이 중전안타로 나가 2盜한후 4번張孝祚의 우중월적시타로 선제점을 뽑고 다시 5번 沈載元의 안타로 張孝祚가 홈으로 들어와 2점을 쌓았다. 1회말 공격에나선 네덜란드는 채 몸이 풀리지 않은 吳泳日로부터 안타 4개를 얻어 만루를 만들었으나 6번 스미트가 吳泳日의 강속구에 말려 땅볼을 때림으로써 선취득점찬스를 무위로 끝냈다. 한국은 2회초 2死후 중전안타로나간 韓大化를 1루에 놓고 金在博이 호이벨의 볼을 받아 좌측펜스를 넘기는 투런홈런을 날림으로써 한국의 홈런 1호를 기록하며 대량득점의 문을 열었다. 한국은 계속된 공격서 趙城玉과 李海昌이 포볼을 골라나가 연속 도루, 주자 2·3루를 만든후 張孝祚의 우전안타와 네덜란드 3루수의 악송구로 2점을 추가,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미국과의 경기서 혼자 2타점을 올렸던 주장 李海昌은 4회초 투런 홈런을 날려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한국은 후반 신예 朴東洙와 朴鍾俊을 마운드에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7회초에도 3안타에 적실을묶어 2득점, 7회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끝냈다.

◇중간전적 (6일현재)

팀	승	패
한국	2	1
일본	1	0
중국	1	0
도미니카	1	1
파나마	1	1
이탈리아	1	1
캐나다	1	1
미국	1	2
화란	1	1
호주	0	2

◇제3일전적

▲인천

한국	241	200	2	11
네덜란드	000	000	0	0

〈7회콜드게임〉 ▲홈런=金在博(2회) 李海昌(4회·이상2점·한국) ▲한국투수=吳泳日·朴東洙(6회)·朴鍾俊(7회) 포수=沈載元·金鎭雨(6회) ▲네덜란드투수=호이벨·지롱디(3회)·브리스(7회) 포수=스미트·우니(4회) ▲안타수=한국13-5네덜란드

▲잠실

파나마	000	001	020	3
도미니카	000	000	020	2

◇제2일전적

미국	100	000	000	1
한국	001	010	00×	2
파나마	000	022	100	5
네덜란드	200	120	001	6

◆잠실구장

도미니카	331	133	04	18
캐나다	123	000	20	8

〈8회콜드게임〉 ▲홈런=벌티류즈(2·3회말·2점·캐나다) 까브레하(5회·2점) 아레돈도(6회·3점, 8회·2점) 끄루스(8회·2점·이상 도미니카)

◆仁川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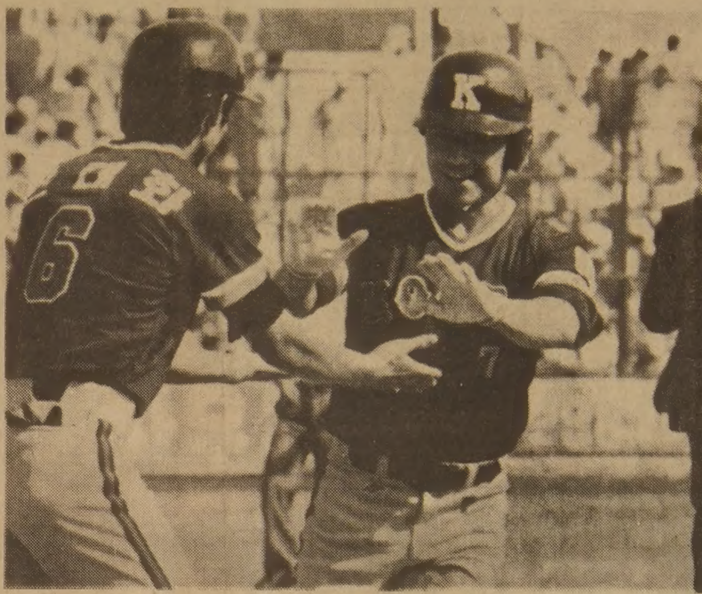
이탈리아	000	000	000	0
자유중국	000	101	00×	2
호주	000	000	100	1
일본	100	110	31×	7

▲홈런=덕크소프(7회·호주)

◆서울운동장

미국	122	051	3	14
호주	001	003	0	4

〈7회콜드게임〉 ▲홈런=브럭리(1회)·통(5회·3점·이상미국) ▲안타=미국19-5호주 ▲안타=파나마11-8도미니카



◇나인의 환영 한국-네덜란드 대전 2회초 2死후 1번타자 金在博이 회심의 2점홈런을 날리고 홈인, 동료 韓大化의환영을 받고있다。한국이 11-0으로7회 콜드게임승。 【仁川=權周勳기자】

對라미레스戰서 머리다쳐…檢診소홀문제
"完治돼도 링 떠나겠다"
金泰式, 腦수술…의식회복

◇金泰式선수

【大邱=金仁奎기자】 경기도중 머리를 크게다쳐 5일새벽뇌수술을 받았던 프로복싱 전세계챔피언 金泰式(24)이 6일 상오2시 의식을 회복했다. 金泰式은 4일저녁 大邱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WBC 플라이급 9위로 베르두·라미레스(멕시코)와의 논타이틀전서 고전끝에 10회 판정승을 거두었다. 金은 이 경기직후 大邱東山기독병원에서 뇌수술을받고 중태에 빠졌으나 6일상오 의식을 회복, 6시30분께 콜라 한컵을 세례에 나누어 마셨으며 7시에는 우유한병을 마셨다. 金은 부종도 차츰 가라앉아 점심에는 미음을 먹었는데 수술결과는 3~4일이 지나야 확실히 드러날것같다. 의식을 회복한 金은 「완치되더라도 선수생활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金泰式은 경기가끝난후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말한뒤 구토증세를 보여 4일하오9시10분께 東山기독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金은 응급조치를 받고 한때 의식을 찾았으나 컴퓨터 뇌단층촬영결과 오른쪽 前頭경부에 급성뇌경막하혈종을 발견, 金仁洪신경외과 과장의 집도로 5일새벽 수술에 들어갔다. 金仁洪박사는 「상대선수의 공격을받고 그反衝작용으로 뇌막조직을 손상, 정맥출혈이 심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선수생활은 불가능할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전을 유치한 프로모터는 大邱동양복싱체육관 李勳씨. 검진은 계체량 직후 하는것이 상례인데 이날은경기 한시간전에 간단한 검진만을 실시했다.

아시아 野球선수권 2년마다 開催키로

아시아야구연맹(BFA)은 5일상오 워커힐호텔에서 속개된총회에서 83년부터 부활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결정했다. BFA총회는 또 필리핀의 야구붐 조성을 위해 필리핀야구협회가주최하는아시아초청친선야구대회를승인했다.

北美리그 베스트11 趙榮增 뽑혀

【뉴욕4日AP聯=聯】 북미리그 포틀랜드·팀버즈에서 수비수로 활약하고 있는 전한국대표 趙榮增이 북미리그베스트11에 뽑혔다. 스포츠전문월간지인 「스포팅뉴스」가 지난4일 선정, 발표한 11명중에는 趙榮增외에 코스모스팀의 포워드인 이탈리아출신 시날리아, 서독출신 골키퍼 후버트·베르켄마이어등도 포함됐다.

한국, 4位에 그쳐 세계 프레女子배구

【사웅파울루=聯】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5일새벽(이하한국시간) 사웅파울루에서 폐막된 제9회세계프레배구선수권대회최종경기에서 약체 아르헨티나를 3-0으로 완파, 2승3패로참가6개국중 4위를차지했다. 日本은 이날 蘇聯을 3-1로 물리치고 5전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홈팀 브라질은 사웅파울루선발을 역시 3-0으로 완파하고 4승1패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선수단은 6일 상오9시 세계선수권대회 본대회가 열리는 페루로 떠났다.

◇최종일전적

브라질	3	15-0	15-1	15-4	0 사웅파울루선발
일본	3	15-9	15-9	15-6	0 소련
한국	3	15-4	15-2	15-2	0 아르헨티나

◇종합순위=①日本 5승 ②브라질 4승1패 ③蘇聯 3승2패 ④한국 2승3패 ⑤사웅파울루

金成泰씨 別世 〈4兄弟농구선수〉

4형제농구선수로 이름을 떨치던 金成泰씨가 6일상오 0시10분 한일병원에서 혈액암으로 별세했다. 향년62세. 金씨는 大東商高,高麗大,産業銀行에서 농구선수로 활약했고 경태, 홍태, 성태, 영태씨등 4형제 선수로 화제를 모았었다. 발인은 8일상오10시 한일병원에서, 장지는 서울近郊佛光洞 성당공원묘지.

스포츠短信

「亞洲」組織委부회장崔萬立씨 ◇…86년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차총회가 6일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서 열려 崔萬立KOC부위원장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浦鐵、韓一銀격침
실업축구、8勝2無1敗…단독先頭

浦項製鐵은 6일 효창운동장서 속행된 실업축구 코리안리그 제30일째경기서 韓一銀行을 1-0으로 누르고 통산8승2무1패를 기록, 다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제30일전적

철도청 2 (1-1, 1-1) 2 제일은행 (2승3무6패)(5승4무2패)
주택 3 (2-2, 1-0) 2 대우실업 (5승2무3패)(4승5무2패)
포항제철 1 (1-0, 0-0) 0 한일은행 (8승2무1패)(2승4무5패)

◇후기중간순위 〈5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	삼성	22	7	.759
②	OB	19	7	.731
③	MBC	16	12	.571
④	롯데	13	11	.542
⑤	해태	8	17	.320
⑥	삼미	2	26	.071

◇홈런 5걸

①	金準桓	(해태)	15
②	金奉淵	(해태)	14
②	白仁天	(MBC)	14
④	金城漢	(해태)	12
④	李萬洙	(삼성)	12

◇타격 5걸

이름		타수	안타	타율
①白仁天	(MBC)	202	84	.416
②尹東均	(OB)	230	84	.365
③張泰洙	(삼성)	170	61	.359
④金容哲	(롯데)	206	70	.340
⑤李鍾道	(MBC)	239	80	.335
⑤具千書	(OB)	212	71	.335

◇타점 5걸

①	金城漢	(해태)	62
②	白仁天	(MBC)	52
③	申慶植	(O·B)	50
④	李萬洙	(삼성)	46
⑤	咸學洙	(삼성)	45

◇도루 5걸

①	金一權	(해태)	48
②	趙興雲	(삼미)	36
③	金仁植	(MBC)	31
④	張泰洙	(삼성)	29
⑤	車榮華	(해태)	27

◇다승투수 5걸

이름		승	패	구원
朴哲淳	(OB)	21	2	6
權永浩	(삼성)	15	4	1
盧相守	(롯데)	14	16	2
李善熙	(삼성)	12	5	1
黃圭奉	(삼성)	12	10	11

해태 방망이 大爆發 OB 마운드 혼났다
홈런 2發…7-1大勝
金準桓 홈런1위

슬러거 金準桓이 프로야구 홈런·더비 1위로 뛰어올랐다. 6일 光州홈팬들의 열광속에 해태·타이거즈의 5번 金準桓은 선두를달리던 OB·베어스의 왼손투수 黃泰煥으로부터 5회말 좌월2점 홈런을 뺏아 통산15호를기록, 白仁天과 동료 金奉淵을 제치고 단독1위에 나섰다. 해태는 3회말 金鍾模의 3점 홈런으로 OB선발 朴相悅을 다운시키고 金準桓의 한방으로 구원투수 黃泰煥까지 녹아웃시켜 7-1로 대승했다.

◆5일전적 ◇光州

OB	000	000	001	1
해태	004	020	01×	7

▲홈런=金鍾模(3회·3점), 金準桓(5회·2점·이상해태)

◇大邱

MBC	203	011	403	14
三美	010	000	000	1

▲홈런=許云(2회·三美) 金容實(7회만루·MBC)

◇부산

三星	002	130	000	6
롯데	100	030	000	4

533-2361

샘처럼 맑은 눈물

어느 날, 깊고 깊은 숲속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에 친구 영이와 나는 아이들처럼 손을 담그고 샘밑의 모래를 파며 물장난을 쳤다. 영이는 『이런 장난은 우리 은희같은 애들의 놀음인데다 늙어서 무슨 짓인지 몰라』하며 웃었다.

그처럼 늘 의젓하고 점잖은 영이가 오늘 오랫동안 투병을 하던 친정아버지가 작고 하셨다는 고국으로부터의 부음을 받았다. 내가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쳐다보기만 할 때 말없이 그 친구의 눈에선 방울 방울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 눈물은 우리가 장난치던 그 샘물만큼이나 깊은의미가 있는듯보였다.

지금은 깊은 밤. 아마도 지금 영이는 샘물처럼 펑펑 눈물을 쏟으며 밤을 새우고 있겠지. 그 샘가에서 화평하게 웃으며 중년부인다운 봉티(?)를내던 그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자란 은희엄마(영이)가 이제 아버지마저 여의었으니 틀림없이 남이보지 않는 곳에서 이 밤에 별을 보며 한없이 울리라. 내일 나는 뭐라고 위로를 해주어야할까. 『이런 눈물은 은희같은 애들의 것이야. 다 늙어서 무슨 일인지 몰라』하고 전에 그녀가 나한테 하던말을 되돌려줄까.

그러나 별로 이번엔 어울리지 않는 말같다. 차라리 샘처럼 맑은 눈물이 모든 슬픔을 씻어 내도록 펑펑흘리게 내버려두는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정문혜 142-44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USA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0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⑫

어제도 그랬던가? 아니오래전에 그랬던가? 오목이는 그가 한부로 지껄이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생각했다.

『일찍들어와요』

그가 셔츠를뒤집어쓰고 점퍼를 걸치는걸 거들어주고나서 괜한것인줄 알면서도 그녀는 짐짓애교까지 부렸다.

『그럼、그럼 득남턱 하랄까봐 아들낳았단 소리도안할텐데 뭐』

그가 얼굴을 씰룩대며 웃었다. 그가 출근하자 살것같았다. 오늘은 아기에게 젖을 물려보리라. 아기의 목숨줄이 자기몸에 매달려있다는게 각성처럼 새롭게 놀라왔다. 한편 아기를 위해선 가슴이 저리며 애처로왔다.

나간줄알았던 일환이가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섬난얼굴로 오목이를 노려보았다.

『왜 그래요?』

그녀는 어눅하게 물었다.

『방을 내달래. 주인 여편네가…』

어디까지나 자기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그 놈의 새끼가 애물이야』

그가 차디차게 말했다.

『팔삭둥이라니…, 재수더럽군』

이렇게 덧붙이고나서 킬킬댔다. 팔삭둥이라는 소리도 듣기 싫었지만 그 소리를 할때마다 킬킬대는 소리는 정말 견디기어려웠다.

오목이는 말대답대신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그 소리를 자꾸만 들을바엔 차라리 혼자 기르는 게 낫겠다고.

그의 껑청한 다리가 어둑시근한 계단위로사라지자 그녀는 아기를 품고 소리없이 말했다.

『그 여자가 안내쫓아도 우린 여기서 햇빛이 드는 곳으로 나가야해. 여긴 사람 살곳이 아냐. 네가 꿋꿋한 아기로 다시 태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햇빛이 있어야해. 내 체온, 내 눈물만 가지곤 어림도 없어.』

일환이가 먼저 말을 했다.

『이 아이가 팔삭둥이라지?』

무섭게 가라앉은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킬킬댔다. 웃음에 사레가 들릴때까지 킬킬댔다.

오목이는 희생을 바치듯이 공구(恐懼)하며 아기를 그의 품에 안겨주고 밖으로 나와 아침을 지었다. 김을 매다가 발고랑에서 아기를 낳아 집에 데려다 눕히고 나와 남은 밭이랑을 마저 맸다는 이야기속의 시골여자처럼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믿고 대했다.

그녀가 눈치 안보고 응석부릴수있는데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다.

밥상을 받고 그는 말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다신 술 안마실게. 득남턱 하래도 안마실 게』

『나도 알아요』

그의 으름대는 목소리에 질려 그녀는 더욱 맹해졌다.

『왜 그 얘길 나한테 숨겼지?』

『뭐 좋은 소리라고요. 차차 하려고 했어요』

『차차 언제? 며칠 사이로 담장 내 달랜는데. 그것도 모르고 동문서답을 했으니 내꼴이 뭐냐말야?』

『여보 화 좀 그만내요. 며칠 사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난 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사람이 인정이 라는게 있지…』

오목이가 울먹였다.

『그 아이 소리 좀집어쳐. 아이때문에 내쫓기는 것도 몰라?』

그가 꽥 소리를 지르며 딱 버티고 섰다. 그런 가학적인 몸짓이 뜻밖에도 그에게 잘 어울렸다. 마치 아기에 의해 그들이 곤경에 빠진걸 즐기고있는 것처럼 보였다.

海城酒家
SE.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세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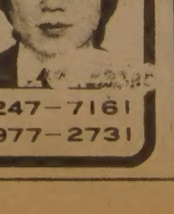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休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 EGLINTON AVE. W.
781-912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 각종 유화·서양화
● 사진액사 전문으로 취급
◉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THE KOREA TIMES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 복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복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으로 된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빈가게 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Steel Shelving Painting, Tile, Concrete,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복수인 합니다.
●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1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 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나소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쎈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신기, 세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스리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1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신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이스트만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미 운 송
각종 포장및 이사짐, 피아노, 물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수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유

INVENTORY — 인벤토리 —
수아부분(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미술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유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신분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김 용 환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하

광고문의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와인태권도 完八跆拳道
교포 관인무대
이철배, 이헌우 사범 직접 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추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주말 유경험자 Helper 구함
(남·녀 관계 없음) 낮12시~밤11시
1114 Yonge St.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GROCERY에서 Cashier 하실분과 HELPER
구함. (단, 유경험자 여자분에 한함)
전화 : 598-2546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남자 스토아 헬퍼 Full Time.
남·녀 Part Time 캐쉬어 구함.
학생도 가능함. 625-1620(미시사가 지역)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First Canadian Place에 있는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18세-25세) 월-금(주말은 쉽)
전화 : 438-0403(6시이후 Mrs. 유)

남자 Store Helper 구함
무료로 숙소도 제공
전화 : 488-1634

유경험자 Helper구함(남자분)
Grocery Store(채소 & 과일)
전화 : 597-1115(오전 8-10시사이)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매매

★Bargain Variety
현대식 Plaza(at Oshawa Main St.) 2,400 sq.ft.
주매상 : $7,000. 장래전망 최고.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함. $59,000+stock.
★ High Volume Convenience Store.
성업중이며 매우 바쁜 거리에 있는 Plaza안에 있음.(Oshawa)
주인이 새로운 Business를 하기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고 자 함.
$60,000+stock. 6년 리스

Bagot Realty Inc. (Realtor)
Phone :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rick Building + Variety & Grocery
아스킹 : $129,900.(West Toronto)
A.E.LePAGE
Chaherine Ryerson
전화:537-3431

새 Store 양도(New Plaza) 전망좋은 가게를 사정에 의하여
양도 코져함 새로 Set up 하실분.
전화 : 532-7421 Mr.서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앞으로 전망좋은 핀취×웨스턴 멀안에 있는 쌍방울 메리야스 가게(애기옷, 베드스프레드, 담요, 카페트)를 매매코저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애기옷 0-6살까지) 3467 Finch West Mall
전화 : 746-3458 Mrs.윤

카메라 상점 급매
691 Bloor st. W
전화 : 534-1085 Mr.김

다운 Town Mall안에 있는 가게를 일손이 모자라 급히 팔고자 함. 옷과Variety 겸함. (혼자서 운영가능)
전화 : 536-1914 (Mr. Yong)

Restaurant for Sale.
near the Christie Subway. Fully equipped.
Fully licenced under L.L.B.O.
Immediate Occupancy Reasonable Price.
Ask Miss Yen. 536-6769 or 532-7489

SERVICE STATION
2. BAY GARAGE-SNACK BAR.
Highway 10 North of Brampton
One Acre Corner Lot. $80,000.
Down Payment. Mr. William.
251-4656 Albany Real Estate Ltd.

벤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2층살림가능.
전화 : 1-527-6974

Business Opportunity
위치: Borough of York. 매상 대단히 양호함
번창한 곳에 위치한 최고의 여건을 갖춘 파일과 야채가게 좋은 리스, 꼭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Mr. Gim Gounelas 536-5600
Premore Real Estate Ltd.

발전성있는 가게임. 현재 주 3,200불
리스5년+5년. 전화 : 923-9948 Mrs. 정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0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Variety Store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Rent: $600. 전화 : 266-7833 Mr. Kim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크레딧·카드 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집렌트

House for Rent. (3 Bes Rm.: 6 Rms)
31 Barton Ave. near Bathurst. 가격은 드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음. 447-1869 (Mr. Don Fenton)

아파트렌트

단기·장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하실분.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편리한 여건임. 693 Bloor St. W.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앞)

방세 좋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방세 Two (킬×St.Clair)
One (Dundas×George.St)
Tuesday 226-2077. 763-3289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강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제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 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1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1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1-2311 [illegible]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퍼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운)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우리동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1(B). 71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핀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1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 미용실 (주간: 한국인)
[illegible]
• 2191 Lakeshore Blvd.[illegible] 전화: 255-171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